연구총서 23-AB-08

www.kicj.re.kr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Adolescent Drug Crime: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김낭희 · 이선형 · Weisheit, R. A.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연 구 책 임 자

김 낭 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이 선 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Weisheit, R. A. 일리노이 주립대 범죄학 석좌교수

연 구 지 원

이 다 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김 경 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발간사

2022년 10월,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으로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급박하게 변동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마치 COVID-19 전염병과 같이 마약류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전쟁'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수사 어구처럼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약류범죄 대응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2022년 마약과의 전쟁 선포 후 곧바로 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등 각 부처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마약류차단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청소년 마약류범죄 차단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을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범죄 및 청소년 공급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단속·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식약처는 충청권에 청소년 중심 약물재활센터를 설치하고, 교육부는 2024년 8월부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대응이 조금은 정리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약류범죄 대응을 위해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 역시 그 과정에 힘을 보태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마약류범죄 연령하향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와 대응에 관한 본 연구가 한국의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늦추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각 전문영역에서 사명감으로 일하시며 오랜 시간 쌓아 온 지혜를 나눠 주신 경기남부경찰청, 인천참사랑병원, 법무법인 진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정시설 전문가 분들께 깊

은 존경을 표합니다. 연구 모든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기원 사무관님, 대구지방검찰청 구재연 검사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박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조직된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의 도움으로 연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는 이선형 박사님, 열정적으로 연구에 동참해 주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Ralph Weisheit 교수님,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이다미 조사연구원, 송승연 선생님, 서울대학교 김경희 선생님, 모두 연구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청년 마약류사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모든 중독·회복자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김 낭 희**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김낭희

서 론 ····· 3

제1절 연구배경 ····· 5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과업 ····· 7

제2장 김낭희

선행연구 검토 ····· 9

제1절 개념의 조작적 정의 ····· 11

1. 마약류 및 마약류범죄 유형 ····· 11

2. 청소년의 범위 ····· 12

제2절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 13

1.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위험성 ····· 13

2.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영향요인 ····· 14

3.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 15

제3절 소결 ····· 20

제3장 김낭희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 23

제1절 청소년 마약류범죄 현황 ····· 25

1. 마약류범죄 단속 현황 ····· 25
2.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 29
제2절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특성 ····· 32
1.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범죄력 ····· 33
2.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사회적 특성과 처우 ····· 35
제3절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 양상 ····· 37
1. 청소년 마약류범죄 계기와 진행 ····· 37
2. 청소년 마약류범죄 주요 특성 ····· 40
제4절 소결 ····· 45

제4장 이선형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 ····· 49

제1절 분석 개요 ····· 52
1. 분석 방법 ····· 52
2. 분석 자료 ····· 53
제2절 분석 결과 ····· 56
1. 단어 빈도분석 ····· 56
2. 토픽모델링(LDA) 분석 결과 ····· 58
3. word2vec 분석 결과 ····· 61
제3절 소결 ····· 71
1. 주요 결과 요약 ····· 71
2. 언론보도를 통해 본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특성 ····· 72

제5장 김낭희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 75

제1절 청소년 마약류범죄 처우 및 예방 ····· 77
1. 청소년 마약류범죄 처우 ····· 77
2.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 ····· 79

제2절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동향 ····· 79
1. 마약류범죄 차단을 위한 정부 대응 ····· 79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 88
제3절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제언 ····· 91
1. 마약류 차단 예방교육 ····· 92
2. 처우 및 치료재활 ····· 96
3. 환경체계 ····· 104
제4절 소결 ····· 110

제6장 Weisheit, R. A.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대응 사례: 미국을 중심으로 ····· 113

제1절 미국 청소년 마약범죄 개요 ····· 115
1. 넓은 맥락에서 본 주요 문제와 과제 ····· 115
2. 미국 청소년 마약범죄 개요 ····· 116
3. 청소년 마약범죄 정책 및 전략 ····· 118
제2절 서비스 및 프로그램 사례 ····· 120
1. 청소년 마약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 120
2. 소년법정(Youth Courts) ····· 122
3. 그 외 여러 대응 노력 ····· 124
제3절 성인모색기에 대한 고려 ····· 127
1. 성인모색기 이론 ····· 127
2. 성인모색기 사법(Emerging Adult Justice) ····· 128
제4절 소결 ····· 131
1. 향후 동향 ····· 131
2. 결론 ····· 132

제7장 김낭희

결 론 ····· 13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 135
제2절 논의 및 제언 ····· 139
1. 교육전문가 중심의 예방교육 역량 밀집 ····· 140
2. 청소년 정신건강 기반의 통합적 접근 ····· 142
3. 단속 초기, 법적 처분 전 치료 연계 체계 구축 ····· 142
4. 국가연구기관 및 상시 중앙기구 설립 ····· 143

참고문헌 ····· 147

Abstract ····· 157

표 차례

〈표 2-1〉 청소년 마약류 관련 주요 선행연구 ····· 16

〈표 3-1〉 마약류사범 현황 ····· 25
〈표 3-2〉 최근 5년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연령별 현황 ····· 28
〈표 3-3〉 연령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및 처방량 현황 ····· 30
〈표 3-4〉 연령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 현황 ····· 31
〈표 3-5〉 20세 미만 펜타닐 패치 처방량 ····· 32
〈표 3-6〉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 범행시 '전회처분' ····· 33
〈표 3-7〉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 범행시 '전과' ····· 34
〈표 3-8〉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 재범자 '재범종류' ····· 34
〈표 3-9〉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 '재범기간' ····· 35
〈표 3-10〉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자 범행 및 사회적 특성 ····· 36
〈표 3-11〉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자 구속 및 검찰송치 ····· 37
〈표 3-12〉 청소년 마약류범죄 계기 ····· 38
〈표 3-13〉 청소년 마약류범죄 진행 ····· 39
〈표 3-14〉 발달단계에 기반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특성 ····· 40
〈표 3-15〉 사회적 방임에 의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특성 ····· 42
〈표 3-16〉 사회환경 변화에 의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특성 ····· 44

〈표 4-1〉 단어 빈도 상위 40개 단어 목록 – 언론 기사 ····· 57
〈표 4-2〉 LDA 결과에 따른 토픽 및 키워드 목록 ····· 60
〈표 4-3〉 워드투벡 결과 – '구입', '구매', '판매', '거래' ····· 62
〈표 4-4〉 워드투벡 결과 – '구매자', '판매자', '입금', '투약' ····· 66
〈표 4-5〉 워드투벡 결과 – '제조', '재배', '생산', '유통' ····· 69

〈표 5-1〉 '마약과의 전쟁' 선포 전후 주요 정부 대응 ····· 80
〈표 5-2〉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청소년 마약류차단을 위한 주요 정부 대응 ····· 82
〈표 5-3〉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2023.5.17.) ····· 87
〈표 5-4〉 17개 광역자치단체, 21개 마약류 예방 조례 중 청소년 관련 항목 포함 현황 ····· 89

〈표 5-5〉 17개 시도별 마약류 관련 시군구 조례 제정 현황 ····· 90
〈표 5-6〉 226개 기초자치단체, 41개 마약류 예방 조례 중 청소년 관련 항목 포함 현황 ····· 91
〈표 5-7〉 청소년 마약류 차단 예방교육에 관한 의견 ····· 93
〈표 5-8〉 청소년 마약류 차단을 위한 주변인 교육에 대한 의견 ····· 95
〈표 5-9〉 청소년 마약류사범 법집행단계에 대한 의견 ····· 97
〈표 5-10〉 청소년 마약류중독 치료재활에 대한 의견 ····· 100
〈표 5-11〉 근거기반 구축에 관한 의견 ····· 102
〈표 5-12〉 대중매체에 관한 의견 ····· 105
〈표 5-13〉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 ····· 106
〈표 5-14〉 중앙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 108

〈표 6-1〉 미국 청소년 체포 건수 및 소년법원 청소년 수 ····· 118

그림 차례

[그림 3-1]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단속 추이 ····· 26
[그림 3-2]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별 ····· 27
[그림 3-3] 20세 이상 마약류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별 ····· 28

[그림 4-1] '청소년 마약'의 네이버 검색어 추이 ····· 54
[그림 4-2] '청소년 마약' 관련 언론사별 기사 수 ····· 55
[그림 4-3] '청소년 마약' 관련 월별 기사 수 ····· 56
[그림 4-4] '마약' 제외(좌) 및 '수사', '범죄', '경찰', '청소년' 제외(우) 워드클라우드 ····· 57
[그림 4-5] 복잡도와 응집도 결과 및 LDA 2차원 시각화 ····· 58
[그림 4-6] 월별 기사 수와 토픽별 구성 그래프 ····· 61
[그림 4-7] 디에타민 관련 네이버 지식인 문의 글 ····· 6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 대응의 우선 정책대상인 청소년에 초점화하여 마약류범죄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반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공식통계자료 및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실무 전문가 8명과 청년 마약사범을 3명을 심층면담하였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 단속사범 중 2.6%(481명) 수준이지만 증가폭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1인당 처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합법적인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장실무 전문가와 청년 마약류사범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발달단계의 특성과 사회적 방임, 그리고 사회환경의 변화의 복합적 요인으로 마약류범죄에 내몰리는 특성을 보인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 마약 수사/검거', '청소년 마약 예방/재활' 토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예방/재활 기사는 수사/검거 기사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언론보도 내용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 또래문화의 특성은 '알음', '동갑내기' 등으로 설명되고, 마약류범죄의 용이함은 '콜라마약', '상품권' 등으로 설명되며, '랜덤채팅', '가상계좌', '텔레그램' 등은 디지털 기반 범죄환경 변화를 설명해 주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청소년들이 마약류범죄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낮고, 생활마약이 확산되어 있으며, 마약류 유통범죄에 가담할 위험성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마약류차단 대응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중 청소년 마약류 차단을 위한 정부대응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상 마약류범죄 및 청소년 마약공급범죄 처벌강화, 청소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개발 및 시행, 청소년 마약실태조사, 청소년재활 특화 약물재활센터 설치, 마약표현 규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모니터링, 캠페인 등이 추진되

었다. 전문가 및 청년 마약류사범과의 면담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맥락, 큰 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마약류 차단 대응에 대해 자원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중앙기구가 필요하며 특히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현재 마약과의 전쟁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약류차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진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로서 의의가 있다. 미국에서 시행한 성인약물법원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약물법원, 소년법원, 소년법정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성인약물법원의 평가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마약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며, 인간발달이론을 수용한 성인모색기 법원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해 전통적인 사법체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가 읽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전문가 중심의 예방교육 역량 밀집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 정신건강 기반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단속 초기, 법적 처분 전 치료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연구기관 및 상시 중앙관리기구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서 론

김 낭 희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배경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마약류범죄[1] 단속인원은 1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3). 10년 전인 2012년 단속인원 9,255명에 비하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대검찰청, 2013). 전국적으로 마약류범죄 단속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마약류범죄 확산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최근 마약류범죄가 급속히 확산하는 사회현상은 그간 암수로 존재했던 마약류범죄가 정부의 강력한 수사단속으로 표면화된 측면이 있다. 살인, 강도 등 여타 범죄는 피해자가 확실하여 신고를 통해 범죄가 드러나지만, 마약류범죄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모두 범죄자이므로 상대적으로 암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다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범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확산하고 있는지, 또 누가 마약류범죄에 가담하며, 나아가 마약을 매개로 어떠한 범죄들이 파생되고 있는지 실존하는 사회현상을 파악하기에 상당한 장벽이 존재했다. 정부의 강력한 수사단속의 성과로 국내 마약문제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매월 '마약류 월간동향'을 통해 실시간으로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3년 8월 기준으로 이미 20,230명의 마약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조(정의)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규정하고 있음. 법적 개념으로 '마약'은 마약류의 하위 유형이나 통상적 용어로도 사용되므로, 본 연구는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마약류'와 '마약'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사범이 단속되어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수를 뛰어 넘었다. 2022년 9월 기준 13,708명을 단속한 것과 비교하면 동기간 약 1.5배 많은 인원이 단속되었다.

마약류범죄의 다양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중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마약류사범의 연령대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이 전체의 59.7%를 차지한다(대검찰청, 2023). 2012년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35.5%였으며, 5년 후인 2017년은 41.8%로 6.3%p 증가한 반면, 최근 5년간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17.9%p 증가하였다. 연령하향화 경향이 마약류범죄의 뚜렷한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연령하향화 경향 속에서 정부는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관심은 지난 4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으로 증폭되었다.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은 청소년 마약류범죄라기보다 마약을 이용한 피싱범죄, 사기범죄, 공갈협박범죄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가 마약음료사건 근저에는 교육열이 높은 특정 지역에서 입시스트레스에 노출된 청소년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대검찰청 자료만 보면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2022년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전체 마약사범의 2.6%, 481명으로 집계되었지만, 2012년 38명 대비 12배, 2017년 11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청소년 마약류사범 481명의 숫자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대응은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사회적으로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손실을 불러온다. 정신의학적으로 마약은 '중독질환'의 특성이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른 시기에 마약류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국가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청소년 마약류사범 481명에 상당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그 외 관련 민간단체가 앞다투어 청소년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정책추진의 근간은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기반해야 한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3년 8월 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8월부터 학교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동법 제2조의5)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

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수개월 사이 마약류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관련 법개정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마약류문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청소년 마약류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가통계는 마약류문제의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는 하나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 마약문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문제 대한 증거기반 대응마련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2절 | 연구목적 및 연구과업

본 연구는 정부가 마약류범죄 대응의 우선 정책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에 초점화하여 마약류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의 연구과업을 설정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내 청소년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제3장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마약류범죄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연령대, 전체범죄와 비교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류범죄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장실무 전문가 및 청년 마약류사범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제4장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에서는 공식통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빅카인즈)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발생 자체만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상당 부분 언론에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포털사이트 메인의 언론보도는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기사가 주로 노출되어 대중에게 편중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를 활

용하여 언론보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거래, 구매, 제조·생산 관련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은 청소년 마약류범죄 처우 및 예방에 관한 일반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추진해 온 정부대응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이외에 지방정부의 대처는 어떠한지 마약 관련 조례 내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 전문가 및 청년 마약사범 심층면담에서 논의된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의견을 종합하여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제6장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대응사례'는 미국을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치료법원, 소년법정, 그 외 성인모색기사법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미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대응이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미국은 오랜 기간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온 선행국가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 사례를 선진사례로 지향하기보다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현재 미국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후속 대안으로 어떠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검토, 국가통계자료 이차분석, 언론보도자료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전문가 및 청년 마약류사범 심층면담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와 대응에 관한 경험적 근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실무경험이 있는 경찰, 변호사,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사, 교정직공무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과정 탐색을 위해 22세 이하 청년 마약류사범과 회고적 면담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분석결과는 제3장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와 제5장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에서 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김 낭 희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 개념의 조작적 정의

1. 마약류 및 마약류범죄 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정의)에서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펜타닐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허가되지 않은 용도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취급, 사용, 유통하면 법적 규제대상이 된다. 마약류 이외에 시너, 접착제,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은「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제1항에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위반사건을 단속하고 있다(대검찰청, 2023).

일반적인 마약류범죄의 정의와 범위는 국가마다 사회의 문화, 도덕적 관념, 법·제도의 규제 내용에 따라 다양하지만, 통상 마약류범죄는 마약, 향정, 대마에 대한 국가의 규제나 관리 및 법적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학신, 2012). 1988년 UN「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 제조, 추출, 제제(製劑), 제공, 판매를 위한 제공, 배포, 판매, 배달(명목을 불문), 중개, 발송, 통과발송, 운송, 수입 또는 수출' 등의 불법거래를 마약류 '범죄'로 규정하며[2], 협약 당사국이 자국 법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1998년 협약 가입 이전인 1995년에「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국내법을 정비하였다(대검찰청, 2023: 25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2)「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제3조(범죄 및 제재)에서 해당 내용을 '범죄'로 규정하고, 동협약 제1조에서 해당 범죄를 '불법거래'로 규정하였음(협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제1476호).

특례법」을 포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4]」, 「화학물질관리법[5]」에서 마약류 및 환각물질 관련 금지, 제재, 처벌조항을 담고 있어 이에 근거한 범죄행위를 마약류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다양한 마약류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는 마약류범죄유형을 ▶마약류 밀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밀수·밀매 행위, ▶마약류의 투약·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범주화하며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로 마약류범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대검찰청, 2023: 96-98).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유형을 '환각물질 흡입 및 섭취행위 등'으로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다(대검찰청, 2023: 229).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마약류범죄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라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로 구분하고, 부가적으로 환각물질을 포함하며, 마약류범죄의 유형은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의 정의는 법률 및 정책의 목적,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먼저 청소년의 보호, 처분 시 적용되는 법규정인 「소년법」은 제2조(소년 및 보호자)에서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형법」은 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를 정의하며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제2조(정의)에서 청소년에 대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이나 취업한 사람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하여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조정하는 법개정이 2001년에 이루어졌다. 「청소년

3) 동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제206조)에 아편 관련 처벌 규정이 있음.
4) 동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하며 법률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6)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음.

기본법」은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조(정의)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서비스 이용 자격(eligibility)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단서조항을 통해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연령범위 규정은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규제와 환각물질 중독전문 치료기관 서비스 이용에 적용된다. 「청소년 기본법」 역시 사회서비스 이용 자격기준으로서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범위를 24세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두었다. 수사단속기관에서 집계하는 범죄, 즉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는 마약류범죄의 연령별 현황을 제시할 때 '19세 이하'로 연령대를 구분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연령범위는 집계된 통계자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통계데이터 현황 분석시에는 해당 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대를 적용하며, 사회통념상으로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마약류범죄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 20대 중반의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 젊은 청년들까지 포함하였다.

제2절 |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1.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위험성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원 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정책실현의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와 특징, 그 원인과 정책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체로 문헌연구 위주였으나, 일부 연구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

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마약류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의 심각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공태명, 최응렬, 2012; 김태우 외, 2020; 김학신, 2012; 박선영, 박현나, 2023; 이정혁, 강동욱, 2018). 마약류범죄가 국제화, 다변화되면서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위험성을 언급하였다(공태명, 최응렬, 2012). 특히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SNS 등 온라인 환경에서 마약류 거래 및 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이 마약류 사용에 접근하기 쉬워진 사회환경을 지적하였다(이정혁, 강동욱, 2018). 청소년은 또래집단이나 언론매체의 영향에 쉽게 휩쓸릴 수 있고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여 또래문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김태우 등, 2020; 박선영, 박현나, 2023).

마약류 사용 및 범죄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큰 위험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청소년기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마약류의 반복적인 사용은 인지능력 저하를 포함하여 청소년기 발달을 저해하고 이후 삶의 질에도 누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공태명, 최응렬, 2012; 김태우 외, 2020). 더욱이 마약류범죄는 암수성이 커서 드러나지 않으며, 상습화 가능성과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고 살인, 폭행, 성범죄 등 2차 범행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의 안정적인 발달과 학교생활, 이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박선영, 박현나, 2023; 이정혁, 강동욱, 2018).

2.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영향요인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다차원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도 개인의 심리·발달적 특성에서부터 가족 요인, 학교 요인, 지역사회 및 정부 등 사회구조적 요인까지 다양하게 분석되었다(공태명, 최응렬, 2012; 김태우 외, 2020; 김학신, 2012; 박선영, 박현나, 2023; 이정혁, 강동욱, 2018). 먼저, 개인적 차원의 요인으로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과 전환기적 성격을 지닌 발달단계로 정체성의 혼란과 학업 등의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도전상황에 직면하고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김태우 외, 2020). 가족 요인으로는 갈등적인 가족 분위기, 부모의 부재, 맞벌이, 부모의 과잉보호나 강압적인 양육태도, 학업성취 압박 등에 의한 스트레스 상황을 들 수 있다(공태명, 최응렬, 2012; 김태우 외, 2020; 이정혁, 강동욱, 2018). 학교 요인으로는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 열등감과 실패의 두려움, 교사 및 또래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으며, 또래의 약물 및 마약류에 대한 사용 여부나 또래 집단의 문화에 따른 마약류 사용에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공태명, 최응렬, 2012; 김태우 외, 2020; 이정혁, 강동욱, 2018).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감독의 부재, 학벌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 마약류 접근이 용이해지고 확산이 가속화되도록 하는 정책적 감시 및 제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공태명, 최응렬, 2012; 김태우 외, 2020; 김학신, 2012).

이처럼 여느 사회적 현상이 그렇듯이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단일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사회구조적 차원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마약류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 또래관계)을 검증하기도 하였으나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맥락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미흡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헌과 해외사례를 토대로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특성에 대해 심도있게 탐색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반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개인적, 관계적, 가족, 학교 요인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증하여 청소년에게 특화된 예방,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영향요인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응방안 역시 개인, 가족, 사회,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접근의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는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개선된 대응방안에 대해 해외 선진사례를 토대로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거나(박선영, 박현나, 2023),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다차원적인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공태명, 최응렬, 2012; 김태우 외, 2020; 김학신, 2012; 이정혁, 강동욱, 2018; 이상열, 2008).

선행연구는 이제까지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이 예방보다는 사후대처와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후대처의 측면에서도 치료·재활 서비스가 성인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언급하였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후처벌적 대처보다 회복적인 지원을 통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에게는 마약류 사용이나 범죄 경험이 이후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므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예방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청소년의 마약류 접촉 차단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부족,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전달체계의 미비, 다양한 부처 및 체계 간의 협력 부족 등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공태명, 최응렬, 2012; 김태우 외, 2020; 김학신, 2012; 이정혁, 강동욱, 2018; 이상열, 2008).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관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청소년 마약류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주요연구결과
우룡 (2004)	청소년 약물남용과 마약류사범 동향	문헌연구	• 국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술과 담배이며, 증가 추세에 있음 • 각성제, 수면제, 본드, 가스 등의 약물은 일관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과거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 다소 낮게 나타남 • 학생 청소년보다 소년원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대마초, 마약, 필로폰 등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부 소년원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1990년대 후반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는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였고, 환각물질흡입사범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보다 약 5배에 높은 수치임

연구자 (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주요연구결과
이상열 (2008)	최근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 신종마약의 국내 밀반입과 은닉수법의 조직화, 지능화가 되는 추세임 • 마약류 공급차단을 위한 대책으로 강력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함 • 수요감축을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 교육 및 예방활동 강화가 중요함 • 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및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마약류 수사기관의 통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배정이 외 (2009)	청소년 물질남용 (음주, 흡연, 마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웹기반 전문가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용자 중심 설계 접근 user-centered design)	• 청소년 물질사용의 예방,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 진단검사실, 예방교육교실, 중단교실, 재발방지교실, 정신건강증진교실, 학습실, 부모님방, 대화방, 마이페이지, 자료실, 도움되는 기관, 관련 사이트가 지원됨 • 개발된 시스템은 정신병원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물질남용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매체로 활용 가능함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물질남용 사정과 진단 및 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함
권중록 (2009)	공익광고 요인과 청소년 개인 성향요인이 마약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2차 자료 양적 분석	• 공익광고에 대한 노출정도와 광고에 대한 반응이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마약이용 횟수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남 • 공익광고에 대한 노출보다는 공익광고에 대한 반응이 좋을수록 친구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음 • 친구가 마약을 이용할수록 본인도 마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용횟수도 많아짐 • 미디어 스타 숭배 경향이 높을수록 마약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임 • 즉, 마약에 대한 태도와 이용빈도는 내적 및 외적 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공태명, 최응렬 (2012)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단속보다는 예방,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해야 함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차원의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대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임
김학신 (2012)	마약류 관리법상 청소년의 마약범죄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문헌연구	•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모두 기인함 • 마약류범죄의 문제는 단속적 측면, 치료적 측면, 교육과 홍보적인 측면이 통합적으로 드러남 •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대처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공급차단 정책을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기능을 강화하며, 예방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하며, 온라인상의 마약류 의약품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자 (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주요연구결과
박성수 (2017)	청소년의 물질중독 예방전략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 청소년 마약류범죄와 재범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물 오남용 교육 수강률은 7% 수준에 불과함 •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향정사범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과 같은 환각성 유해화학물질인 것으로 나타남 • 예방을 위해서는 유해약물 유통경로에 대한 단속 강화, 청소년 맞춤형 교육 및 치료 모색, 학교 예방교육 차별화, 온라인상의 청소년 대상 공급차단이 필요함
이정혁, 강동욱 (2018)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남용에 대한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문헌연구	• 청소년은 마약류범죄의 수요감축을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교육 및 예방활동 강화가 중요함 • 가정, 학교, 지역협력체계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육과 홍보 강화로 청소년들의 호기심, 또래집단 소속감, 일탈 등의 수요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함 •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마약 및 유해약물 퇴치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교육내용을 유해약물 및 마약 내용까지 확대해야 함
이성애, 조호대 (2018)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 지자체는 지역 내 유관기관을 관리·통제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지역사회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 오남용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을 강화해야 함 •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수준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인식과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교육이 필요함
김태우 외 (2020)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 마약류 사범을 다루는 전문인력과 치료기관이 부족하여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함 •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치료 효과성은 현재의 치료 프로그램 및 치료감호 효과성보다 치료·재활의 효과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 • 청소년 마약류 퇴치방법으로 공공 민간부문의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김태우 외 (2021)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예방교육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공급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정책을 활성화해야 함 • 공공기관, 담당 부처, 학교, 경찰청, 민간기관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마약류범죄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연구자 (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주요연구결과
이무송 (2022)	청소년의 신종마약류 중독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문헌연구	• 청소년 마약류 중독은 심리적, 개인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신종 마약류에 보다 강력하게 접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됨 • 신종마약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급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확립해야 함. 신규 유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마약사범의 처우를 강화해야 함 • 청소년 신종마약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은영, 전연규 (2022)	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 신종 마약류가 퍼져나가면서 청소년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고, 온라인상에서 저렴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상의 마약류 유통을 단속하고 광고를 제재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를 공급하는 유통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필요함 •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담당 부처,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의 긴밀한 공조와 정보교류가 필요함 • 청소년의 학년과 나이 등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함
양혜정, 김채윤 (2022)	미국의 청소년 마약류 사용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한 국내 정책의 시사점	문헌연구	• 국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 위주의 정책을 적용받기도 함 • 한편, 미국은 약물사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치료를 통한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증거기반 접근 방식을 도출하고자 노력함 • 미국은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중앙 통제적 마약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학교에서 예방교육에 주력함 •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관리,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재활과 회복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
박선영, 박현나 (2023)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문헌연구	• 소년법에 마약류 중독 소년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위한 규정을 명시해야 함 • 청소년 마약치료법원의 운영과 도입을 고려해야 함.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치료와 사후관리를 적용해야 함 • 청소년 마약류 중독전문치료기관을 운영하여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한 통계 시스템 구축으로 특성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함 •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치료대상자 위험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해야 함

연구자 (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주요연구결과
허경미 (2023)	스웨덴의 청소년 약물 관련 통제정책 연구	문헌연구	• 2011년 국가약물정책(ANDT) 채택 후 3단계 전략 추진 중. 무관용주의적 처벌과 사회치료주의적 관점의 이중성을 보임 • 공중보건정책의 일환으로 공중보건체계와 약물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있음 • 중앙주류마약정보협회(CAN)를 통해 관련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략, 정책 개발에 활용함

제3절 | 소결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는 국내 마약류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관련 법령 및 범죄현황을 종합해 볼 때 마약류범죄는 마약, 향정, 대마 및 환각물질과 관련한 밀조, 밀매, 밀경, 투약 등의 범죄로 범주화하였다. 청소년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범주화되지만 단속처벌 기준으로 19세 이하, 사회통념상으로는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범죄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20대 중반의 성인모색기 젊은 청년까지 포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위험성과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영향요인, 그리고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마약류범죄가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의 조합으로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급격한 성장발달이 진행되는 청소년 시기에 마약류 문제는 이후의 삶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심각도가 더욱 높게 인식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영향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에서 찾으려고 했고, 보다 거시적으로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탐색하려 시도하였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그에 대한 대응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에는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예방과 치료·재활, 회복에 있어 청소년에게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에는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등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을 통해 유해환경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넷째, 정부차원에서 마약류 단속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향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김 낭 희

제3장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제1절 | 청소년 마약류범죄 현황

1. 마약류범죄 단속 현황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검찰청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대검찰청, 2023).

〈표 3-1〉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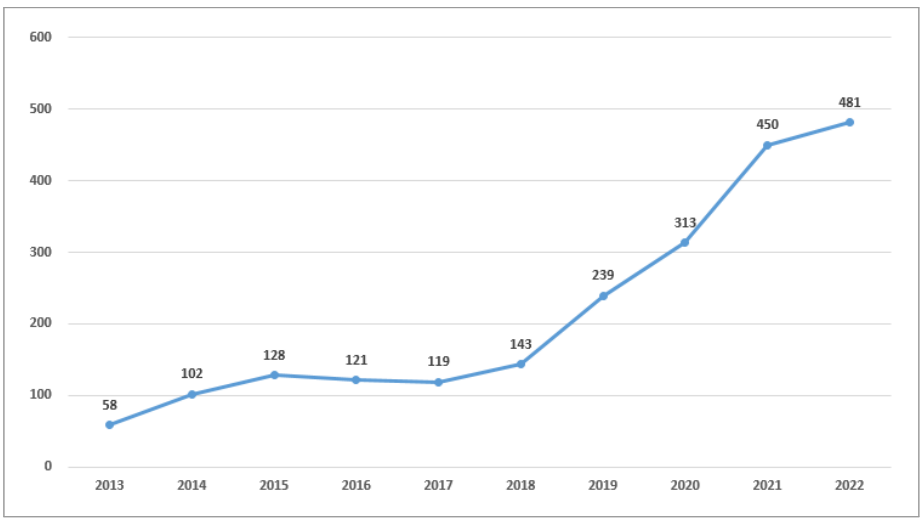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0)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1.5)	(21.9)	(25.7)	(21.7)	(15.9)	(10.0)	(3.2)	(100.0)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1.7)	(24.9)	(25.0)	(19.9)	(13.4)	(12.4)	(2.6)	(100.0)
2021	450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8)	(31.4)	(25.4)	(16.5)	(12.3)	(9.6)	(2.0)	(100.0)
2022	481	5,804	4,703	2,815	1,976	2,166	450	18,395
	(2.6)	(31.6)	(25.6)	(15.3)	(10.7)	(11.8)	(2.4)	(100.0)

출처: 대검찰청(2023). 『2022 마약류 범죄백서』. 173.

위 〈표 3-1〉을 보면,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그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 참조). 2018년까지 150명대 이하에 머물러 있던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2019년 239명으로 증가한 이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단속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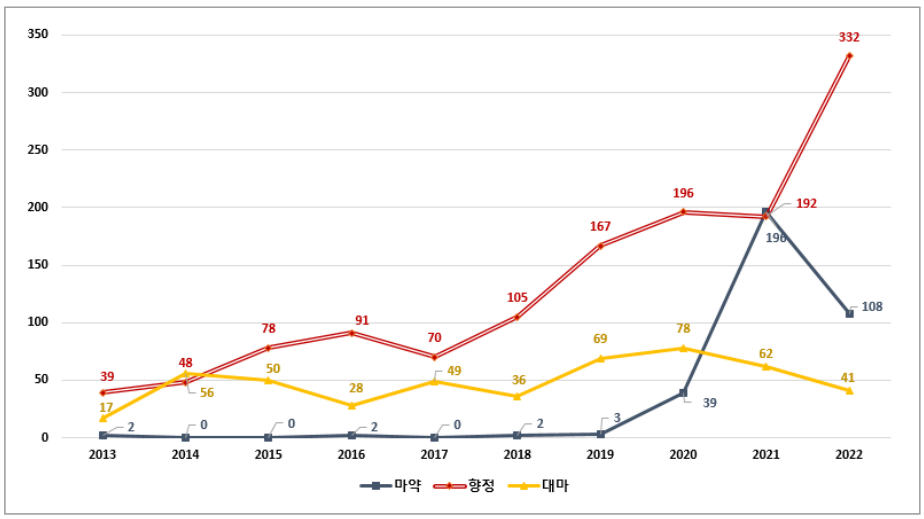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2023). 『2022 마약류 범죄백서』. 174-176.

아래 [그림 3-2]는 마약류 유형별로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단속 인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데, 특히 2022년 향정사범은 33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마약사범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2년 108명으로 증가 추세가 꺾였다. 이와 상반되게 향정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주류 마약류가 향정, 그중에서도 필로폰이라는 과거 경향에 비해 최근 젊은 층은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마약류 유형별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마약류사범의 증가에 의미를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대마사범은 2020년 이후 감소했는데, 이는 20세 이상 마약류사범이 증가한 것과 차이가 있다.

[그림 3-2]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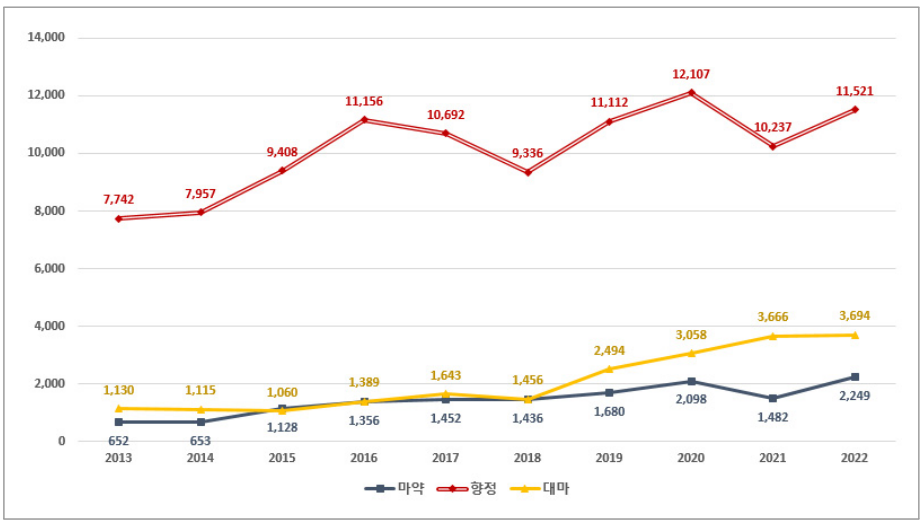


주: 2014년 마약류별 단속인원수 합계(104명)가 『마약류 범죄백서』에 보고된 총계(102명)와 다름에 주의.
출처: 대검찰청(각연도). 『(각연도) 마약류 범죄백서』. 연령별 현황 (연령 미상 제외).

[그림 3-3]은 19세 이하를 제외한, 20세 이상 마약류사범의 마약류별 단속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과 20세 이상 마약류사범의 단속마약류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세 이상은 마약, 향정, 대마사범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마사범의 경우 2019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였다. 향정사범과 마약사범도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림 3-3] 20세 이상 마약류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별

(단위: 명)



출처: 대검찰청(각연도). 『(각연도) 마약류 범죄백서』. 연령별 현황 (연령 미상 제외).

환각물질 흡입사범 통계는 아래 〈표 3-2〉와 같다. 2018년 기준 19세 이하 단속인원은 20명으로, 5.2%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 2022년은 단속된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2〉 최근 5년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8	20	93	147	66	43	17	0	386
	(5.2)	(24.1)	(38.1)	(17.1)	(11.1)	(4.4)	(0.0)	(100.0)
2019	5	50	143	43	54	9	5	309
	(1.6)	(16.2)	(46.3)	(13.9)	(17.5)	(2.9)	(1.6)	(100.0)
2020	2	29	202	56	44	10	6	349
	(0.6)	(8.3)	(57.9)	(16.0)	(12.6)	(2.9)	(1.7)	(100.0)
2021	0	12	83	26	24	15	1	161
	(0.0)	(7.5)	(51.6)	(16.1)	(14.9)	(9.3)	(0.6)	(100.0)
2022	0	6	77	19	17	13	0	132
	(0.0)	(4.5)	(58.3)	(14.4)	(12.9)	(9.8)	(0.0)	(100.0)

출처: 대검찰청(2023). 『2022 마약류 범죄백서』. 2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단속 이외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년사건이 연간 1~2건 발생하고 있다.[7] 단속현황 데이터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 소년사범의 마약류범죄는 환각물질흡입보다는 마약, 향정, 대마와 같은 마약류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던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후속적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는데[8], 이와 유사하게 최근 언론보도에서 '먼지제거제'[9] 등 단속영역을 벗어난 환각물질이 소비되고 있어 환각물질의 오남용 문제를 축소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당연히 마약류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2021년 경남지역 10대 청소년 40여 명이 펜타닐 불법사용으로 단속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1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11]에 따르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국민 1,850만 명이 168,225만 개(정)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2022년에는 처방환자수와 처방량이 모두 증가하여 1,946만 명의 처방환자가 187,360만 개(정)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전체 연령대 중 10대 이하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수와 처방량을 보면 2019년 67만 명이 3,608만개(정)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22년에는 처방환자수는 감소하고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10대 이하 61만 명이 4,932만 개(정)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7) 대검찰청(2022). 『2022 검찰연감』. 1294-1295.
8) 2017년 8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사용(의료용 목적의 경우 제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음.
9) 한국일보(2023.9.14.). "먼지제거제, 냉각 스프레이... 마약 대용품 '신종 환각물질' 찾는 청년들".
10) 연합뉴스(2021.5.20.). "마약성 진통제 유통·판매한 10대 42명 검거... 학교서도 투약".
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매년 통계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음.

〈표 3-3〉 연령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및 처방량 현황

(단위: 만 명, 만 개/정)

구분	2019		2020		2021		2022	
	환자수	처방량	환자수	처방량	환자수	처방량	환자수	처방량
전체	1,850	168,225	1,748	175,139	1,884	182,788	1,946	187,360
10대 이하	67	3,608	56	3,595	57	4,228	61	4,932
20대	142	11,567	143	13,130	147	14,297	145	14,606
30대	241	20,265	228	21,033	240	21,510	243	21,848
40대	365	26,833	336	28,117	376	29,157	384	30,065
50대	391	31,075	368	31,515	398	32,236	406	32,587
60대	316	30,064	319	32,248	358	34,759	374	35,630
70대	193	26,032	188	26,458	195	26,557	204	26,580
80대	88	15,486	88	16,330	94	17,217	102	18,092
90대 이상	11	2,063	12	2,293	13	2,476	14	2,655
기타	37	1,233	10	420	8	351	12	365

주: '기타'는 여권번호 등 성별,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값의 합산임.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위와 같이 집계된 통계자료를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으로 재분석해 보면 아래 〈표 3-4〉와 같다. 전체 인구층의 경우 2019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1인당 91개(정)를 처방받았으며, 2022년에는 96개(정)로 약 5.9%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10대 이하 연령대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이 2019년 54개(정)에서 2022년 81개(정)로 2019년 대비 4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20대 역시도 2019년 대비 2022년에 처방환자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23.1%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10대 이하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20대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연령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 현황

(단위: 개/정)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19년 대비 2022년 증감률
전체	91	100	97	96	+5.9%
10대 이하	**54**	**65**	**74**	**81**	**+48.6%**
20대	82	92	97	100	+23.1%
30대	84	92	90	90	+7.2%
40대	73	84	78	78	+6.4%
50대	79	86	81	80	+1.0%
60대	95	101	97	95	+0.1%
70대	135	141	136	130	-3.7%
80대	177	185	184	178	+0.5%
90대 이상	182	192	193	187	+2.5%
기타	33	43	45	30	-8.8%

주: '기타'는 여권번호 등 성별,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값의 합산임.
원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증감률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의 펜타닐 불법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의료용 마약류 중 펜타닐 패치에 대해 별도로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였다.[12]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20세 미만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치제) 처방 환자수 및 처방량이 전년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다. 아래 〈표 3-5〉를 통해 2019년 대비 2022년의 펜타닐 패치 처방환자수 및 처방량의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 처방환자수는 2019년 대비 15.3%가 감소하였고, 처방량은 11.7%가 감소하였다. 반면 20세 미만 환자 현황을 보면 처방환자수는 2019년 대비 50.8%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처방량은 9.3% 감소하였다. 전체 환자와 비교했을 때 20세 미만 처방환자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방량의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다 상세하게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 및 20세 미만 모두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20세 미만에게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4.2% 증가한 것에 반해, 20세 미만 환자의 경우 2022년에 2019년 대비 8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펜타닐 패치 처방환자수, 처방량은 감소했지만, 1인당 처방량, 특히 20세 미만의

1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3.7.19.). "지난해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펜타닐 패치 1인당 처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의한 투약은 불법이 아니므로 자료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3-5〉 20세 미만 펜타닐 패치 처방량

(단위: 명, 개)

구분	전체			20세 미만		
	환자수	처방량	1인당처방량	환자수	처방량	1인당처방량
2019	190,900	3,486,800	18	979	44,105	**45**
2020	178,314	3,421,858	19	887	58,296	**66**
2021	172,665	3,394,730	20	696	61,087	**88**
2022	161,754	3,077,503	19	482	39,994	**83**
2019년 대비 2022년 증감률	-15.3%	-11.7%	+4.2%	-50.8%	-9.3%	**+84.2%**

주: 원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증감률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3.7.19.). "지난해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붙임2] '의료용 마약류 주요통계(2019년 ~ 2022년)' 재분석.

제2절 |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특성

청소년 마약류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경찰청범죄통계」의 '미성년범죄' 자료를 검토하였다.[13][14] 청소년 마약류범죄 통계는 경찰청 자료 이외에 대검찰청의 『검찰연감』(소년사건의 죄명별 접수/처리인원 등), 『범죄분석』(소년범죄자 직업, 전과, 전회처분, 보호처분, 재범기간 및 종류, 공범관계, 상황, 성별, 정신상태, 범행동기, 교육정도, 생활정도, 부모관계, 처분결과 등),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소년범 재범현황, 보호관찰현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정책통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신수용보호소년 현황)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마약류범죄 사례수가 제한적이며 통계자료 내용의 중복이 있어 2022년의 가장 최신 자료로 전체연령, 전체범죄와 비교가능한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13)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찰청범죄통계」. (최종검색일: 2023.10.15.).
14) '미성년범죄자'는 범행당시 연령이 19세 미만(만 18세 이하)인 피의자를 의미함(출처: 경찰청(2019.12). 「경찰청범죄통계」 통계정보보고서).

1.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범죄력

가. 전회처분 현황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범죄자는 약 125만 명, 이 중 마약범죄자는 총 11,948명이다. 미성년 전체 범죄자는 약 6만 명, 미성년 마약범죄자는 199명으로 집계되었다.

미성년 마약범죄자의 '전회처분' 현황을 보면 5명 중 1명(40명, 20.1%)이 전회처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회처분이 있는 40명의 처분내용을 보면, 보호처분(45.0%), 기소유예(27.5%)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미성년 전체 범죄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호처분 비율이 약간 낮고, 기소유예 처분이 10.3%p 높게 나타났다.

〈표 3-6〉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 범행시 '전회처분'

(단위: 명)

구분		전연령대		미성년	
		전체범죄	마약범죄	전체범죄	마약범죄
전체 범죄자 수		1,250,330	11,948	60,691	199
'전회처분 있음' 범죄자 수 (%)		605,314 (48.4)	6,404 (53.6)	23,061 (38.0)	40 (20.1)
전회처분 중 구성비율 (%)	전회처분 내용	100.0	100.0	100.0	100.0
	즉결심판	0.0	0.0	0.2	0.0
	기소유예	5.4	8.2	17.2	27.5
	선도유예	0.1	0.1	2.1	2.5
	수배 중	0.1	0.3	0.0	0.0
	보호처분	2.9	1.8	46.7	45.0
	선고유예	0.2	0.2	0.1	0.0
	집행유예 중	2.5	7.8	0.8	0.0
	보석·형집행정지 중	0.2	0.4	0.1	0.0
	가석방	0.1	0.1	0.0	0.0
	형(재산형포함)집행 종료	76.8	70.7	9.5	5.0
	감호소 출소	0.0	0.0	0.1	0.0
	기타	11.7	10.4	23.1	20.0

주: '전회처분'은 본 사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을 의미함. 전과분만 아니라 전과에 미치지 못하는 형사처분(기소유예, 보호처분 등)까지도 포함함.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찰청범죄통계」, 범죄자 범행시 전회처분 종류, 미성년범죄자 범행시 전회처분 종류.

나. 전과 현황

2022년 '전과' 현황을 보면, 미성년 마약범죄자 중 전과있음 비율이 15.1%로 나타났다. 미성년 전체범죄자 중 전과있음 비율이 28.0%인 것과 비교하면, 미성년 마약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7〉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 범행시 '전과'

(단위: 명)

구분	전연령대		미성년	
	전체범죄	마약범죄	전체범죄	마약범죄
전체 범죄자 수	1,250,330	11,948	60,691	199
'전과 있음' 범죄자 수 (%)	595,076 (47.6)	6,206 (51.9)	17,014 (28.0)	30 (15.1)

주: '전과'는 피의자가 과거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기록임.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찰청범죄통계」, 범죄자 범행시 전과여부, 미성년범죄자 범행시 전과 여부.

다. 재범 종류 현황

좀 더 포괄적으로 현재 재판 중이거나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범' 현황을 보면, 미성년 마약범죄자 중 재범자는 20.1%로 미성년 전체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 38.0%보다 약 절반가량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재범유형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미성년 마약범죄자의 경우 동종범죄보다 이종범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8〉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 재범자 '재범종류'

(단위: 명)

구분		전연령대		미성년	
		전체범죄	마약범죄	전체범죄	마약범죄
전체 범죄자 수		1,250,330	11,948	60,691	199
재범자 수 (%)		605,073 (48.4)	6,401 (53.6)	23,057 (38.0)	40 (20.1)
재범자 중 비율	'동종범죄' 재범자 수 (%)	179,510 (29.7)	2,558 (40.0)	11,149 (48.4)	16 (40.0)
	'이종범죄' 재범자 수 (%)	425.563 (70.3)	3.843 (60.0)	11.908 (51.6)	24 (60.0)

주: '재범'은 본 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처분이 결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함.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찰청범죄통계」, 재범자 재범종류, 미성년재범자 재범종류.

라. 재범기간 현황

미성년 마약범죄자의 재범기간을 살펴보면, 동종범죄 1년 이내 재범자 비율이 75.0%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 85.1%보다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범죄 역시도 미성년 마약범죄자의 1년 이내 재범자 비율이 58.3%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 비율 79.6%보다 낮았다. 물론 전체 범죄자와 비교하면 미성년 범죄자 모두 1년 이내 재범자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미성년 마약범죄자의 1년 이내 재범자율은 미성년 전체 범죄자의 1년 이내 재범자율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을 포함하여 전체 연령대를 보면 마약범죄자의 1년 이내 재범자 비율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마약범죄라고 해서 재범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3-9〉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 '재범기간'

(단위: 명)

구분	전연령대		미성년	
	전체범죄	마약범죄	전체범죄	마약범죄
재범자 수	605,073	6,401	23,057	40
'동종범죄' 재범자 수	179,510	2,558	11,149	16
1년 이내 재범자율(%)	40.2	44.4	85.1	75.0
1년 이후 재범자율(%)	59.8	55.6	14.9	25.0
'이종범죄' 재범자 수	425,563	3,843	11,908	24
1년 이내 재범자율(%)	19.9	24.7	79.6	58.3
1년 이후 재범자율(%)	80.1	75.3	20.4	41.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찰청범죄통계」, 재범자 재범종류, 미성년재범자 재범종류.

2.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사회적 특성과 처우

가. 사회적 특성

미성년 마약범죄자의 범행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성년 전체범죄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성년 마약범죄자의 경우 전체 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보호처분상황에 있는 비율이 낮고, 단독범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호기심·유혹·우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두 집단 모두 비슷하게 중퇴, 불취학인 경우가 13~1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관계는 마약범죄자가 전체범죄자보다 부모(계부모 포함)가 모두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3-10〉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자 범행 및 사회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미성년 전체범죄		미성년 마약범죄	
		범죄자 수	%	범죄자 수	%
전체 범죄자 수		60,691	100.0	199	100.0
보호 처분 상황	없음	39,365	64.9	169	84.9
	있음	15,156	25.0	25	12.6
	미상	6,170	10.2	5	2.5
공범 관계	단독범	33,235	54.8	126	63.3
	공범	21,254	35.0	68	34.2
	미상	6,202	10.2	5	2.5
범행 동기	이욕(생활비, 유흥비 등)	8,260	13.6	15	7.5
	호기심, 유혹, 우발적	8,617	42.6	106	53.3
	부주의	3,782	6.2	24	12.1
	기타, 미상	22,797	37.6	54	27.1
교육 정도	초중고 재중/졸업	43,602	71.8	144	72.4
	초중고 중퇴/불취학	8,077	13.3	29	14.6
	기타, 미상, 대재 이상	9,012	14.8	26	13.1
부모 관계 (미혼자)	부모(계부모 포함)	47,114	77.6	170	85.4
	한부모	6,480	10.7	22	11.1
	부모없음	672	1.1	2	1.0
	미상, 혼인자	6,425	10.6	5	2.5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찰청범죄통계」.

나. 구속 및 검찰송치 현황

검경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의 처우를 비교해 보면, 미성년 전체범죄자와 마약범죄자의 구속률은 두 집단 모두 1%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송치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검찰송치율은 85.6%인데 반해, 미성년 마약범죄자의 검찰송치율은 97.0%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검찰송치율보다 11.4%p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보다 마약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의 검찰송치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 2022년 미성년 마약범죄자 구속 및 검찰송치

(단위: 명, %)

구분		미성년 전체범죄		미성년 마약범죄	
		범죄자 수	%	범죄자 수	%
전체 범죄자 수		60,691	100.0	199	100.0
구속 여부	구속	442	0.7	1	0.5
	불구속	60,249	99.3	198	99.5
검찰송치	검찰송치	51,973	85.6	193	97.0
	불송치	8,593	14.2	6	3.0
	참고인중지, 기타	125	0.2	0	0.0

주: 1) 구속 내용: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불구속 내용: 불구속 입건,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적부심석방, 구속취소
2) 검찰송치: 형사소송법 개정(2021.1.1.)으로 피의자원표 상 송치의견이 사법경찰관 결정으로 변화
검찰송치 내용: 책임송치, 법정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기타법정송치)
불송치 내용: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경찰청범죄통계」, 미성년범죄자 구속·불구속 상황, 미성년범죄자 송치의견.

제3절 |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 양상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주요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하는 경찰, 변호사,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정직 공무원 8명 그리고 젊은 청년 마약사범(22세 이하) 3명, 총 11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청소년 마약류범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마약류범죄에 가담하게 된 계기와 진행 과정을 검토하고, 청소년 마약류범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발달론적 관점에서 청소년기 마약류범죄의 특성과 사회체계 관점에서 사회적 방임 및 사회환경 변화 요인에 기반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특성을 탐색하였다.

1. 청소년 마약류범죄 계기와 진행

가.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계기

청소년의 마약류범죄 시작과 범죄가담 계기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무지', '기대', '환경영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마약류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단순 호기심이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의도적으로 마약에 접근하기도 하였다. 호기심이나 단순 기대로 '그냥'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기의 충동적 특성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가정빈곤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가출 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래관계 속에서 왕따, 배제의 두려움으로 마약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로 유학을 가서 마약을 접하는 경우도 있어 마약접근이 쉬운 환경적 특성의 영향을 설명해 주었다.

〈표 3-12〉 청소년 마약류범죄 계기

주제	내용	진술 사례
무지	불법인지 모름	• 살을 빼고 싶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이어트약 구입
기대	'그냥', 단순 호기심	• 누가 했다고 하길래 '그냥' 해 보고 싶어짐 • 막연하게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기분일까 궁금함 • TV에 마약, 마약, 마약만 나오니 '그냥'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짐
	긍정적 효과 기대	•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등 기대 • 나른, 처짐, 감각 확장 등 기대(예: 래퍼 등)
		• 심리정서문제, 우울증, 자살충동 해결을 위해 마약 사용
환경영향	돈벌기 수단을 통해	• 가정빈곤, 돈 벌기 위해 던지기, 판매범죄 가담, 소분 중 투약 • 가출 후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하다 마약에 노출 • 도박 빚 해결을 위해 마약밀수 가담
	또래관계, 왕따, 배제 두려움	• 주변에 친구들이 다 같이 해 보자고 하여 투약 • 학교 동아리 선후배와 같이 투약 • 친구들이 마약을 같이 구해서 나눠 투약 • 나만 왕따, 배제될까봐 같이 투약
	유학, 외국에서 시작	• 대마 합법화 나라로 유학 가서 시작 • 청소년기 비행이 많아 외국 유학을 보내짐. 유학지에서 마약 시작

나.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진행

마약류범죄 가담 후 진행과정은 '자가발전', '마약전환', '신분전환', '중독됨'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약류범죄에 가담한 이후 스스로 '자가발전'을 하며 적극적 마약구매자로 변모하는데 이때도 '그냥' 궁금해서 다른 종류의 마약을 찾기도 한다. 처음 시작한 마약보다 조금씩 더 강한 마약을 찾기도 하고, 다이어트약과 같은 처방약의 경우 점차 내성이 생겨 불법적인 경로로 약물을 찾게 만든다. 이처럼 다양한 약물을 접하게

되면서, 그리고 마약 사용을 위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마약을 전환하며 멀티유저로 변모한다. 마약의 종류가 변화하는 것과 함께 신분도 변화한다. 처음에는 무료 샘플로 마약을 받거나 저가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고객, 즉 '갑'의 지위였지만, 점차 시약검사에 검출되지 않는 고가의 마약을 구입하게 되는 '을'로 바뀌어 간다. 때로는 중개자, 판매자로 변모하기도 하고 여성은 성착취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마약전환과 신분전환은 '중독됨'과도 관련이 있다. 점차 투약량을 늘려가고, 또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투약을 하고, 마약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일상적인 대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표 3-13〉 청소년 마약류범죄 진행

주제	내용	진술 사례
'자가발전'	적극적 구매	• 주변인 권유로 처음 투약한 이후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어 더 알고 싶어 구매처 알아봄 • '그냥' 궁금해서 다른 종류의 마약을 찾아 봄
마약전환	강력마약, 불법마약으로	• 판매자가 종류별로 마약류를 판매하며 신종마약, 강력 마약 권유, 신종마약이 들어올 때마다 홍보하여 구매 • (처방약) 내성이 생겨 더 강한 마약을 불법구매
	멀티유저로	•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약물 사용(항우울제, 수면제, 공황장애약 등) • 다운(down), 업(up) 계통의 마약을 혼합하며 새로운 '영역' 개척
신분전환	갑에서 '을'로	• 모발,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는 고가의 신종마약 구입
	중개, 판매자로	• 판매자와 신뢰가 쌓이면 던지기, 소분, 판매를 제안 • 마약을 구매할 돈이 없어 중개, 판매자가 됨 • 마약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자발적 판매자가 됨
	성착취 대상으로	•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여 투약했으나, 이후에는 마약을 하기 위해 성관계 • 몸캠 등 추가 성착취 범죄에 노출
중독됨	투약량 증가	• 처방 다이어트약을 먹다가 나중에는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용량을 늘리며 오남용 • 투약량 증가로 불안, 우울 등 정신과적 증상 발생
	외톨이 투약	• 처음에는 놀면서 같이 투약했으나, 점점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2~3명 아는 사람이나, 혼자 투약 • 거의 매일 마약을 하며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투약
	인지능력 저하	•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억이 짧고, 복잡한 것을 이해하지 못함

2. 청소년 마약류범죄 주요 특성

가.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기반한 특성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에 기반한 마약류범죄 양상은 '또래', '무모함', '빠름'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청소년기는 또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에 큰 영향을 받으며, 또래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각인시키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은 또래집단과 함께 행동하며 위험인식이 분산되어 비행행동 가담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 마약류범죄에 가담할 때도 적정한 용량과 용법을 지키며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탄주를 마시는 것처럼 무모하게 '폭탄마약'을 한다.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또래문화, 무모함의 시너지로 마약류범죄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이러한 빠름의 특성은 마약이 확산되는 속도에도 특성을 보이지만, 마약을 한 이후 원상태로의 복구에도 일조한다. 발달 속도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중독이 되는 것 만큼, 건강한 신체적 조건을 갖춘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몸을 회복한다. 하지만 빠른 원상복구는 마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표 3-14〉 발달단계에 기반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특성

주제	내용	진술 사례
또래	놀이문화	• 마약을 나눠 먹으며 또래 놀이문화로 인식
	동조	• 친구가 던지기로 돈을 버는 것을 보며 따라 함
	위험 분산	• 자신의 피해를 메꾸기 위해 다른 친구를 끌어들임
무모함	'폭탄마약'	•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음 • 마치 폭탄주를 마시듯 무모하게 마약 사용 • 한 가지 약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사용
	인정 욕구	• 과시, 허세가 충동성과 시너지를 일으켜 무모함이 가중됨
	강한 자극 추구	• 더욱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며 쉽게 마약을 용인함
	단약동기 없음	• 성인처럼 직장, 가족 등 지켜야 할 것이 없어 단약을 위한 환경적 동기가 없음. 하루하루 즐거움 추구
빠름	빠른 확산	• 약물을 나누고 놀며 투약하면서 빠르게 확산 • 마약을 하지 않는 친구를 모임에 불러 같이 투약
	빠른 복구	• 청소년기 발달 특성으로 신체회복 빠름

나. 사회적 방임에 의한 특성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사회적 방임에 의해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도출된 주요 주제는 '교육부재', '가정밖, 학교밖 방치', '성인에 의한 피해자', '스크리닝 부재'로 설명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마약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억한다. 때문에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정보에만 노출되어 편협한 지식을 형성하였다. 청소년, 특히 초범은 처벌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약류의 종류,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다거나 의료용 마약류 유통,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다. 마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험인식 수준이 낮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식 수준도 낮다. 더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형성된 가치관, 예를 들면 여자는 외모, 남자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왜곡된 가치관이 마약류범죄 가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사회적 방임의 또 다른 영역은 가정밖, 학교밖 방치로 설명된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경계의 공유공간에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의 밀착도가 더 강력한 경계 밖으로 끌려간다. 가정밖, 학교밖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시설 내 청소년집단에서도 마약류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청소년들은 성인에 의한 피해자라는 특성도 있다. 사회적으로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이 성인의 범죄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방치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성착취(불법성매매, 조건만남) 과정에서 성인에 의해 마약을 투약하게 되거나, 마약구입 시도 시 더 강력한 마약을 무료로 제공하며 착취대상으로 삼는다. 직접적인 마약거래가 아니더라도 마약거래를 빌미로 돈을 갈취당하는 등 사기피해 대상이 되기도 하며, (온라인) 도박으로 빚을 얻어 이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마약류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청소년 마약류범죄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사회현상은 그동안 청소년 마약에 대한 관심 부재로 인한 스크리닝 체계 자체가 없는 것에서도 기인한다. 다시 말해, 현재 청소년 마약류범죄가 갑자기 확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 사회 속에서 퍼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범죄를 사회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 방임되고 발견되지 않는 사이 청소년 마약류문제는 음지에서 확산되고 있었고, 이제야 사회적 관심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의견이다. 지금 처음 단속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처음 마약을 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심의 부재로, 마약사용으로 인한 증상을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진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신건강, 행동건강의 기저에 마약의 문제가 깔려있음을 간과하여 그에 대한 대응 역시 부재했다는 것이다. 마약은 담배나 알코올과 달리 냄새가 나거나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발견해 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정신과 전문의 역시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스크리닝 자체를 하지 못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치료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표 3-15〉 사회적 방임에 의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특성

주제	내용		진술 사례
교육 부재	교육경험 없음		• 성교육은 받아본 적 있으나 마약교육은 받아본 경험이 없음
	편협한 지식	해박	• 청소년 마약류범죄 처벌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28시간 교육만 받으면 됨 • 기소유예-집행유예-구속의 정형화된 순서를 알고 있음
		무지	• 자신이 어떤 마약을 사용하는지 모름(대마vs합성대마) • 약물종류에 따른 형량 차이 모름 •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대리처방의 불법성 모름 • 처방약은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함 • 뉴스를 보지 않음
	낮은 위험인식		•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마약은 괜찮다고 생각함 •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중독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마약을 가벼운 유흥약물로 인식함 • 쉽게 돈을 버는 방법임
	낮은 법의식		• 법의식 수준이 낮아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여 단속되어도 죄책감이 없음 •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게 마약을 권하는 것임 • 하루하루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준법의식이 낮음
	가치관 왜곡		• '외모',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 형성. 여자는 예쁘면 삶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 남자는 예쁜 여자와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돈이면 된다고 생각함(예: '롤스로이스남') •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결국 사회에서 은연중에 세뇌된 것 • 엄청난 수입 때문에 투약은 끊어도 판매는 끊을 수 없다고 함

주제	내용	진술 사례
가정밖, 학교밖 방치	부모감독 부재	• 비행, 가출로 가족관심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 • 마약류 문제로 단속되더라도 가족의 관심이 없음
	학교감독 부재	• 학교 안/밖의 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또래에 휩쓸림
	청소년보호시설 감독 부재	• 청소년보호시설, 대안학교 등 제도권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집단에 대한 감독 부재
성인에 의한 피해자	성착취 도구	• 성인남성과의 조건만남을 통해 마약 경험
	미래 고객	• 대마초를 구매하면 다른 마약을 샘플로 보냄
	사기 피해	• 마약거래를 빌미로 사기 당함
	도박 피해	• (온라인) 도박빚 해결을 위해 고수익 마약범죄에 가담함
스크리닝 부재	오래된 초범	•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하지만, 오래된 초범일 가능성 있음 •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청소년 마약문제가 표면화된 것으로 평가
	진단 불가	• 증상을 보고 양극성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추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남 • 마약환자를 본 경험이 없는 의사는 필로폰 투약 환자를 조증, 조울증으로 진단함
		• 부모감독, 학교감독 안에 있는 아이들도 가벼운 환각제를 티가 나지 않게 사용. 부모나 교사가 인지하지 못함
	실태파악 부재	• 마약사용 여부에 대한 스크리닝 자체가 없음 • 현재 청소년 마약류사용 실태에 대해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음 • 어떤 경로로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에 대한 관심이 없음

다. 사회환경 변화에 의한 특성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특성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두드러진다. 관련 주제는 크게 '온라인 환경변화', '마약범죄 환경변화'로 도출되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온라인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었고 SNS, 포털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구입방법이나 수사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어 청소년이 마약류범죄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확장되고 있다. 언론에서 텔레그램과 같은 특정 메신저를 이용하면 마약류범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청소년들은 텔레그램을 맹신하며 마약류범죄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져 더 쉽게 마약구입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 다이어트약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실거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온라인 환경변화에 따른 특성이라 하겠다.

최근 마약류범죄의 환경변화도 청소년 마약류범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방법이 패치나 알약, 흡입 방식으로 쉽게 변화되고, 청소년이 마약류에 대한 구입 장벽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약이 대량으로 밀반입되고 가격이 하락면서 청소년 마약류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단속이 강화되는 것만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검출이 안 되는 신종마약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마약 판매자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신념으로 보다 친절한 안내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마약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나아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수익구조를 파악한 청소년은 보다 대담하게 마약산업에 편승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폐쇄된 경계 안에서 마약류범죄가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그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경로가 확장되고 범죄가담의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표 3-16〉 사회환경 변화에 의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특성

주제	내용	진술 사례
온라인 환경 변화	쉬운 정보습득	• 텔레그램, 포털 등 이용 • 의료용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국 정보 공유 • 마약사용 경험 공유, 호기심 자극 • 경찰수사를 피하는 방법 공유
	익명성	• TV에서 텔레그램은 단속이 어렵다는 뉴스를 보고 텔레그램 맹신
	중고거래사이트 이용	• 당근마켓에 다이어트약 판매, 구입
마약범죄 환경변화	쉬운 투약	• 주사기 사용이 아닌 패치, 알약, 흡입(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사용법 용이
	대량화, 가격하락	• 청소년이 구입장벽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낮은 판매 가격 • 마약이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마약 가격 하락
	신종마약	• 신종합성대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 유사체 구조를 살짝 바꾸어 검출되지 않는 마약류 확산
	친절한 가이드	• 밀반입, 던지기 등 범죄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의 안내 • 단속되었을 때 형량에 따라 보상한다고 함 • 구매 시 마약종류, 구매방법, 송금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 • 코인대행사에 타인명의로 무통장입금하도록 안내
	마약산업 편승	• 마약산업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수익수단으로 마약범죄 가담 • 수동적 딜러가 아닌 적극적 딜러로 나섬

제4절 | 소결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전체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수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폭이 크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대마사범보다 마약, 향정사범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향정사범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불법약물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LSD를 포함하여, 의료용이지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MDMA, 케타민, 그 외 다이아제팜, 졸피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마초 형태로 투약하는 합성대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특정 약물을 선호해서 향정사범이 많은 것인지, 혹은 환경적으로 많이 퍼져있고 투약이 용이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인지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환각물질흡입사범은 2021년 이후 19세 이하 단속사범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먼지제거제' 오남용 사례를 보면 단속의 범위를 벗어난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한 스크리닝이 미흡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사용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병원 처방이 가능하여 청소년 오남용의 장벽이 낮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로 매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에 대비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수와 처방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대 이하 청소년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수는 감소한 반면 처방량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해, 10대 이하 처방환자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 처방환자 1인당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5.9% 증가한 반면, 10대 이하는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이 48.6% 증가하였다. 펜타닐 패치만 별도로 살펴보면 전체 처방환자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4.2% 증가한 반면, 20세 미만은 84.2%가 증가하였다. 물론 의료용 마약류는

합법적으로 처방·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자의 특성은 여러 국가통계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나, 대체로 사례수가 작기 때문에 통계결과에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인 경찰청 「범죄통계」의 '미성년범죄' 통계로 개략적인 동향만을 파악하였다. 미성년범죄자 주요 내용을 보면 마약범죄자는 전체범죄자에 비해 기소유예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고, 전반적으로 전과가 있거나 재범인 비율이 전체범죄자보다 낮았다. 범행동기를 보면 두 집단 모두 호기심, 유혹,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으나 전체범죄자보다 마약범죄자가 그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두 집단 모두 구속되는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나, 검찰송치 여부를 보면 전체범죄자는 85.6%가 검찰로 송치된 반면, 마약범죄자는 97.0%가 검찰로 송치되는 차이를 보였다.

현장실무 전문가 및 청년 마약류사범을 통해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마약류범죄 계기는 '무지', '기대', '환경영향'으로 설명되며, 진행과정은 '자가발전', '마약전환', '신분전환', '중독됨'의 주제로 설명되었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주요 특성은 1)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기반한 특성, 2) 사회적 방임에 의한 특성, 3) 사회환경 변화에 의한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기반한 특성은 '또래', '무모함', '빠름'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방임에 의한 특성은 '교육부재', '가정밖, 학교밖 방치', '성인에 의한 피해자', '스크리닝 부재'로, 사회환경 변화에 의한 특성은 '온라인 환경변화', '마약범죄 환경변화'가 주제로 도출되었다.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종합하면 결국 마약류범죄 가담 청소년은 자의적인 범죄자도 있지만 범죄가담에 떠밀리는 사회환경에 놓인, 범죄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통계자료, 현장실무 전문가와 청년 마약류사범의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한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특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영역이 많다. 공식 통계로는 2022년 기준 481명이 미성년 마약류사범으로 단속되었으나, 의료용 마약류 통계자료를 보면 10대 이하 1인당 처방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용 마약류 중독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 '먼지제거제' 등 생활용

품을 통해 환각물질을 남용하는 청소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이며, 청소년 마약류사범 역시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청소년은 특정 약물을 선호한다기보다 환경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사용방법이 용이한 약물을 투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물이 향정류가 많아 향정사범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시너지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대응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연구 기반 없이 추진하는 정책은 청소년이 무모하게 마약류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유사한, 무모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

이 선 형

제4장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

마약류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마약 거래와 사용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1.1%~2.6%로 사례 수가 적고[15], 실제 범죄가 확인되어도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어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장에서는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은 드물게 발생하나 '청소년'과 '마약'은 둘 다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대상으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언론보도 내용에서 성인의 마약류범죄와 차별되는 사실을 언급하거나 강조될 수 있어 그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을 분석하는 본 장의 목적에는 다음 두 가지 분석내용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청소년 마약 관련 주요 토픽을 파악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는 범죄의 사실뿐만 아니라 원인 진단, 대책 모색 등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청소년 마약류범죄 관련 언론보도에서도 어떤 주제들로 기사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쟁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집중되는 사회적 관심이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두 번째 분석은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특성을 주요 단어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성은 마약의 종류와 유통(판매, 거래, 구입 등)에 관한 것으로 어떤 마약을 어떻게 구매하고 사용하게 되었

15) 대검찰청(2023). 『2022 마약류범죄백서』, 173.

는지 경로 정보를 확인한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기존 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행태와 특성을 규명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제1절 | 분석 개요

1. 분석 방법

가. 토픽모델링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청소년 마약에 관한 주제 분석은 토픽모델링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이란 다량의 비정형 문서에서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발견하는 알고리즘이다(Blei, 2012: 77). 토픽모델링 알고리즘 중에서도 본 장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하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활용하였다. LDA는 문서의 각 주제는 단어에 대한 분포로 특징지어진다는 가정으로 고안된 통계적 기법이다(Blei et al, 2003: 996). 이미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LDA 기법을 이용하여 주제 분석하였고, 범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김혜진(2020)의 연구는 성범죄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6개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 성범죄 관련 치안 정책 수요 효과를 파악하였다. 오세현과 강현아(2021)의 연구는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를 수집하고 LDA 기법으로 토픽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정책 변화를 논의한 바 있다. 청소년 마약 관련 쟁점도 최근에 대두되고 있으므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주제의 종류와 각 주제의 집중도 수준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토픽모델링에서는 토픽 수가 모델의 결과를 결정하므로 본 분석에서도 적절한 토픽 수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복잡도(perplexity)와 응집도(coherence)를 계산하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토픽 수의 범위를 정하였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시각화를 통해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가 토픽끼리 서로 많이 겹치지 않는 토픽의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워드투벡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특성을 주요 단어를 통해 파악하는 작업은 워드임베딩(Word Embedd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워드임베딩이란 단어를 다차원의 공간에 점으로 표현하여 수치화하는 기법이다(Jurafsky & Martin, 2000[16]). 워드임베딩 기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 장에서는 워드투벡(word2vec)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워드투벡은 문서 내의 단어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는 모델링 방법으로 같은 문장이나 문단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가정으로 고안된 학습모델이다(Goldberg & Levy, 2014). 특정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파악하는 방법은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로 계산이 되며, 유사도가 높은 단어의 목록을 구성할 수 있다. 유사도의 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며, 분석에 포함된 단어들과의 상대적 값을 의미한다. 청소년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주로 거래 또는 사용된 마약의 종류와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거래와 관련된 단어는 '거래', '구입', '구매', '구매자', '판매', '판매자', '입금'이며 마약 생산은 '재배', '제조', '생산', '유통'을 포함하고 마약 사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약'을 분석 단어로 선정하였다. 이 단어들의 주변 단어 분석을 통해 각 단어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 목록을 생성하고, 그 목록에서 마약의 종류(이름)나 획득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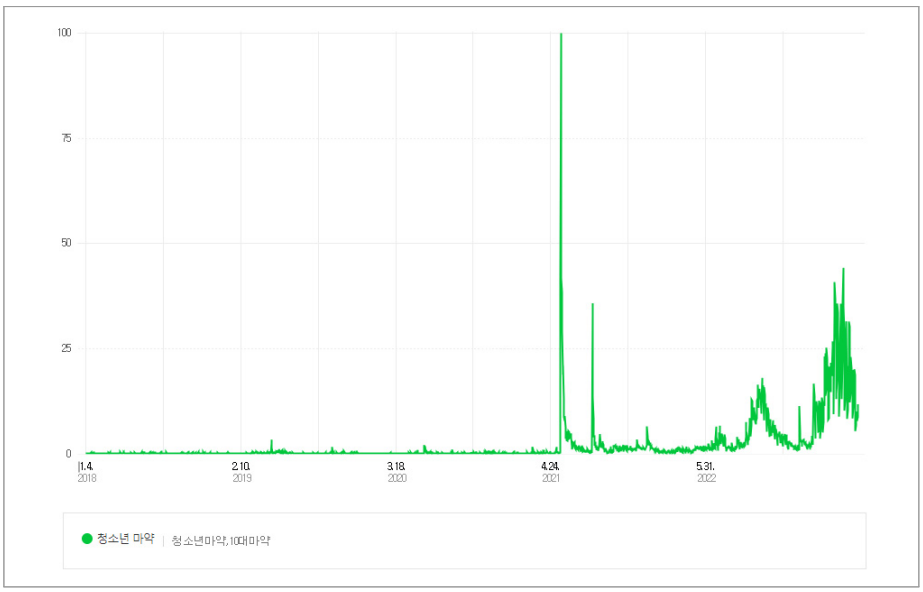
분석자료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제목과 본문에 '마약'과 '청소년', '10대', '미성년자' 세 단어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수집된 데이터 중 정제과정을 거친 총 2,753건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 시작 시기를 2021년으로 한 것은 그 이전에 청소년 마약 관련 기사가 많지 않았고, '청소년 마약'을 키워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해가 2021년이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4-1]은 네이버 트렌드에서 확인한 '청소년 마약'의 검색어 추이로 2021년 4월 이후 검색량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2023년 3월과 5월 사이 다시 상대 빈도가 높아짐

16) Part 1:Fundamental Algorithms의 chapter 6의 5면 참조.

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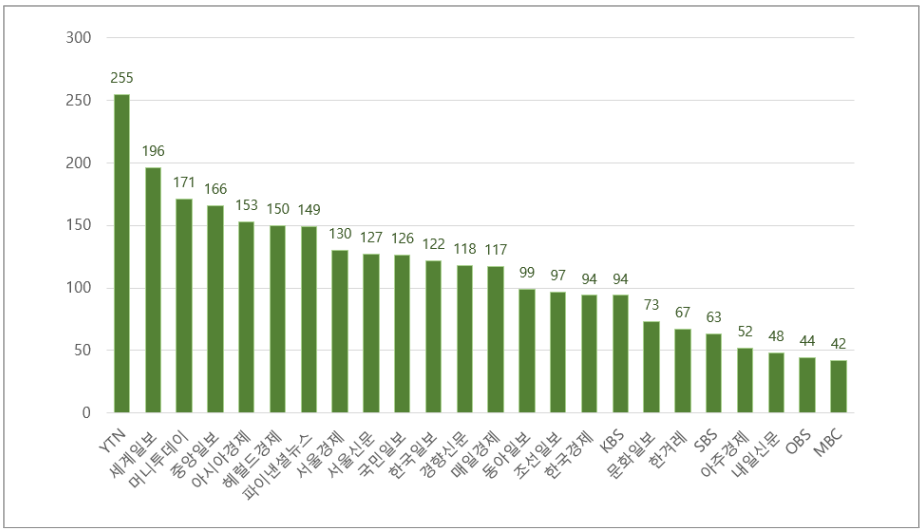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기사의 키워드 목록으로 분석은 가능하나 더 정확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 형태소 분석으로 문서마다 단어로만 구성된 말뭉치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키워드가 대부분 명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가 주목하는 마약의 종류나 거래 방법도 주로 명사로 구성되어 있어 본 분석에서는 명사만 활용하였다. 언론보도의 특성상 청소년 마약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앵커 멘트, 기자 이름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특정 마약 은어나 마약류 이름은 단어사전에 추가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지 않게 조치하였다.

[그림 4-1] '청소년 마약'의 네이버 검색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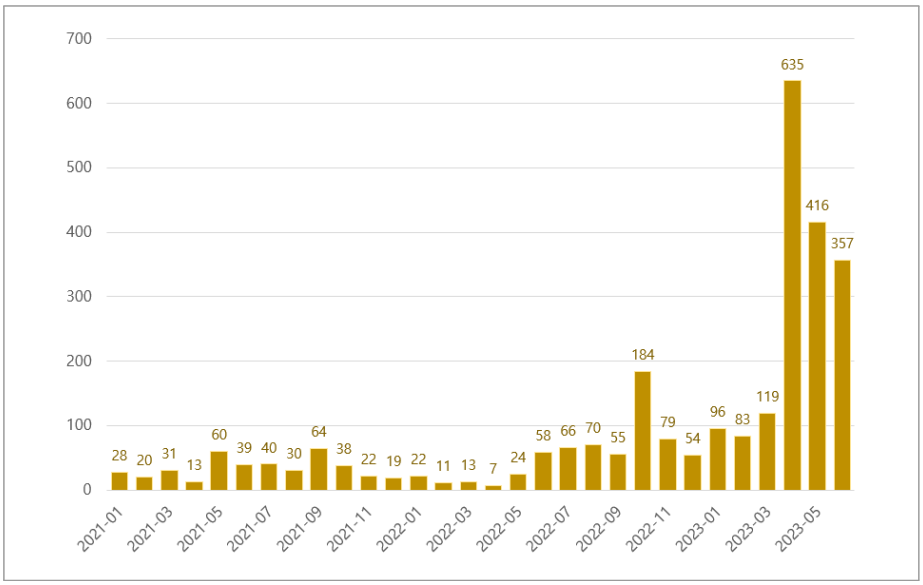
[그림 4-2]는 전체 데이터에서 청소년 마약 관련 언론사별 기사 수를 보여준다. 기사 수가 가장 많은 언론사는 YTN이 255건이고, 가장 적은 언론사는 MBC로 42건이다. 두 번째로 기사 수가 많은 언론사는 세계일보와 머니투데이로 각각 196건과 171건이다. KBS, SBS, OBS 방송사를 합산하면 방송사 데이터가 전체의 약 18%를 차지한다.

[그림 4-2] '청소년 마약' 관련 언론사별 기사 수



[그림 4-3]은 청소년 마약 관련 월별 기사 수를 보여주며, 2022년 9월까지는 기사 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10월에 기사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마약류관리종합대책 수립을 발표한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96건으로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기사 수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이 발생한 2023년 4월에 기사 수가 635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다음 달인 5월과 6월도 각각 416건, 357건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마약 관련 기사 수가 증가한 특성을 보인다.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을 포함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사 수는 전체 데이터의 약 51%를 차지한다.

[그림 4-3] '청소년 마약' 관련 월별 기사 수



제2절 | 분석 결과

1. 단어 빈도분석

[그림 4-4]는 언론보도 데이터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이다. 워드클라우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크기로 중요도를 보여주는 시각화 기법이다. 수집단어인 '마약'을 제외한 워드클라우드 결과에서는 '수사', '범죄', '경찰', '청소년' 단어가 자주 등장하여 주로 경찰 수사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마약', '수사', '범죄', '경찰', '청소년'을 제외한 워드클라우드 결과에서는 '투약', '혐의', '중독' 단어가 자주 등장하여 마약 관련 수사의 내용이 주로 마약 투약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4] '마약' 제외(좌) 및 '수사', '범죄', '경찰', '청소년' 제외(우) 워드클라우드

〈표 4-1〉은 언론보도에서 검색어인 '마약'을 포함한 상위 40개 단어빈도 목록이다. 검색어인 '마약'은 29,609회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수사'의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인다. 마약 종류는 상위 40개 내에 '필로폰'이 등장하여 청소년 마약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필로폰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수사나 혐의와 관련하여 '검거', '조사', '처벌', '구속'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학생', '학교', '음료' 단어가 등장한다. 이 중에서 '음료'는 최근 학원가 마약 사건과 관련된 단어이다.

〈표 4-1〉 단어 빈도 상위 40개 단어 목록 – 언론 기사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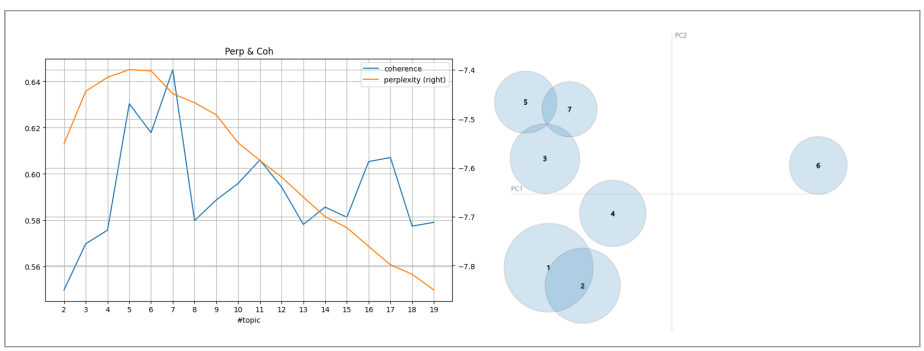
순위	단어	등장횟수	순위	단어	등장횟수
1	마약	29,609	21	조사	2,224
2	수사	9,207	22	학생	2,118
3	범죄	7,347	23	판매	2,069
4	경찰	7,205	24	여성	2,046
5	청소년	6,251	25	음료	2,019
6	투약	5,275	26	사회	1,975
7	혐의	3,935	27	사람	1,940
8	중독	3,521	28	정보	1,931
9	서울	3,408	29	처벌	1,925

순위	단어	등장횟수	순위	단어	등장횟수
10	검찰	3,339	30	기획	1,905
11	사건	3,311	31	증가	1,876
12	마약사범	3,184	32	조직	1,822
13	교육	3,025	33	처방	1,816
14	필로폰	2,921	34	학교	1,783
15	예방	2,810	35	단속	1,771
16	유통	2,692	36	구속	1,765
17	치료	2,613	37	안전	1,710
18	관리	2,380	38	대상	1,622
19	상황	2,305	39	지원	1,589
20	검거	2,294	40	사범	1,581

2. 토픽모델링(LDA) 분석 결과

앞서 진행한 빈도분석은 단어의 등장 횟수만 고려하여 문서의 내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주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체 언론보도 내용에서 청소년 마약 관련 주제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토픽모델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절한 토픽 수를 정하기 위해 계산한 응집도와 복잡도 결과에서 토픽 수는 7개가 모델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참조). 토픽 수 7개로 LDA 모델 결과를 2차원 시각화로 나타낸 오른쪽 그림에서도 토픽들이 잘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 복잡도와 응집도 결과 및 LDA 2차원 시각화



〈표 4-2〉는 LDA 결과에 따른 토픽 및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 목록을 보여준다. 토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단어와 각 토픽의 비율이 높은 기사를 읽고, 토픽 레이블(label)을 부여하였다. 전체 언론보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토픽은 '청소년 마약 수사/검거'로 24.0%이다. 이 토픽에는 마약 투약 및 유통 등 관련 범죄 수사 내용과 필로폰, 펜타닐 등 거래되거나 사용된 마약 종류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비율이 큰 토픽은 '청소년 마약 예방/재활'로 비율은 17.1%이며,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독 예방 교육과 재활 관련 내용이다. 세 번째로 비율이 큰 토픽은 '청소년 마약 혐의/재판'으로 전체 내용 중 14.6%를 차지한다. 이 토픽에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범행내용과 재판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율이 가장 큰 '청소년 마약 수사/검거' 토픽은 주 범행이 마약인 경우와 경찰의 수사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세 번째 토픽인 '청소년 마약 혐의/재판'은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다른 범죄나 재판 결과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네 번째 토픽의 비율은 13.3%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대책 발표 내용이나 법 개정 등 '정부 대응/대책' 관련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토픽의 비율은 11.7%로 마약류범죄 일반에 관한 혐의 및 재판 내용으로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다. 여섯 번째 토픽 비율은 10.1%로 행정과 인사 관련 내용이며, 마지막 토픽은 종합뉴스 내용이다. 7개의 토픽 중 마약과 관련된 토픽은 5개이며, 이 중 4개의 토픽이 청소년 마약 관련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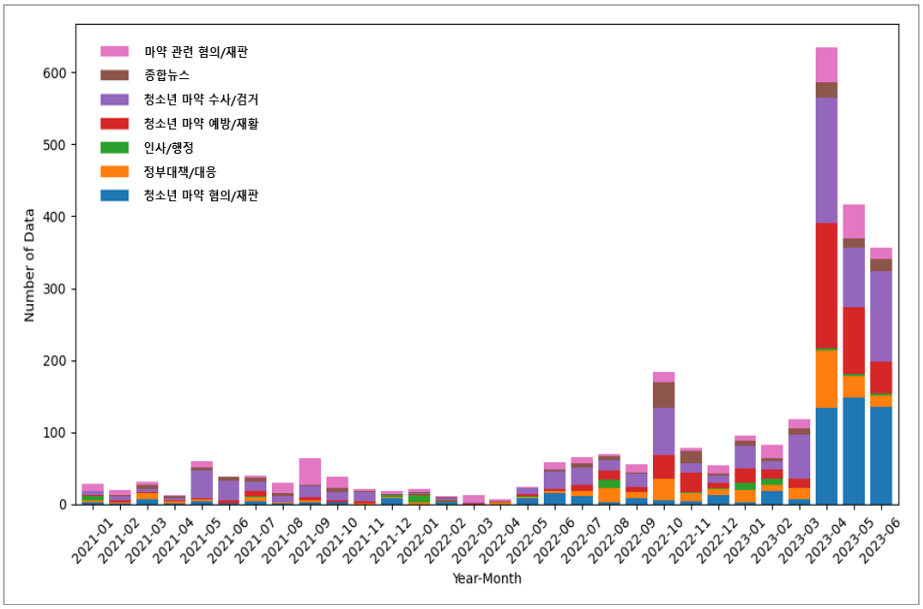
〈표 4-2〉 LDA 결과에 따른 토픽 및 키워드 목록

(단위: %)

순위	토픽(비율)	키워드 (상위 20개)
1	청소년 마약 수사/검거 (24.0%)	마약, 투약, 경찰, 수사, 마약사범, 유통, 처방, 검거, 범죄, 판매, 필로폰, 펜타닐, 증가, 단속, 적발, 청소년, 거래, 대마, SNS, 중독
2	청소년 마약 예방/재활 (17.1%)	마약, 청소년, 중독, 교육, 예방, 치료, 범죄, 학교, 재활, 학생, 강화, 약물, 마약사범, 증가, 사회, 대상, 지원, 보호, 대책, 관리
3	청소년 마약 혐의/재판 (14.6%)	마약, 혐의, 경찰, 범죄, 투약, 검찰, 음료, 피해자, 필로폰, 사건, 수사, 구속, 남성, 청소년, 범행, 위반, 재판, 기소, 성매매, 조직
4	정부대응/대책 (13.3%)	수사, 범죄, 경찰, 검찰, 위장, 사건, 정부, 국민, 대응, 마약, 조직, 경찰청, 검사, 장관, 한국, 시행, 법무부, 청소년, 전담, 대상
5	마약 관련 혐의/재판 (11.7%)	마약, 혐의, 재판, 사건, 사람, 선고, 처벌, 징역, 변호사, 아이, 투약, 사회, 피해자, 아동, 기소, 여성, 사실, 형사, 비아이, 집행
6	인사/행정 (10.1%)	과장, 서장, 기획, 수사, 경무, 담당, 수사과장, 치안, 경찰, 상황, 장비, 종합, 안전, 교통, 자치, 경비, 여성, 대장, 정보화, 청소년
7	종합뉴스 (9.2%)	경찰, 사고, 여성, 사람, 상황, 발생, 두통, 현장, 안전, 사건, 이태원, 원인, 참사, 신고, 병원, 확인, 환자, 차량, 상태, 사망

마약과 관련이 적은 두 개의 토픽을 제외하면 언론의 청소년 마약 관련 보도 내용의 토픽별 구성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은 없다. 그런데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이 많지 않고 최근 들어 기사 수가 증가했다는 특성이 있어 기사 수에 따른 토픽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6]은 월별 기사 수에 토픽 비율을 적용한 그래프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아래가 '청소년 마약 혐의/재판', 맨 위가 '마약 관련 혐의/재판' 토픽이다. 대부분 구간에서 '청소년 마약 수사/검거' 토픽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이 발생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구간에서는 '청소년 마약 혐의/재판'과 '청소년 마약 수사/검거' 토픽의 비율은 유지하지만 '청소년 마약 예방/재활'은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청소년 마약 예방/재활'은 청소년 마약 관련 기사 수가 증가할 때 토픽의 비율도 증가하고 기사 수가 감소할 때 함께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또한, 전체 기간에서는 7개의 토픽 중 두 번째로 비율이 높지만, 기사 수가 많아진 구간에서는 세 번째 순위로 밀려나 그 중요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언론보도에서 쟁점 유지를 위한 중요도는 수사나 혐의 토픽이 가장 우선되고 재활이나 치료 관련 쟁점은 빨리 후퇴하여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월별 기사 수와 토픽별 구성 그래프



3. word2vec 분석 결과

가. 거래 관련 특성

마약과 관련된 주요 단어의 코사인유사도 분석을 통해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워드투벡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약 거래와 관련하여 〈표 4-3〉은 '구입', '구매', '판매', '거래'의 워드투벡 결과로 유사도 값이 큰(0.5 이상) 상위 20개 단어의 목록을 보여준다. 4개 단어는 서로 유사도가 높은 단어이므로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웃돈', '알음', '대금', '지불', '아이디', '활개', '직거래' 등의 단어는 거래 관련 4개 단어에서 공통으로 유사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마약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고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거래 관련 행위가 이뤄짐을 알 수 있다. 메신저나 SNS 아이디를 통해 구입 및 판매가 이뤄지고, '직거래'로 마약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입'과 '구매'에 등장하는 '용지' 단어는 마약을 검사하는 '시약(리트머스) 용지', 마약 판매 계획이 적힌 'A4용지' 등에서 나온 단어로 확인되었다.

거래 방식은 '구입'과 '구매'의 결과에 등장하는 '텔레그램', '판매'에 등장하는 '드라

퍼', '거래'에 등장하는 '비대면', '다크웹', '음지', '좌표' 등 단어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불 방식은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로 이뤄지고, '직구'라는 단어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마약 구매가 가능함이 추정된다.

마약 거래와 관련된 약물 단어는 은어인 '아이스', '디에타민', '나비약'이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인 필로폰이나 대마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이 청소년 마약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 워드투벡 결과 – '구입', '구매', '판매', '거래'

구입	구매	판매	거래
웃돈	대금	웃돈	암호
알음	재판매	매입	비대면
중고생	웃돈	알음	웹사이트
매입	성행	대금	다크웹
아이스	용지	재판매	화폐
아이디	알음	유통책	대금
용지	지불	원가	익명성
송금	중고생	텔레그램	결제
여중생	디에타민	무더기	음지
용돈	속칭	동남아시아	지불
지불	대리	지불	직구
지갑	수수료	아이디	서버
텔레그램	후기	수고비	활개
고가	아이디	원룸	직거래
대금	직거래	드라퍼	아이디
직거래	나비약	대행	주소
성행	상품권	중고생	알음
상품권	활개	돈벌이	보편화
동갑내기	SNS	적발	가상화폐
활개	비대면	아이스	좌표

청소년 마약 거래는 '알음', '동갑내기' 단어를 통해 서로 아는 관계나 친분이 있는 사이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마약 판매에서 서로 사고파는 관계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아래 내용은 분석에

사용된 기사 중 '동갑내기' 단어가 등장하는 기사의 일부이다. 기사에서 친구 3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재판매한 내용이다.

>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동갑내기 친구 둘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도매가로 사들인 뒤 10배의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인 드라퍼(운반책)를 고용하는 한편 공범 B군의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빌린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청소년 마약 거래의 또 다른 특성은 SNS를 통해 검색하고 메시지로 구매 의사와 판매 정보가 오가는 것이 주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필로폰보다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주로 거래되는 마약의 종류로 등장한다. 아래 내용은 분석에 사용된 기사에서 'SNS', '나비약', '직거래'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의 일부분이다. 이 기사 내용에는 처방받고 남은 약을 판매한 사건에서 검거된 10명 중 3명이 10대라는 사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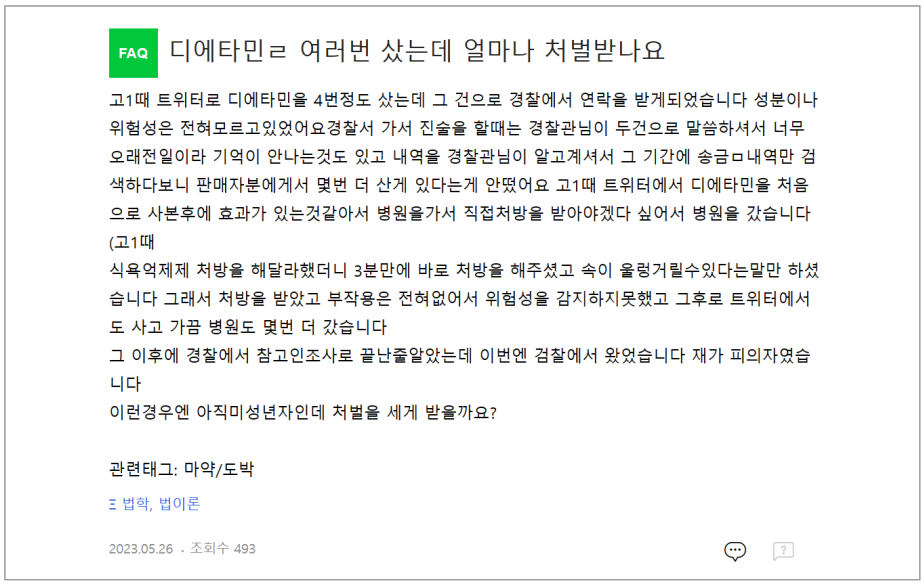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비약'을 검색하자 "직거래 가능" 문구와 함께 수십 개의 게시 글이 쏟아졌다. 약을 사고 싶다는 문의엔 순식간에 "메시지를 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중략)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중 남은 물량을 되팔았는데, 10대도 3명 포함돼 있었다."*[18]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후 판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약이 마약인지 모르고 구매하여 복용하는 것이 심각한 청소년 마약 문제이기도 하다. 아래 [그림 4-7]은 10대에 SNS를 통해 디에타민을 구매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 처벌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한 내용 일부이다. 이 문의자는 디에타민을 병원 처방과 SNS에서의 구매로 번갈아 가며 습득하였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디에타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모르고 복용하며, 병원 처방 과정에서도 언급이나 안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17) 파이낸셜뉴스(2023.6.6.).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게… 다크웹·텔레그램 뒤 숨은 판매책".
18) 한국일보(2023.3.22.). "'나비약 팝니다'… '다이어트 의약품' 불법거래 왜 판치나 봤더니".

[그림 4-7] 디에타민 관련 네이버 지식인 문의 글


FAQ 디에타민ㄹ 여러번 샀는데 얼마나 처벌받나요

고1때 트위터로 디에타민을 4번정도 샀는데 그 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성분이나 위험성은 전혀모르고있었어요경찰서 가서 진술을 할때는 경찰관님이 두건으로 말씀하셔서 너무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안나는것도 있고 내역을 경찰관님이 알고계셔서 그 기간에 송금ㅁ내역만 검색하다보니 판매자분에게서 몇번 더 산게 있다는게 안떴어요 고1때 트위터에서 디에타민을 처음으로 사본후에 효과가 있는것같아서 병원을가서 직접처방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고1때
식욕억제제 처방을 해달라했더니 3분만에 바로 처방을 해주셨고 속이 울렁거릴수있다는말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았고 부작용은 전혀없어서 위험성을 감지하지못했고 그후로 트위터에서도 사고 가끔 병원도 몇번 더 갔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로 끝난줄알았는데 이번엔 검찰에서 왔었습니다 재가 피의자였습니다
이런경우엔 아직미성년자인데 처벌을 세게 받을까요?

관련태그: 마약/도박

ㅌ 법학, 법이론

2023.05.26 · 조회수 493

청소년 마약의 대금 지불 방식에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관련이 높았다면, '상품권'은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 방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도 코인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판매자가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가상화폐로 송금할 수 있으나 추적의 가능성과 편리한 거래 유도를 위해 상품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기사 내용은 전자담배 구매를 사례로 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 마약이나 나비약과 같은 약물 거래에서도 행해질 수 있는 수법으로 관련이 있다.

> *"'미자(미성년자)이시면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경찰조사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기자가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를 '댈(대리 구매)'을 해 준다는 판매자에게 담배 구매를 문의하자 답변이 왔다. '거래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달라'는 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여러 번 담배를 판매한 듯 했다. 해당 판매자는 액상 전자담배기계와 액상을 수수료 1만원을 받고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다."*[19]

19) 헤럴드경제(2022.10.20.). "트위터 OO샵에 '나비약' 버젓이...10대 부추기는 '댈'의 유혹".

나. 구매자/판매자 및 투약 관련 특성

청소년 마약 거래에 있어 임금 방식과 투약 약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매자', '판매자', '입금', '투약'의 워드투벡 결과는 〈표 4-4〉와 같다. 앞서 살펴본 거래 관련 워드투벡 결과에서 등장하였던 '대금', '웃돈', '직거래' 등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큰 차이는 등장 단어들의 순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목록에서 '좌표' 단어는 유사도가 큰 상위 10위 내에 있으며, 거래 관련 목록의 상위 20개 내에는 없던 '주소' 단어가 두 목록에 모두 등장한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 간 관계에서 물건을 받을 주소와 좌표를 공유하는 방식이 최근 청소년 마약의 특성임을 이 분석에서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불 방식은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매자'와 '판매자' 관련 분석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운반책', '유통책', '드라퍼'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과 관련하여 마약 사용보다 마약 거래 과정에 가담하는 실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마약류범죄가 역할을 구분하고 운반이라는 비교적 힘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많은 수고비를 주는 업무에 청소년들이 쉽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약'의 워드투벡 결과에서는 '필로폰'이 가장 유사도가 큰 단어이다. 앞서 거래 관련 분석에서는 '디에타민'이 주요 마약 종류로 등장하였는데, '투약'에서는 '해시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가 목록에 포함된다. 한편, '불구속'이라는 단어는 마약 사용이 다른 마약류범죄(판매 등)와 비교하여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정보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청소년이 마약 사용만으로 인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성인도 단순투약 초범인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표 4-4〉 워드투벡 결과 – '구매자', '판매자', '입금', '투약'

구매자	판매자	입금	투약
좌표	송금	송금	필로폰
원룸	아이디	주소	재판매
수고비	대금	직거래	흡입
대금	수고비	아이디	횟수
웃돈	웃돈	차명계좌	승합차
수화물	지불	상품권	여친
아이디	직거래	지불	콜라
알음	좌표	이체	불구속
하선	랜덤채팅	대금	다량
운반책	후기	좌표	방송인
유통책	유통책	수고비	해시시
매입	알음	중개	둔갑
직거래	하선	수화물	비타민
수법	텔레그램	대행	온몸
주소	수수료	환전	증세
드라퍼	아이스	수령	엑스터시
송금	원룸	계좌	누범
속칭	마약상	전송	향정신성의약품
랜덤채팅	대화방	대포	케타민
고수익	주소	클릭	숙소

분석에 활용된 기사 내용으로 살펴보면, '랜덤채팅'은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매매 수법을 공유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채팅방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검거가 어려워 마약류범죄에서 활용이 더 확장될 위험이 있다.

> *"랜덤채팅 앱은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것뿐 아니라 매매 수법을 공유하는 메신저 역할도 했다. (중략) 마약 수사를 전문으로 한 경찰 간부는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유통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며 "마약 투여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커졌지만, 랜덤채팅 앱을 통한 범죄는 검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20]

20) 중앙일보(2021.5.26.). "랜덤채팅 '아이스방' 은밀한 만남…필로폰 거래 소굴이었다".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아 실제 마약을 구매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텔레그램에서 검색하고 송금 후 필로폰을 수령하는 데 걸린 시간은 40분에 불과하다. 여기서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구매하고자 한다면 어려움 없이 마약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이 마약을 구한 방법은 간단했다. 구글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곧장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나왔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 40만원어치를 송금한 뒤 광진구의 약속한 장소로 가 필로폰 0.5g을 수령하기까지는 4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21]

'투약'의 워드투벡 결과에는 '승합차'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래는 관련 기사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구매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마약을 처방해 주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일명 '마약 쇼핑'을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디에타민도 쉽게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마약류 약물을 처방하는 병원 정보는 채팅방이나 판매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취재팀이 만난 한 마약 판매상에 따르면 환자들을 집단으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략) 식약처는 올해 펜타닐을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중 59명이 10대와 20대였습니다."[22]

'투약'의 워드투벡 결과에 등장한 단어 '콜라'는 새로운 마약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노래방 등에서 여러 명이 콜라나 커피에 마약을 타서 투약하여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가담하지 않았지만, 마약 투약이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여러 명이 공유하는 사회적 행위로 발전한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울산과 마약 은어를 검색해 보니 비밀대화를 할 수 있는 SNS 아이디와 구매처가 여러 건 검색이 될 만큼 간단히 마약류를 접할 수 있었다. '1시간 안에 던져준다'는 글도 다수 보였다. 이를 보여주듯이 콜라마약, 캔커피 마약 같은 것도 적발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노래방에서 콜라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회사 주차장에서 캔커피에 마약을 타서 투약하는 등 울산에서 마약사범 5명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

---

21) 중앙일보(2023.4.13.). "고3 마약상, 성인 6명 수하로 부렸다…그의 손엔 7억대 마약".
22) KBS(2021.10.8.). "승합차로 환자 태우고 병원 돌며 마약성분 진통제 쇼핑".

다. 마약 제조/생산 관련 특성

청소년 마약 관련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마약 제조 관련 정보는 최근의 마약 제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하였다. 청소년들이 실제 마약 제조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언론을 통해 구성된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표 4-5〉는 '제조', '재배', '생산', '유통'과 유사도가 큰 단어 목록을 보여준다. '제조'와 관련해서는 '밀수출', '밀경', '공급', '국내' 등 밀반입 관련 단어를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문제가 된 학원가 마약 음료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우유', '라벨', '판촉', '전례', '알바생' 등은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재배'에서는 '대마', '대마초', '양귀비', '해시시'와 같은 마약 종류와 '태국', '창고' 등 국가나 장소 관련 단어가 유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트리지'는 '대마 카트리지'와 관련이 있고, '버섯'은 환각 성분을 포함한 마약 버섯을 재배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생산'은 '제조'나 '재배'보다 큰 단위를 의미하며 주로 '남미', '대만', '포르투갈' 등 마약 생산지와 관련된 국가 이름이 목록에 등장한다. 해외여행객을 통한 마약 유입과 마약 생산지로부터의 우편물을 주요 적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추정된다. '유통'에서는 지역과 관련해서 '동남아시아'가 등장하고 '밀경', '밀수출' 등 밀수 관련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명분'은 적발된 마약의 양을 몇 명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10만 명분' 등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

23) 세계일보(2023.4.11.). "[단독] 캔커피 마약 나온 울산… 이제 하다하다 콜라마약도".

〈표 4-5〉 워드투벡 결과 – '제조', '재배', '생산', '유통'

제조	재배	생산	유통
밀수출	대마	남미	명분
공급	태국	포르투갈	밀경
밀경	창고	공급망	밀수출
영리	액상	여행객	공급망
국내	대마초	마약단속국	활개
우유	양귀비	대만	사범
라벨	동결	소탕	루트
음회	카트리지	수급	무관
혼합	합법	중량	주축
음식물	버터	가공	공급
우편물	방콕	네덜란드	알음
판촉	버섯	견해	발본색원
가액	밀경	촌극	밀수
내용물	해시시	교훈	익명성
무료	종자	보건복지부	적발
국외	가공	발본색원	동남아시아
전례	병사	합법	양귀비
알바생	케이스	유럽	해시시
배포자	적발	콜롬비아	직구
수출입	배포자	비례	범죄단체조직

마약 제조나 재배는 판매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기사는 '재배' 목록에 있는 '버터' 관련 기사로 군대 내에서 육군 하사가 대마 종자를 구매하여 재배한 사건의 일부 내용이다. 인터넷으로 종자를 쉽게 구매하였고, 군대 내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피우거나 버터로 만들어 먹기도 했다. 실제로 검색사이트에서 '대마 재배'로 검색하면 동영상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육군 하사 A씨가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를 구매해 부대 숙소에서 직접 키우고, 부대 인근 공터에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4]

24) YTN(2022.10.2.). "[뉴스큐] 베이글에 '대마 버터'를 바른다? … 군부대 담 넘은 '마약'".

재배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그 종류가 대마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각 성분이 포함된 버섯을 재배하여 캡슐로 만들어 판매한 고등학생이 검거된 사건이 있다. 이 버섯은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지만, 씨앗인 포자는 마약 성분이 없어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고등학생 역시 SNS로 포자를 무료로 받았으며, 실제로 온라인으로 나눠주거나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국제우편으로 수입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 *"마약 성분이 포함된 '환각버섯'을 보관하고 있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나흘 전 인근에 거주하는 B(25)씨가 같은 성분의 버섯 포자를 말린 뒤 캡슐로 만들어 유통한 것이 적발된 것과 관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5]

대마 재배에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를 가담시킨 부모도 있었고,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액상 대마를 넣어 판매한 사건도 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재벌 3세와 사업가 등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대마 유통에 가담하였다. 과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마약류범죄가 주로 사용/투약과 관련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제조와 유통으로 마약류범죄로의 가담 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국적 가수 안모씨(40)와 무직자 김모씨(36)가 대마를 사고 팔며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내역을 발견했다. 안씨는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살며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검찰은 김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수사해 남양가 3세 홍씨 등을 검거했다. 홍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를 추적한 끝에 국내 시판되는 빈 액상담배 카트리지를 '대마 카트리지'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8·미국 국적 사업가)를 검거했다."*[26]

마약 제조 및 재배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 일부 마약을 합법화한 배경이 한 가지 이유가 된다. 대마초의 경우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이며 최근 독일도

---

25) 서울경제(2022.10.23.). "마약 성분 들어간 '환각 버섯' 보관하던 고등학생 '덜미'".
26) 머니투데이(2022.12.2.). "재벌가 손자들 '마약스캔들' … 美국적 가수·금융지주사 사위도 함께 기소".

부분 합법화를 의결하였다.[27] 이와 같은 대마 합법화에 대한 정보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대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제3절 | 소결

1. 주요 결과 요약

일반인들이 마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언론보도가 거의 유일하므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방식은 정보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장에서는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청소년 마약의 쟁점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753건의 언론보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픽모델링 분석에서 총 7개의 토픽 중 청소년 마약 관련 주제는 4개로 '청소년 마약 수사/검거'(24.0%), '청소년 마약 예방/재활'(17.1%), '청소년 마약 혐의/재판'(14.6%), '정부대응/대책'(13.3%)이다. 전체 기사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재활' 토픽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지만, 기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후 감소할 때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정부대응/대책' 토픽도 유사하다.

청소년 마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거래, 투약, 제조 관련 단어의 워드투벡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와 관련해서는 '웃돈', '알음', '아이디', '직거래' 등 단어가 유사도가 높아 서로 아는 사이와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가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거래 방식은 '텔레그램', '드라퍼', '비대면', '다크웹' 등의 단어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에서 드러난 내용은 '드라퍼', '좌표', '주소' 등 단어로 온라인에서 거래 관련 대화를 한 후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주소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다. 지불방식은 가상화폐가 주요 수단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에게

27) YTN(2022.10.26.). "[더뉴스] 일상 파고든 마약... 유통 고리 끊을 방법은?".

익숙한 상품권 지불방식의 가능성도 있다. 거래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성은 '운반책', '유통책', '드라퍼'라는 역할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다. 한편, 청소년 마약 거래 관련 약물의 종류는 디에타민(나비약)이며, 투약과 관련된 마약 종류는 필로폰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약 제조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사건, 마약 생산지 국가 이름, 마약을 제조하는 시설 등이 유사도가 높은 단어로 등장하였다. 또한 환각 성분이 있는 '마약 버섯'을 재배하는 신종 범죄와 콜라나 커피에 마약을 타서 마시는 쉬운 투약 방법이 청소년에게 확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언론보도를 통해 본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특성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사용한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낮다는 점이다. 청소년 마약 거래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았던 디에타민은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져 있고 병원에서 쉽게 처방되는 약으로 스스로 찾아보거나 안내받지 않으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여기서 또래 친구들끼리 진통제나 감기약을 나누어 먹는 문화에 따라 친구의 권유로 복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무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약 복용 후에 마약류임을 알게 되어도 흔히 알고 있는 마약과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복용 경험에 따라 약에 대한 의존도나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약의 위험성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 마약의 두 번째 특성은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코로 흡입하는 행위로만 여겨져 전자담배나 음료에 타서 먹는 '생활 마약'은 심각한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약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외국의 몇몇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는 등 현상의 복합적 결과이다. 이미 몇몇 유럽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있고, 담배나 술보다 중독성이 낮다고 알려지기도 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실정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대마 재배에 가담시키거나 전자담배에 액상 대마를 넣어 판매하고, 군부대에서 대마

를 재배하여 버터로 만들어 먹는 행위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 마약의 세 번째 특성은 마약 투약에서 더 나아가 유통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 운반책(일명 드라퍼)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서 제조나 밀수입 등과 비교하여 가담의 수준이 낮고, 택배 배달처럼 운반만 하는 것으로 구매자를 만날 필요도 없다. SNS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랜덤채팅, 가상계좌,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는 범죄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상대적으로 고수익이면서 손쉬운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검색만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종자 구입과 재배하는 방법까지 찾을 수 있어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실태를 파악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시 판매상의 지시와 감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동기도 고려해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단기 고수익을 기대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에서 청소년 마약은 수사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예방이나 재활 내용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 잘 부각되지 않는다. 본 과제에서 일반 마약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전체 마약 기사에서 청소년 마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비하다.[28]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활성화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처방되는 약물이라도 마약류에 속하는 종류가 있으며, 이를 나누거나 판매 또는 구입하는 행위가 모두 범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병원에서도 처방 시 마약류임을 안내하고 남은 약에 대한 폐기 방법 등 조치가 요구된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마약을 모르고 먹은 경우나 부모들이 자녀의 마약 관련 범죄를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나 재판 위주의 언론보도는 마약이 범죄라는 인식을 일반인에게 전파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마약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수사'나 '처벌'이 연상되어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문제를 동반한다. 따라서 부모를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에 마약 관련 문제가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28) 빅카인즈에서 '마약'으로 본 과제와 같은 기간, 같은 조건으로 검색하면 33,666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음. 청소년 마약 기사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임.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김 낭 희

제5장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제1절 | 청소년 마약류범죄 처우 및 예방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중 수사단속은 청소년에 대해 차별화된 시도를 하기보다 범국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은 학교 및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에 초점화하여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처우와 대응체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29]

1. 청소년 마약류범죄 처우

청소년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처우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처우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를 정의하며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에서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며, 동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 제1호에서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조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소년으로 처벌이 가능한 연령구간은 14~18세이다. 그 외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을 규정하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였다. 정리하면, 19세 미만 미성년 범법소년

29) 전영실·김유근(2022)의 '10대·20대 마약류사범 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음.

중 10세 미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10~18세 소년이 「소년법」 적용대상이 된다. 10~18세 소년이 범죄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우범소년으로, 죄를 범한 소년 중 10~13세는 촉법소년, 14~18세는 범죄소년으로 처우대상이 된다.[30]

법절차적으로 보면, 촉법소년(10~13세)은 소년보호처분을, 범죄소년(14~18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 제7호~제10호는 소년원에 입소하여 「소년보호교육지침」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14~18세)은 검찰이 조건부기소유예(치료, 교육, 선도) 처분을 할 수 있다.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치료보호기관, 마약퇴치운동본부, 보호관찰소 등에서 필요한 치료교육을 받는다.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소년교도소,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필요한 치료교육을 받게 된다. 그 외 벌금형과 약식명령(이수명령), 집행유예(수강명령, 치료명령), 선고유예(치료명령) 시에도 각각 필요한 처분을 병과하여 치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근거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의나 보호자 의뢰에 의해서도 치료보호가 가능하다.

마약류범죄와 별개로 여성가족부는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5장 청소년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동법 제34조의2에서 환각물질 중독치료 사업을 규정하고 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률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로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된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1]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의 내용을 고려하면 보호관찰소,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소년원에서 치료재활이 가능하다. 그 외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보호기관 등 정신의료기관이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범죄 범법소년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단계마다 치료재활체계에 접근할 수

3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n.d.). '소년보호 사건대상'. https://www.cppb.go.kr/cppb/578/subview.do (최종검색일: 2023.10.15.).

31) 최연숙 의원 등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환각물질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포괄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을 발의하였음(출처: 약사공론(2023.2.1.).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법 추진".).

있는 제도적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교육의 핵심 장소는 학교이다.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내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외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서 마약류 등 약물중독 예방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치료·예방교육까지 관할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34조는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치료재활과 함께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보건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방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제2절 |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동향

1. 마약류범죄 차단을 위한 정부 대응

정부는 관련부처합동으로 매년 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마약류범죄에 대한 공급차단, 수요관리, 국제협력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22년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마약류관리가 정부의 핵심과제가 되었다.[32] 2022년 10월 26일 마약류관리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성과를 모니터링하며 후속 대안을 시시각각 발표하였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관심은 2023년 4월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이 발생하면서 증폭되었다. 마약을 이용한 파생범죄이기는 하지만, 마약류범죄의 피해대상이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이 발 빠르게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 선포 전후 주요 현안 및 정부 대응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5-1〉과 같다. 이중 청소년 마약류 차단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법교육 실시를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대검찰청은 청소년 마약범죄 엄벌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교육부는 약물중독예방교육 시수 확보, 수능 이후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식약처는 예방교육과 함께 청소년재활특화 중독재활센터 설치,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가 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표 5-1〉 '마약과의 전쟁' 선포 전후 주요 정부 대응

일자	주요내용	관련부처
22.10.13.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
22.10.21.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 선포	대통령
22.10.26.	부처합동, '마약류관리종합대책' 수립 발표	당정 협의
23.01.11.	정부,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사회재활 강화 박차	부처합동
23.01.27.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23.01.29.	**법무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발표**	**법무부**
23.01.31.	교육-예방-단속-사회재활, 마약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공고화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과 정규 직제화	식약처
23.02.02.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관세청
23.02.21.	대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대검찰청
23.03.09.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대상 기준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발동	식약처
23.04.07.	**서울시교육청, 마약류 포함 유해 약물특별예방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
23.04.10.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 검찰, 경찰, 관세청 840명 구성	대검찰청
23.04.13.	법무부, '마약 근절' 캠페인 개시	법무부

32) 연합뉴스TV(2022.10.21.). "[현장연결] 윤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해 달라".

일자	주요내용	관련부처
23.04.18.	'마약류관리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논의	국무조정실
23.04.18.	**보건복지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23.04.26.	식약처, 민관협력 '마약류오남용감시단' 발족	식약처
23.04.27.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시행	식약처
23.04.30.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발표**	**대검찰청**
23.05.01.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 실시 (부천)	식약처
23.05.08.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청소년 예방교육, 치료재활 강화**	**대검찰청**
23.05.08.	**법무부,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법교육 실시**	**법무부**
23.05.09.	**신·변종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종합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23.05.16.	**경기도, 청소년기관 중심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 교육' 추진**	**경기도**
23.05.17.	마약표현 사용자제 권고	식약처
23.05.17.	**★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범정부**
23.05.25.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대상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발송	식약처
23.06.01.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	식약처
23.06.02.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펜타닐 국내외 동향 및 관리방안 논의. 조직, 인력, 예산 확충 논의	국무조정실
23.06.13.	해경, '해양마약수사전담팀' 운영	해양경찰청
23.06.14.	대검찰청, 제2차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회의 개최 - 국방부, 해경 등 합류. 974명 확대	대검찰청, 부처합동
23.06.15.	연예인 식약처 마약예방 홍보모델 선정 '나 약하지 않아' - 청소년 마약류 사용예방 홍보, 폐해에 대한 메시지 전달	식약처
23.06.19.	사법-치료-재활 연계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시범운영	부처합동
23.06.26.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개최	법무부
23.07.18.	**식약처, 청소년 예방교육 근거신설 법률 개정안 의결**	**식약처**
23.07.20.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청소년재활특화)**	**식약처**
23.08.01.	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식약처
23.09.06.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법무부
23.09.07.	식약처, 마약 안전관리 정부예산 203억원 증액	식약처
23.09.12.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2024년 마약류예산 602억원 편성, 전년대비 2.5배	국무조정실
23.09.25.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발송	식약처
23.10.0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기에 관한 법률' 개정 - 조직·마약범죄 추가,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	법무부
23.10.24.	관체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출범	관세청
23.10.30.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부처합동**
23.11.07.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	**교육부**
23.11.09.	식약처, 폐업병원 등의 마약류 단속·관리 강화	식약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korea.kr).

마약류대책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응 중 각 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관련 대응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 〈표 5-2〉와 같다.

〈표 5-2〉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청소년 마약류차단을 위한 주요 정부 대응

일자	주요내용	관련부처
23.01.11.	· 정부,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사회재활 강화 박차 – 학생,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메타버스,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계부처합동
23.01.29.	· 법무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 전국 중고등학교(학생), 청소년복지시설(학교밖청소년) 방문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 추가.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예방활동 확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 확대(법무부장관 위촉) ▸ 유튜브, 법교육포털 콘텐츠 업로드,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예방 활동 추가 – 법무부 소속기관의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 구축 ▸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 추가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 중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 특수분류심사 시행 ▸ 소년보호관찰: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시 마약예방교육 필수 실시. 분류등급에 따라 상시/불시 약물검사 시행. SNS 검사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과정 운영 – 마약류 사용실태 모니터링 및 처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처우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 상시 조사	법무부
23.01.31.	· 교육-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마약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공고화 –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교육 확충 강화	식약처
23.04.07.	· 서울시교육청, 마약류 포함 유해 약물 특별예방 교육 강화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일상·특별 예방교육'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마약 특별예방교육(마퇴연계)' – 강남일대 학원가, 유흥가 밀집지역 중심 특별점검 –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 청소년 마약예방 공동대응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

일자	주요내용	관련부처
23.04.10.	·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 검찰, 경찰, 관세청 840명 마약수사전담인력 구성 – 검찰,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약처, 서울시 공동대응 논의 – 온라인 모니터링, 통관검사 강화로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집중수사 –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 구속수사 원칙,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대검찰청
23.04.18.	· '마약류관리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논의 – 교육홍보: 마약정보통합홈페이지 구축, 청소년 대상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확대, 교원연수 마약교육 포함 교사 역량 강화.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국무조정실
23.04.18.	· 보건복지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계획 – 일반 청소년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 실태조사 금년 내 완료 – 학교밖청소년, 소년원수감자 및 청소년마약류사범에 대해 대상자별 접근 전략 마련 및 표본설계 등을 거쳐 조사 실시 계획	보건복지부
23.04.30.	·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 이용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 범죄 구속수사 원칙, 법정최고형까지 가중처벌 –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 운영 – 청소년 맞춤형 치료·재활,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활용, 치료·재활 기회 확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의 선도 병행.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하여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특수본 실무협의체의 지역별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들의 초중고교 대상 마약 예방 · 선도 ['23. 4. 서울중앙지검] ❶ 초·중·고교 대상 마약 예방 교육, ❷ 학원가, 관광지 등에서의 캠페인·현수막 게시, 홍보스티커 부착 ❸ 마약 예방 영상 제작, 유튜브·SNS 활용 홍보 활동 등 ▸ 학원가, 번화가 등에서의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 ['23. 4. 부산지검] ❶ 학원가, 유흥가, 번화가 등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 ❷ 청소년 연극경연대회, 준법 경시대회 등 범죄예방위원회 행사에 마약 예방 캠페인 ▸ 학생문화 공연형 예방교육 ['23. 4. 대구지검] '학생 문화 공연형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마퇴본부, 교육청 공동 주관)' 적극 직원 ▸ 마약예방 전문위원의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 ['23. 4. 울산지검] ❶ 의약·상담전문가의 맞춤형 교육·상담, ❷ 범죄예방위원회 등의 마약범죄 예방캠페인, ❸ 마약 예방 전문위원을 활용한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 등	대검찰청

일자	주요내용	관련부처
23.05.08.	· 대검찰청,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청소년 예방교육, 치료재활 강화 – 전국 18대 지검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 개최 –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에 대한 철저 수사, 가중처벌, 양형 가중자료의 적극적 제출 방안 마련 – 청소년 중독자나 단순 투약자에게는 재범방지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재활의 기회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 마련 1) 집행유예 선고시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 제출 2) 구속한 마약중독자는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 확보 후 치료감호 청구 노력 3) 청소년·초범 투약자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교육·선도·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재활 기회 폭넓게 제공 – 청소년에 대한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1)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에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금단증상', '청소년 마약투약 등 발견시 신고 및 상담채널' 안내 팝업창 게시 2) 마약전담검사가 초중고교 범죄예방 교육과정에서 직접 마약중독 예방교육 실시 예정	대검찰청
23.05.08.	· 법무부,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법교육 실시 – 교육부, 여성가족부 연계 초중고교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 3월 이후 302회 출장강연 실시. 연내 1,000회 이상 실시 예정 – 지식전달 중심 강의 개선, 스토리텔링 중심의 참여형 교육 진행 – 법교육누리집 '이로운법(http://lawnorder.go.kr)'에서 신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마약예방 법교육 실시 – 마약근절 인식확산을 위한 포스터, 가정통신문 제작 배포	법무부
23.05.09.	· 검찰,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 사범 구속수사 원칙, 가중처벌 방침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교재 개발 보급,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계획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23.05.09.	· 신·변종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종합대책 마련 – 룸카페, 온라인 마약류, 도박 사이트 확산 등 신·변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수립 확정 발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 지원]** ▸ 마약류 등 청소년 유통차단을 위해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 집중 실시. 마약구입 유도 게시글 신속차단을 위해 서면심의 방식 도입 추진.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 ▸ 중독재활센터 확대, 소년처우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 모니터링. 필요시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치유 서비스 연계 지원 ▸ 학생 대상 교육,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 교재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23.05.16.	· 경기도, 청소년기관 중심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 교육' 추진 –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운영단체로 선정. 8~11월 사업 운영 – 도내 학교밖청소녀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기관이나 소년원 등 대상 – 청소년 맞춤형 콘텐츠 구성, 연극활용예방교육, 참여형 수업,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추진	경기도

일자	주요내용	관련부처
23.05.17.	· 마약표현 사용자제 권고 –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 – 식품 등에 마약 표현의 상업적 규제를 위한 협력 방안, 교육·홍보계획 논의 – 마약명칭 사용 음식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방문하여 업소명 변경 계도, 비용지원	식약처
23.05.17.	**·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범정부 마약류관리종합대책 후속,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 엄정조치, 청소년층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상황 점검** **–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가중처벌, 청소년 마약 유통판매 무관용 원칙, 학교 예방교육시간 확대, 체험형 교육자료 개발, 중독재활센터 추가 설치,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 도입,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교육부, 범정부**
23.05.24.	·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23.7) – 미국 중독자 재활시설과 업무협약, 청소년 중심센터 운영	식약처
23.06.15.	· 연예인 식약처 마약예방 홍보모델 선정 '나 약하지 않아' – 청소년 마약류 사용예방 홍보, 폐해에 대한 메시지 전달	식약처
23.06.16.	· 경찰청, 마약류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 발표 – 청소년 95만명 대상 마약류 특별예방 교육(SPO) – 외국인 고용업체, 다문화 지원센터, 유학생 상대 맞춤형 예방활동 – NO EXIT 캠페인	경찰청
23.07.18.	· 식약처, 청소년 예방교육 근거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근거 신설,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학교교육 연계	식약처
23.07.20.	·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 – 청소년 재활 특화된 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식약처
23.09.12.	·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예방) 마약예방교육 45억원, 홍보 30억원	국무조정실
23.10.30.	**·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마련** **–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이버 약물중독예방 교육시간 구분** **–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예방 최소 교육시간 제시: 유초5, 중6, 고7시간**	**교육부 부처합동**
23.11.07	·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 – 도박문제 예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금융·경제교육 – 마약류 예방교육: 마약류 예방교육,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중독 상담, 학생건강정보센터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 자료제공	교육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korea.kr)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2023년 4월 18일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마약류범죄에 총력 대응을 해 왔으며, 특히 청소년 마약류 차단과 관련하여 2023년 5월 17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1) 마약류 판매 및 투약행위 근절, 2)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3) 협력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4) 홍보 및 소통 강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에 초점화하기에 앞서 국내 마약류범죄 대응, 및 치료재활 정책 대응의 큰 맥락 속에서 청소년 마약류범죄 차단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청소년에 초점화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범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청소년이 마약 유통·판매 등 또래 집단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강력처벌을 예고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오픈마켓이나 SNS 이외에 중고거래플랫폼까지 확대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존의 문자기반 모니터링에서 사진, 그림 등 이미지 검색을 추가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였다('e-로봇'). 펜타닐, 다이어트약 등 처방약의 오남용이 청소년 사이에서 사회문제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 편의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독 처방을 줄이고자 하였다.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콘텐츠 개발, 예방교육 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추진을 계획하였다. 학교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 2학기에는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이수시간 10차시 내에서 약물중독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하되, 2024년부터 별도의 차시로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소년범, 소년수형자, 소년원생 대상으로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학생, 교사, 부모 등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을 계획하였다.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교육효과를 내실화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상담공간 구축, 참여형 청소년 예방교육 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예방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강사 추가 양성 추진도 발표하였다.

협업체계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관협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 사용, 치료 실태 파악을 위해 2023년에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2024년에는 청소년 마약류사범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심층조사 실시 이전에 법무부 주관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소년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청지역에 청소년 중심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맞춤형 치료재활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홍보, 예방, 치료, 재활, 처벌 등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 활용할 수 있는 부처통합시스템 구축도 예정되어 있다.

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해 경찰청 중심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마약을 끝낼 신호, SOS'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며, 연예인과 체육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마약범죄 모방방지를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방송송출 심의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표 5-3〉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2023.5.17.)

구분	추진 상황 내용
1. 마약류 판매 및 투약행위 근절	▶ 불법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법무, 식약, 경찰, 권익위, 대검) - (단속강화)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확대(23.4), 합동단속추진단(TF) 운영, 전문수사인력 확대(가상자산 등, 23년 6개청 →24년 18개청), 의료용 마약류 기획점검(23.5/하반기) - (처벌강화) 청소년 대상 마약류범죄자 가중처벌(23.5~), 또래집단 마약유통 범죄 엄단(23.5~), 집중신고기간 운영(23.4~5) ▶ 온라인 불법 유통 및 처방행위 신속 차단 (식약, 방통위) - 온라인 마약거래광고 게시글 서면(전자)심의 도입(23.2 개정법률안 상정), e-로봇 활용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23.9),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23.2),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사용 편의성 개선(23.2~3)
2.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식약, 교육, 법무, 여가, 경찰) - 학교 교육시간 확대(~23.8), 학교 교육실적 모니터링(23.7/12), 청소년 마약예방 집중교육기간 운영(23.4~6),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23.12), 소년범 마약예방교육(소년수형자, 소년원생 등, 23.4~) ▶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지원 강화 (식약, 교육, 여가)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학생, 교사, 부모 등, ~24), 가상현실 등 신기술 이용 교육 인프라 확충(23.12), 교육자료 제공지원(학생건강정보센터, 23.3~)

구분	추진 상황 내용
	▶ 예방교육 담당 교원 및 강사 전문성 강화 (식약, 교육, 법무, 관세) - 교원연수 강화(23.5~),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연중): 청소년 중독예방 전문강사 추가 양성(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45명, 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64명)
3. 협업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협의체 구성·운영 (식약, 교육, 법무, 여가) - 유관기관 협업: 교육 활성화 및 홍보강화를 위한 협의체 지속 운영(22.11~, 분기별) - 민관 협업: 범국민 캠페인을 우선 노출하여 접근성 강화 ▶ 실태조사 (복지, 교육, 여가, 법무) - 일반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 실태조사(23) - 청소년 마약류 사범 및 고위험군 대상 심층조사(24)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소년처우 모든 단계 모니터링(23) ▶ 인프라 확충 (복지, 식약, 여가, 대검) - 중독재활센터 추가 설치, 충청지역 우선 추가 설치 및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개발(23.7) - 청소년 중독자 가족 등 대상별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추진(24~) - 맞춤형 치료, 재활 실시(23.하반기 시범운영 ~) - 온라인플랫폼 통합 홈페이지 구축(23.12)
4. 홍보 및 소통 강화	▶ 마약류 중독 예방 홍보 (식약, 교육, 법무, 경찰) - 릴레이 캠페인 추진, 'NO EXIT'(23.4~) - 범국민 캠페인 추진, '마약과 끝낼 신호, SOS'(23.6~) - 유사 범죄 재발방지 및 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홍보(23.4~) ▶ 마약류 중독 예방 인식 제고 - 마약범죄 모방방지(23.5~):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방송 심의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공모전 개최(23.10) ▶ 현장소통 강화 (교육, 행안) - 학교 현장 수요 파악 및 마약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역할의 전문위원회 운영(23.5) - 가정 연계(23.5~): 학부모 대상 중독예방 홍보 강화 - 주민 인식(23.하반기): 자치단체 홍보채널을 통한 마약 위험성 인식 제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5.17.).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별첨]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각 지자체에서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마약류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일인 2023년 9월 15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마약류 예방 및 치료재활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두었다. 이 중 일부 지자체는 추가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서울과 울산은 문화환경개선 관련 조례를, 강원과 경북은 교육청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17개 시도 단위에 총 21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17개 시도, 21개 조례의 청소년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고려한 조례는 5개였으며,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약 3분의 2의 시도가 이를 언급하였다. 유사한 비율로 미취학 아동까지 고려하기도 하였다. 다만 학교밖청소년을 명시한 조례는 1개에 불과하였다. 마약류 이외에 유해약물을 포함하여 명시한 조례는 총 5개였으며, 이 중 4개의 조례는 환각물질 이외에 주류, 담배까지 유해약물에 포함하였다. 시도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마약류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61.9%)과 전문인력 양성·지원(57.1%)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프로그램 개발(47.6%), 실태조사 실시(38.1%)를 명시하였다. 마약류취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조례는 28.6%로 집계되었다.

〈표 5-4〉 17개 광역자치단체, 21개 마약류 예방 조례 중 청소년 관련 항목 포함 현황

구분	항목	조례수	비율 (21개 조례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생애주기	5	23.8%
	미취학	7	33.3%
	청소년	8	38.1%
	초·중·고등학교(유치원 미포함)	6	28.6%
	학교+유치원	1	4.8%
	학교밖	1	4.8%
마약류 이외 유해약물 범주 포함	환각물질	1	4.8%
	환각물질, 주류, 담배	4	19.0%
관리·지원	실태조사	8	38.1%
	프로그램 개발	10	47.6%
	보조금 지원	13	61.9%
	마약류 취급	6	28.6%
	전문인력 양성	12	57.1%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moleg.go.kr). 조례. 검색어: "마약". (최종검색일: 2023.9.15.).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마약류 관련 조례는 226개 중 41개(18.1%)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특별자치 지자체인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부산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없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 대전, 광주 3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중 60.0%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외 지역들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20% 이하로 파악되었다.

〈표 5-5〉 17개 시도별 마약류 관련 시군구 조례 제정 현황

지역 (17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수 (2022.12.31. 기준)	조례 제정 시군구 수 (2023.9.15.기준)	비율 (226개 중 비율)
총계	226	41	18.1%
서울	25	15	60.0 %
부산	16	0	0.0%
대구	8	1	12.5 %
인천	10	1	10.0 %
광주	5	3	60.0 %
대전	5	3	60.0 %
울산	5	1	20.0 %
세종	-	-	-
경기	31	3	9.7 %
강원	18	3	16.7 %
충북	11	2	18.2 %
충남	15	3	20.0 %
전북	14	1	7.1 %
전남	22	3	13.6 %
경북	23	1	4.3 %
경남	18	1	5.6 %
제주	-	-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http://moleg.go.kr). 조례. 검색어: "마약". (최종검색일: 2023.9.15.).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내용 중 청소년과 관련한 주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를 포함한 조례는 67.6%로 파악되었다. '청소년' 관련 항목이 포함된 조례도 70.3%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의 대상으로 미취학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는 21.6%, 초중고등학교를 언급한 지자체는 24.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애주기를 언급하고 있어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을 명료하게 명시하지 않아 미취학 아동이나, 학교밖청소년 등은 제도권에서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마약류 이외의 유해약물 범주로 환각물질, 주류, 담배를 포함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56.8%였다. 한편 유해약물 범주에 환각물질만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는 5.4%로 파악되었다. 관리·지원 영역에서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해 명시한 기초자치단체는 75.7%로 인력에 대한 내용을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실태조사(37.8%), 보조금 지원(35.1%), 프로그램 개발(10.8%), 마약류취급(5.4%)에 대한 내용이 뒤를 이었다.

〈표 5-6〉 226개 기초자치단체, 41개 마약류 예방 조례 중 청소년 관련 항목 포함 현황

구분	항목	조례 수	비율 (41개 조례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생애주기	25	67.6%
	미취학	8	21.6%
	청소년	26	70.3%
	초중고등학교(유치원 미포함)	9	24.3%
	학교+유치원	-	-
	학교밖	-	-
마약류 이외 유해약물 범주 포함	환각물질	2	5.4%
	환각물질, 주류, 담배	21	56.8%
관리·지원	실태조사	14	37.8%
	프로그램 개발	4	10.8%
	보조금 지원	13	35.1%
	마약류 취급	2	5.4%
	전문인력	28	75.7%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moleg.go.kr). 조례. 검색어: "마약". (최종검색일: 2023.9.15.).

제3절 |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제언

경찰, 변호사,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정직 공무원 등 현장실무전문가 8명과 청년 마약류사범(22세 이하) 3명, 총 11명의 면담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응 방안의 내용은 1) 마약류 차단 예방교육, 2) 처우와 치료재활, 3) 환경체계 개선의 세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마약류 차단 예방교육은 ①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 ② 주변인 교육으로 세부 내용을 구분하였으며, 처우 및 치료재활은 ① 법집행단계, ② 치료재활, ③ 근거기반 구축으로, 마지막 환경체계는 ① 대중매체, ② 인프라 확충, ③ 중앙기구 설치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마약류 차단 예방교육

가. 예방교육 방법과 내용

청소년 마약류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의 '방법'에 관한 의견으로는 조기교육, 의무교육기간 활용, 4대 중독 동일 시수, 경찰권위 활용, 교육방법론적 체계화, 교육부 중심 역량 밀집으로 정리되었으며, 예방교육의 '내용'에 관한 의견은 청소년 콘텐츠 개발, 학교밖 경계 위험, 의약품 관리, 법의식 강화, 가치관 교육이 제시되었다.

먼저 방법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조기교육을 강조하며 특히 유치원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예방교육을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교육 시스템에서 예방교육이 시행되어야 이후에 대학, 유학, 군대에 가서 마약에 노출되었을 때 교육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학교현장에서 마약류 문제는 다른 중독문제, 예컨대 음주, 도박, 스마트폰 중독 보다 발생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4대 중독으로 통합하여 교육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중독교육에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차단에 대한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의무교육과 달리 마약류는 범죄와 관련이 있고 강력한 경고의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교사, 담당교사보다는 제복을 입은 경찰(SPO)의 권위를 교육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과거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러했듯, 마약류에 대한 교육 역시 터부시되지 않도록 하되 교육현장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불필요한 정보제공이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방법론적으로 체계화 된 설계 하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예방교육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교육방법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교육부 중심으로 역량을 밀집시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단순히 마약류의 폐해나 중독성에 대한 교육을 넘어 마약이 미래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진로와 미래설계의 관점에서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고액아르바이트나 조건만남 등 학교밖, 경계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내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정보와 법의식을 강화하는 교육내용 구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류범죄, 법의식 강화 등 직접적인 교육 이외에 보다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 5-7〉 청소년 마약류 차단 예방교육에 관한 의견

주제	내용	진술 사례
방법	조기교육	• 유치원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임 • 유치원부터 체계적인 조기교육을 해야 함
	의무교육기간 활용	• 대학, 유학, 군대에서 마약에 노출될 때 방어가 가능하도록 의무교육이 가능한 시기에 교육을 해야 함
	4대 중독 동일 시수	• 학교에서 음주, 도박, 스마트폰과 함께 통합으로 마약예방교육을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분리교육 필요. 4대 중독을 동일한 시수로 교육해야 함
	경찰권위 활용	• 마약교육은 보건교사보다 제복을 입은 경찰(SPO)이 권위 있게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교육방법론적 체계화	• 막연히 나쁘다고만 하면 대체 왜 나쁜 것인지 알기도 전에 호기심만 자극하는 것임 • 교육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유아기부터 과학적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함 • 임상가, 마약퇴치운동본부, 경찰 등이 협력하여 마약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되 교육전문가가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마약류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함
	교육부 중심 역량 밀집	• 현재 부처별, 지자체별, 교육청별로 산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며 전문성도 낮음 • 대학교수들에게 푼돈을 주며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음 • 교육부가 전체적인 역량을 모아 교재개발을 해야 함
내용	청소년 콘텐츠 개발	• 단순히 약의 효과만을 다루는 현재의 예방교육은 아이들 입장에서 지겹기만 함 • 음주를 해도 금방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몸에 나쁘다', '중독된다'만으로는 예방효과 없음 • 특정 국가 비자발급이 안되어 여행, 유학이 어려워진다거나, 취직해도 해외출장을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등, 미래의 내 삶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실제적인 사례 교육 필요 • 직업, 유학, 여행 등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교육
	학교밖·경계 위험	• 학교밖 및 학교밖 경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 필요 • 가출, 조건만남, 성착취, 고액알바 등 청소년이 범죄피해에 노출될 수 위험 요소 사례 교육 필요
	의약품 관리	• 집에서도 가족들이 처방약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들은 처방받은 약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함
	법의식 강화	• 법의식, 준법정신, 불법 경각심 교육 필요 • 불법에 가담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 교육 • 마약범죄와 관련한 처벌 정보 제공(형량 등)
	가치관 교육	•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임 • '외모', '돈' 중심의 가치관이 삶의 기준이 되면 마약이 수단이 됨. 마약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치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나. 주변인 교육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 교사를 포함한 주변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변인 교육은 '부모', '교사', '의사, 약사', '지역사회'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마약류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다수가 부모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가정 내 감독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술, 담배와 달리 마약은 사용해도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은 비용 측면에서도 필로폰과 같은 강성마약보다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을 티 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 역시 마약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앞서 청소년 마약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왜곡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강조했는데, 청소년의 가치관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자녀가 이미 마약류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부모교육을 양형자료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의무적으로라도 부모가 마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교사 역시 마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예방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지식을 습득할까봐 걱정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며 마약에 대해 교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아이들이 마약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기보다 교사들이 아이들보다 마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학교에서 마약류범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신뢰에 기반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자칫하면 불신의 관계가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또래문화의 특성으로 마약류범죄가 다른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어 교사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약, 진통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유통되는 것이 이슈화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조제하는 의사, 약사에 대한 교육·지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의사, 약사에게 지침을 제공하기에 앞서 의대, 약대에서 의약품 처방, 조제 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적정량을 처방,

조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사회의 참여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과거 청소년 사이에 본드흡입이 유행했을 때 지역사회 철물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본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지역사회 소상공인에게 청소년이 오남용할 수 있는 상품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활동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조직,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8〉 청소년 마약류 차단을 위한 주변인 교육에 대한 의견

주제	내용	진술 사례
부모 (보호자)	가정 내 감독 강화	• 청소년 마약류사범 중 다수가 가정 내 감독이 부재한 경우가 많음 (한 부모, 혼자 거주, 가출 등) • 아이들은 이미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데 부모들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심각한 것만 마약인 줄 알고 있음. 아이들은 티 나지 않게 마약을 함 • 부모가 마약류에 대해 알고 있어야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으므로 마약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해야 함
	부모 대처, 부모 가치관 교육	• 부모들은 자녀가 마약류로 단속되어도 변호사 선임, 전과에만 관심이 있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함. 재발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마약의 심각성을 잘 몰라 치료에 관심이 없음 •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함. 유학생들이 많이 먹고 그 소문을 듣고 대치동 엄마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전파함. 공부를 잘해야 잘사는 것이므로 약을 먹이는 것 정도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부모교육을 양형자료로 활용	•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족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통해 교육을 듣고 수료증을 제출함 • 형식적으로라도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교사	발견, 대응 지식	• 교사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배우면 어떡하냐고 걱정함. 아이들이 마약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예방해야 하는데 호기심을 자극할까봐 두려워함 • 학생 가방에서 패치나 약이 나올 때 허리 아파서, 통증이 있어서라고 하면 교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간과함. 아이들도 학교에 마약류를 가지고 가는 것에 긴장감이 없음
	대응 매뉴얼	• 아이들이 마약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질책이나 징계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함 • 학생 마약범죄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할지, 치료기관을 연계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함. 상담자가 신고하면 아이들이 다시 상담하지 않을 것이고,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또래'전파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주제	내용	진술 사례
의사 약사	의사, 약사 지침	• 마약류를 처방, 조제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음 • BMI 지수 등을 확인하고 처방, 조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 •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잠을 못자고 그것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생김 • 처방, 조제로 돈을 벌기 때문에 주의를 주지 않는 것임
	의대, 약대 교육강화	• 의대, 약대에서 의약품 처방, 조제 시 윤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함
지역사회	소상공인 홍보	• 과거에 철물점에서 '토끼코크(본드)'를 살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본드가 유행했음. 그 당시 철물점에 아이들에게 본드를 팔지 않도록 홍보했고 나중에 법이 생겼음. 지역사회도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감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함
	청소년활동지원	• 지역사회운동 등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단체나 조직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한 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이 중요함

2. 처우 및 치료재활

가. 법집행단계

법집행단계에 대한 의견은 '초기 강력 개입', '처분 개별화', '법집행자의 의식개선'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청소년 마약류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속, 수사, 기소단계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강력한 초기 개입이었다. 마약단속에 적발되어 처음 경찰 앞에 앉게 되었을 때 법적 처벌에 대해 가장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선처를 하면 이후에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경찰의 권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이후 기소단계에서도 처분결정을 빨리 내리기 이전에 치료프로그램 참여 및 그 성과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의무적으로라도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 미국의 Deferred Prosecution Program 사례를 소개하였다.

처분개별화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청소년들은 마약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범죄예방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마약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고 점점 마약에 중독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약단속에 걸려 구속되기를 바랄 정도로 중독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마약류사범으로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도 마약을 해 본

적 없이 마약구입을 시도하다 단속되거나 판매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개별화된 평가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있어 치료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실형의 순서로 일률적으로 처분하기보다는 약물사용력, 중독단계,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개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단속, 수사, 기소 단계에서 치료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집행공무원의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법집행공무원의 마약중독 치료에 대한 불신이 강하여 적극적인 치료연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집행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치료처우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5-9〉 청소년 마약류사범 법집행단계에 대한 의견

주제	내용	진술 사례
초기 강력 개입	경찰권위 활용	• 경찰단계에서 강력한 역할이 필요함. 경찰단계에서 제일 떨림. 경찰 단계에서 잡혔을 때 그래도 애들이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무서운 상황에 있게 됨. 그런데 경찰 수사에 잘 협조하면 그냥 풀어주니까 겁이 없어지는 것임. 순순히 인정하면 경찰이 안 무섭게 하기도 하고, 검찰송치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까 또 마약을 하는 것임. 빨리 풀어주면 안되고 경찰단계에서 바로 조기 개입을 통해서 연계해야 함 • 경찰 앞에서 진술하면서 '이게 진짜 나쁜 짓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 보임. 마약을 하는 것이 경찰을 만날 일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함. 부모들은 어떻게든 경찰서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정말 나쁜 짓이라는 설명을 들어야 함 • 부모가 말하는 것과 경찰이 말하는 것이 다름. 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음. 경찰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짐. 골든타임에 경찰이 칼자루를 들고 있기 때문임
	기소유예 처분 전 교육 강화	• 경찰조사 받고 검찰기소, 재판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고 그 사이에 재발이 많이 됨. 길게는 1년도 넘게 걸림.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약물법원처럼 1년씩 치료받게 하는 것임. 그 다음 치료 결과를 보고 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함 • 가장 좋은 방법은 적발되는 단계에서부터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당장할 수 있는 것은 검찰 기소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이 유리함
		• 처분을 내리기 전 교육참여를 제안하고, 동의 후 교육에 잘 참여하면 처분, 양형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예: Deferred Prosecution Program)

주제	내용	진술 사례
처분 개별화	중독평가에 따른 차등화	•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음. 그것이 좋은지 아닌지 의문임 • 차라리 아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게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 생각했음. 차라리 감옥에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음. 처음 구금됐을 때 진짜 감사했음. 마약이 계속 생각나는데 못하는 것이 감사했음. 하지만 형량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음
	수강·이수교육 세분화	• 수강명령, 이수교육은 청소년과 성인을 따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없음 •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가 심각함. 기소유예 대상자들을 보면 10년 마약한 사람과 한번도 마약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섞여 교육을 받음 • 기소유예 대상자 세분화가 필요함
법집행자 의식개선	중독치료 불신 해소	• 중독되어 있으니까 치료감호소로 보내달라고 하니, 멀쩡한데 왜 정신병원을 보내냐고 함. 법집행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치료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음 •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함
	자의적 판단 최소화	• 현재는 검사가 치료처우를 모두 결정하는 시스템임.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모든 것을 결정함 • 법집행공무원이 치료보호를 보내지 않음. 치료보호를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음 • 치료감호로 가는 사람의 결정은 검사, 판사의 재량적 판단임

나. 치료재활

청소년 마약류중독 치료재활 대응에 대해서는 '접근성', '연계성', '정신건강이슈', '청소년맞춤형 기획, 평가, 모니터링', '학업유지', '사후관리'의 주제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먼저 치료접근성, 연계성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면, 청소년은 마약중독 치료기관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치료적 인프라가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치료재활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치료상담기관을 찾아가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수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정신과진료는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하지만 상담은 여전히 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청소년의 마약류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중독 치료재활이라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부는 성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착취관계의 취약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내용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 외에도 청소년이라는 발달기적 특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접근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계를 형성하고 핵심적인 사안에 접근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약류범죄의 문제 하나에만 초점화하여 접근한다면 표면적인 실적 내기만 될 뿐 실제적인 문제해결은 어렵다는 견해다.

또한 청소년은 마약류범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을 이수하는 것도 재범예방의 대안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정신건강의 문제나 처벌이슈로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안학교 등을 마련하여 학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상담기관이나 대안학교에서 모델링이 되는 성인과의 개인적 관계형성을 통해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약류범죄 법적 처분 이행이 종료되면 치료재활의 과정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접근방식은 법적 의무를 처벌로 인식하기보다 법망 안에서의 보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적인 교육, 상담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법적 처분이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10〉 청소년 마약류중독 치료재활에 대한 의견

주제	내용	진술 사례
접근성	치료상담 접근성 향상	• 투약을 하면서도 끊고 싶었고, 어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음. 치료기관이 있다고 생각도 안해 봤음. 혼자 극복하려고 했음 • 병원에 가서 마약했다고 하면 신고당할 거 같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음 •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위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상담비용 지원	• 보험수가가 문제임. 상담 비용이 비쌈. 상담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게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함
연계성	법-학교-가정 연계	• 법제도는 아이들이 집과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까지 미치지 못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남
	거주지역 연계	• 서울에서 사건이 되었다고 해서 서울 아이들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로 잡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임. 지역으로 아이들을 연계해야 하는데 지역에는 인프라가 없음
정신건강 이슈	우울, 자살	• 끊임없이 자살시도를 하는 아이였음. 자기는 살아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함 • 마약을 하면 쾌락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자존감이 확 떨어짐. 그 후유증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임
	착취관계 취약성	• 다른 위험요소들이 있음. 사리분별이 취약하여 '몸캠' 피해를 입음
	근원적 이슈	• 약물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음. 그 문제를 약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임 • 다이어트약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다이어트약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바디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청소년들의 심리문제, 가정붕괴, 교육경쟁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청소년 마약문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임. 청소년 마약문제는 일종의 현상임. 단순히 청소년이 마약을 한다는 것에만 초점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함
청소년맞춤형 기획, 평가, 모니터링	청소년맞춤형 기획	• 전문교육을 하기 전에 이야기가 먹힐 수 있도록 빌드업하는 과정이 필요함. 아이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청소년 캠프 전문가를 투입했었음 • 대안학교 다니면서 진로 관련 유명인을 만나거나, 모대학 UCC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른 경험을 하게 하였음 • 진로교육, 동기강화, 회복탄력성, 친구개념 다시 세우기, 준법정신, 자원지도 등을 포함했었음
	객관적 진단	• MMPI 같은 척도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하니 아이들이 듣기 시작함
	평가, 모니터링	• 청소년기 약물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교육 콘텐츠의 실효성은 있는지 효과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해야 함

주제	내용	진술 사례
학업유지	청소년보호시설	•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같은 곳에도 약물 청소년들이 있음
	대안학교	• 교육청에서 치유형 대안학교를 운영 중임.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치유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일반 대안학교와 달리 치유교과가 있음. 심리상담을 받고 의사진료를 받아야 함. 치유형 대안학교에 마약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아이들 또래문화 때문에 같이 모이게 하면 안될 것 같음 • 복지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정신건강 이슈가 있는 청소년들이 입소하거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함. 학업일수, 시험결과를 연계하여 인정하고 있음 • 청소년들에게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락하면 학교를 가야해서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방학에 프로그램을 운영함
사후관리	후속 심리상담	• 심리상담을 계속 받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으나 마약중독치료 세팅에서 할 수 없음.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음
	법망 안에서 보호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끝난 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했으면 좋겠음. 법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건강한 체험활동	• 청소년들을 너무 법적인 틀 안에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것보다 지역사회 운동이든 지역 단체, 조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기쁨을 누릴 있는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다. 근거기반 구축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처우, 치료재활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탄한 근거 위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근거기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체계적 조사', '방법론적 타당화', '효과성 평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다학제 전문가 참여'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근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체계적 조사설계를 기반으로 국가단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조사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외에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또는 국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진단 도구들을 국내에 도입하여 활용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한지 방법론적 타당화 절차도 요구되었다. 위와 같은 체계화된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결국 현행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예방, 처우, 치료재활이 청소년 마약류 차단에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정책실현의 근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하지만, 현재 식약처에 구축되어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현장에 반영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근거기반 정책추진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태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필로폰과 같은 불법약물보다는 의료용 마약류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대리처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을 특정하여 개입하는 것은 불가할 수 있으나, 식약처의 관리시스템 안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약물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위험군을 예측할 수는 있다. 지역별, 연령대별, 회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무엇보다 조기예방교육이 강조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조기예방교육이 오히려 마약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효과적인 마약류 차단 예방교육을 위해 교육전문가 참여가 있어야 하며 치료재활 영역에서는 마약분야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외에도 다학제간 전문가 협업이 요구된다.

〈표 5-11〉 근거기반 구축에 관한 의견

구분	내용	진술 사례
체계적 조사	실태조사	• 실태조사, 현황조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음. 그리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애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 받고 있는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증적 대응책이 나와야 함
	심층연구	• 우선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함. 예를 들어 19세 이하 마약사범 481명 중에 200명이 진짜 마약중독자여서 약물의 치료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는게 문제가 아니라 학업 대신에 치료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런데 중독여부에 대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청소년 거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학교를 안 다니고 여기를 와야 되는가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임

구분	내용	진술 사례
방법론적 타당화	문화 타당화	• 청소년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다 따로 만들고 있음. 완전히 예산 낭비임. 전국에 마약 전문가가 얼마나 된다고, 마약환자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치료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용 매뉴얼을 번역해서 쓰고 있음. 미국은 길거리에 마약이 널려 있는 상태에서 애들을 교육하는 것임. 애들을 교육하는 포커스가 다름
	도구 타당화	•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마약류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정병원에 보내서 심리검사를 받도록 함. ASSIST(약물, 알코올, 담배 등 약물사용 선별도구)라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ASSIST는 미국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것임.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임상적 수준의 문제가 아님. 담배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응답하면, 정작 마약은 적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severe' 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불완전한 툴임.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기소유예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명확한 툴인데, 이것을 그냥 쓰도록 되어 있음
효과성 평가	효과성 제고	• 20대 마약사범들을 보면 대부분 10대부터 마약을 해왔음. 이 아이들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그냥 클럽에서 놀면서 기분을 업(up)시키는 도구로만 생각함. '이거는 중독 안되요. 장담해요'라고 말함. 이런 아이들에게 처벌은 반감만 생기지 재범방지 효과는 없음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4일(28시간)은 짧음. 중독이 진행된 애들이 어리다고 기소유예만 해 주면 28시간만 지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임. 누가 봐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기소유예 받으면 끝임
	효과성 입증	• 아이들은 성인보다 처벌에 대해서 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 대안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서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대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것이 이 아이들의 단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더 결정적이라고 생각함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분석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함.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음. 마약사범들을 만나보면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함. AI가 발전해서 통계만 잘 활용해도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면, 얘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을 것임 • 병원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것 때문에 문제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만 활용해도 얘가 지금, 오늘, 이번주에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분석결과 활용	• 약물을 쓰는 것을 보면 분명히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지면서 부모들한테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좋을 것임

구분	내용	진술 사례
다학제 전문가참여	교육전문가	•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 결국 꽂히는 말은 '최고의 쾌감이다'라는 것, 사람으로서 느낄 수 없는, 그것이 문제임 • 교육부 등 기관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마약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함. 과거 성교육을 시작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요즘은 피임기구를 다 꺼내 놓고 명확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검색을 하고, 중고거래로 팔기도 함. 하지만 폐해는 몰랐다고 함 • 교육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임. 임상가들은 아무리 머리를 짜봐야 소용 없음. 임상가는 과학적인 팩트와 사실 중 강조해야 될 것을 짚어 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육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됨 •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음. 예방교육은 수준에 따라 다르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음. 구체적 상품명을 가르쳐주면 안되는 것부터 복잡한 부분이 있음. 이미 미국 교재들 안에서 잘 구현된 부분들이 있음. 그런 것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톤 다운시키거나 올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함
	마약전문가	• 마약을 이해하지 못함. 기존의 알코올시스템에 마약만 얹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마약은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임 • 알코올 문제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마약문제를 해결한다고 센터를 세워 놓으면 마약중독자들이 자기 발로 센터를 이용할지 의문임 • 마약은 누구든 매뉴얼만 갖다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투입되어야 함
	다학제 협업	• 요즘 마약퇴치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과연 사람들이 마약과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임. 의료용으로 우리 몸에 제한적으로 들어와서 효과가 있는 마약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불법인 마약이 있음. 역사를 배우듯 체계적으로 배워야 함. 재밌고 자연스럽게 배우면 되는 것임

3. 환경체계

가. 대중매체

환경체계 접근의 관점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중매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쏟아지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는 오히려 마약을 홍보하거나 안전하게 마약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은 무방비로 정보에 노출되면서 자신이 습득하고자 하는 정보만을 편협하게 습득한다. 예를 들면, 특정 메신저를 이용하면 단속되지 않는다거나, 특정 마약은 중독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유명연예인에 대한 단속, 수사과정을 보며

약물의 폐해를 인식하기보다 호기심을 자극받고 마약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그 방법이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상담관련기관 정보를 기사 하단에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표 5-12〉 대중매체에 관한 의견

주제	내용	진술 사례
대중매체	마약을 홍보하는 언론	• 언론에서 '다이어트약 성지'를 다룬 적이 있음. 그게 다이어트약을 구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것이 되었음 •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보도지만 결과적으로 일부에게는 호기심만 더 자극하는 것이 없지 않음 • TV에서 맨날 텔레그램이 적발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텔레그램으로 구하면 된다고 생각함 • 해외 대마합법화 사례가 보도되면서 아이들의 인식 속에서 대마가 위험하다는 인식 자체가 흐려진 것이 문제임
	마약학습 통로가 되는 언론	• 언론보도 끝에는 마약으로 피폐해지고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하기보다 마약을 저렇게 구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됨 • 몇 년 전 언론보도에서 구글링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연해 주니까 애들이 따라 했고, 정말 마약이 왔음
	매체 지침 필요	• 마약의 위험성을 모르는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하지 않으려면 언론도 대처를 제대로 해야 함 • 자살관련 보도는 하단에 관련 안내문구가 나오고, 자살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 주사기로 약을 뿌리는 장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사기 자체만으로 매우 자극적임. 드라마에서 고등학생이 1등을 하기 위해 펜타닐 패치를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자극적임 • 연예인들이 걸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했던 건데 어떤 느낌일까에 대한 것들도 있음 • 미디어가 너무 무분별함. 아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나. 인프라 확충

인프라 확충은 '전담재판부', '민간참여', '전문인력'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물(치료)법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약물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법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때문에 현재 특정한 분야에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는 것처럼 '약물전문판사'를 활용하

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었다. 약물법원, 약물전문판사 등 전담재판부 도입의 필요성 제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법적 처우와 치료의 연계성에 있었다.

인프라 확충의 개선의견으로 현행 소년보호처분에서 위탁시설을 활용하는 것처럼 마약치료재활에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민간기관 활용의 취지 역시 법제도적으로 처벌보다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역시 전문인력양성에 있다. 마약분야는 회복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영역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와의 라포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류사범과 대면하는 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인력의 전문성 향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5-13〉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

구분	내용	진술 사례
전담재판부	약물법원	• '약물법원'이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워낙 검사 권한이 강한 시스템이므로 약물법원 도입시 고쳐야 할 법이 많음
	약물전문판사	• 가정법원 전문판사가 있는 것처럼 마약전문판사가 있으면 좋겠음. 마약을 재판하는 판사들은 마약사범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약물법원이 생기면 좋겠지만, 특별법원을 구성하려면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함. 소년법원이 생기게 된 것도 청소년 사범수가 늘어났기 때문임. 약물법원이 아니더라도 법과 치료가 같이 있는 제도가 필요함
민간 참여	민간위탁	• 소년보호처분에 '위탁' 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민간단체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청소년이니까 소년원에 무조건 가두지 말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부모와 같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문인력	회복상담가	• 마약분야는 마약을 했다가 회복한 상담사와 마약을 하지 않은 상담자가 있는데, 마약을 안 해 본 사람의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함
	전문가 활용	• 제도, 정책을 볼 줄 아는 전문가가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어야 함. 지금 데이터 수집도 안 되고 체계가 없음
	직접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임. 약물법원 같은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검사, 판사, 보호관찰관, 심리치료사 등이 다 필요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중요함 • 수용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 측면에서 외부전문가가 강의하는 것보다 내부 직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수월함

다. 중앙기구 설치

중앙기구 설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중앙기구설치의 '필요성', '기능', '구조'로 주제를 정리하였다. 전문가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효과적인 마약통제 및 치료재활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마약류범죄 대응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분산된 정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심층적인 고려없이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평이다. 관련 기관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주무부처가 달라 정책 추진의 방향성이 다르고 예산집행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청소년 마약류 차단 정책은 거시적으로는 국가마약류 대응 정책하에 있으므로 중앙기구의 큰 테두리 안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중앙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협의회는 마약류 정책 관련 업무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각 부처별로 구분되어 있는 정책집행의 칸막이를 제거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차단을 위한 제도, 정책, 예산집행의 각 영역, 그리고 생애주기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아우르는 중앙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기구는 마약류 차단과 관련한 모든 일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보다는 정부부처, 지자체,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중복되거나 분절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마약류 차단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이 마약류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해 종단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적 처우를 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 양성을 책임지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재 마약류 관련 인력은 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다. 그 외에 법무부, 경찰청에서 검사, SPO 등이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치료재활 영역에서의 전문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청소년 마약류 차단 대응을 위한 각 영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양성이 요구되나 현재는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다. 경찰 등 공무원은 순환근무 구조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마약청

(DEA)과 같은 기관에서 수사관으로써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앙기구의 구조는 다양한 조직의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법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약류범죄의 처벌이나 치료재활의 각 단계에서 법원의 결정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마약류대책협의회는 행정부만 참여하고 법원이 빠져있어 결정적으로 치료재활을 결정하는 단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가정, 학교, 법집행기관, 치료가 연동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5-14〉 중앙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주제	내용	진술 사례
필요성	분절 체계 관리 통합	• 청소년을 포함해서 전체 마약정책 자체가 부처, 지자체별로 분산되고 서비스가 겹치고 있음. 현장에서는 전쟁이라고 대책 세우라고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음.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막 만들고 있음. 보건소에서 무료로 마약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음.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통제해야 하는 데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계속 소비되고 있는 현실임 • 검찰도 어떤 지청은 조건부 기소유예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어떤 지청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권장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복지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약처 산하임. 산하기관은 부처의 정책을 따르고, 예산집행의 대상도 다름. 식약처 예산으로 복지부 인력 양성교육을 하기에 애매함 • 복지부는 재활이나 치료 모두 식약처에 넘기려는 것 같음. 복지부 일이 아니라고 하고 식약처, 법무부로 넘기려는 것 같음
기능	단계적, 체계적 접근	• 마약류대책협의회 같은 중앙기구에서 가르마를 타 줘야 함 • 큰 테두리, 큰 맥을 가져가는 전문가가 필요함. 분절된 전문가들이 투입되면 실패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는 일이 터지면 한꺼번에 하려고 함. 과정이 있어서 차근차근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종단적 관리체계	• 마약은 예방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끝까지 일대일로 책임진다는 마인드가 필요함. 전문지식을 갖춘 수사관과 일대일 멘토링이 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어른, 건강한 치료자가 있어야 함.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함 • 청소년은 성인과 다름. 청소년은 생애주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봐야 함. 약물상담은 하나의 현상을 다루는 것임

주제	내용	진술 사례
	모니터링체계	• 가정법원에서 치료위탁을 하면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판사에게 자료를 많이 보내주어야 함. 프로그램 참여 상황을 보고 드랍 아웃을 하든, 벌금형을 하든 모니터링을 함. 교육조건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마약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체계가 필요함
	전문가 양성	• 전문가가 없음. 그런데 양성도 못함. 양성할 수 없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국가가 민간에 의지하고 있으나 민간은 그것을 할 여력이 없음 • 소년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교사가 투입됨. 법무부도 심리치료과가 생기면서 직원들 역량강화를 더 추구하는 추세임 • 실질적, 직접적으로 마약사범을 대면하는 경우는 직원역량을 키우는 방향이 맞음.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청소년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례관리를 해야 함. 따라서 지역의 세분화된 직접 서비스 조직에서 마약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함 • 공무원 순환근무 구조로는 전문성을 쌓기 어려움. 전문적으로 마약청 같은 것이 생겨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면서도 치료재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단속 포상 기준 등도 검거건수만 있어서 그 건수에만 의존해서 활동하게 만들고 있음. 검거뿐만 아니라 재활의 관점에서 수치를 객관화하고 평가에 반영하면 좋겠음
구조	법원 참여	• 법원이 바뀌지 않으면 치료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음. 마약류대책협의회 같은 중앙 컨트롤 타워에 행정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참여해야 함
	가정-학교-법-치료 연동체계	• 학교도 담임교사, 위센터, 위클래스, 상담교사, 복지사가 있음. 그런데 마약, 정신건강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병원으로 넘기는 것임.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음 • 교육현장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해도 (병원, 복지부) 법적 권한이 없음.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로 의무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받으러 오지 않으면 그만임 •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마약문제) 걸러지지 않은 애들도 많음. 체계가 없는 것임.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전문기관이 없음. 통합 컨트롤 타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예방-검거-재활의 3박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돌아가야 함

제4절 | 소결

정부의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은 법적 처우와 예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법적 처우 내에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치료재활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체계만 마련되어 있을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간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성인과 분리된 청소년만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은 찾아 보기 어렵다. 예방교육도 학교를 중심으로 약물오남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 역시 명목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적인 교육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의 방침을 세우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사범 및 청소년 공급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지역에 청소년 재활에 특화된 약물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 5월 17일 개최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청소년 마약류 차단을 위한 정부 대응의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판매 및 투약행위 근절,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협업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홍보 및 소통강화로 제시되어 있다. 상기 발표를 통해 파악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정리해 보면, 처벌과 단속 강화,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력 양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캠페인 등으로 파악된다. 위와 같이 추진해 온 정부의 대응 노력은 그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시된 정부 대응은 여전히 여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한계가 있다.

현장실무 전문가들과 청년 마약류사범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에 관한 의견

을 수렴해 보니, 예방교육, 처우와 치료재활, 환경체계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예방교육은 시간, 형식의 구조보다 방법과 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처우에 있어서는 법집행 초기 강력한 개입, 그리고 법적 처분 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요했다. 법적 처분으로 치료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처분 전에 치료참여를 연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처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치료재활과 관련하여서는 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연계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법-학교-가정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이슈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치료재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체계 영역에서는 대중매체 지침, 인프라 확충, 중앙기구 설치가 제안되었다.

면담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맥락, 큰 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마약류 차단 대응에 대해 자원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중앙기구가 필요하며 특히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대응 사례: 미국을 중심으로

Weisheit, R. A.

제6장

청소년 마약류범죄자 대응 사례: 미국을 중심으로

제1절 | 미국 청소년 마약범죄 개요

1. 넓은 맥락에서 본 주요 문제와 과제

미국의 청소년 마약범죄 문제를 이해하려면 미국 청소년 범죄자 처리 전반에 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가적 체계가 없다. 몇몇 제한된 예외 사항이 있지만, 보통 의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의결된 헌법적 사안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미국 대법원은 18세 미만 범죄자의 사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Roper v. Simmons, 2005). 2012년 대법원은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Miller v. Alabama, 2012). 이와 같은 예외 사항은 드문 일이며,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에서 청소년 범죄자는 50개 주의 각 법률과 해당 주 내 3,100개 카운티의 해당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처벌받는다. 50개 주마다 별도의 소년법원(Juvenile Courts) 제도가 있으나, 이 법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최초 소년법원은 1899년 일리노이주에 설립되었으며, 마지막 소년법원은 1965년 하와이에 설립되었다(OJJDP, n.d.).

소년법원의 재판 대상에 대한 법적 규정도 주마다 상이하다. 44개 주에서 18세 이상의 범죄자는 곧바로 성인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3개 주는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고, 3개 주는 16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24개 주는 아동을 기소할 수 있는 최소 연령 규정이 없으며, 나머지 주는 소년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은

7세에서 13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주에서 일부 유형의 폭력 범죄에 대해 매우 어린 소년의 기소를 허용하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National Juvenile Justice Network, n.d.). 해당 연령 미만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형사사법 처리가 아닌 사회봉사 판결을 받는다(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21).

둘째, 형사사법제도의 성인과 달리 개별 청소년 범죄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언론은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제도에서 청소년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대중은 소년법원을 참관할 수 없고, 과거의 체포력 및 유죄 판결 기록 또한 공개하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 정보가 비공개로 운영되면 청소년이 십대의 실수로 미래 사회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년법원 조치를 대중이 볼 수 없게 차단하면 소년법원이 불공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사법제도 내 청소년 연구는 성인 범죄자 연구와 비교하여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더 많다.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운영되면 청소년기의 잘못된 발걸음이 미래의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청소년 법원 조치를 대중의 시선에서 차단하면 청소년 법원이 불공정하게 운영되기 쉬워집니다.

2. 미국 청소년 마약범죄 개요

청소년 체포 건수는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 2000년 2,157,200명에서 2020년 424,300명으로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OJJDP, 2022a; 2022b). 마약범죄는 청소년 체포에서 세 번째로 흔한 사유로, 절도 및 단순 폭행 체포 건수보다 더 적다. 전반적인 청소년 체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마약사범 체포 또한 2000년 197,500건에서 42,280건으로 거의 5분의 1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꾸준히 전체 청소년 체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율은 1980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Puz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또한 이는 1975년 이후 청소년의 마리화나, 기타 불법 마약, 술, 담배 사용 감소를 보여준다(Pussanchrea, Hockenberry, & Sickmund, 2022).

청소년 마약범죄의 정의를 알코올에까지 확대하면 2020년 주류법 위반(88,270건), 음주(11,450건), 음주운전(10,140건) 등으로 청소년이 체포되었다(OJJDP, 2022a). 주류법 위반 및 음주 문제는 공식적 체포 없이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공식 수치는 실제 알코올 관련 체포 건수보다 낮다.

체포 통계는 지역 경찰이 FBI(연방수사국)에 보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집계하므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첫째, 보고는 선택 사항이며 모든 기관에서 FBI에 체포를 보고하거나 데이터를 범주화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 및 재산과 관련한 청소년 체포를 보고하는 정도는 주마다 매우 다양하며, 청소년 마약 체포의 보고 빈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서 폭력 및 재산범죄 체포에 관한 경찰 보고는 해당 주 인구의 1%에 불과하며 마약사범 체포는 FBI에 전혀 보고되지 않는다. 주 인구 100%에 대해 보고하는 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Puz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132-133).

둘째, 자료상 체포 사유가 단순 소지, 밀매, 제조 중 어떤 것과 관련한 것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관련 마약의 양에 관한 데이터도 없다.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가 누락되는 것이다. 알코올과 다른 약물을 분리할 뿐, 그 외 체포 대상 마약의 종류 또한 나와 있지 않다.

셋째, 청소년 사범 검거 목록에는 검거의 주요 사유만이 반영된다. 마약이 체포의 보조적 원인이거나 이차 사유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요 범죄가 절도인 경우라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더 많은 마약 구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절도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 경우, 청소년은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주요 체포 사유는 절도로 기재될 수 있다.

청소년 체포 데이터 외에도 소년법원에 출두하는 청소년의 수에 관한 보고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체포 데이터와 별도로 수집 및 보고되며, 이러한 두 데이터 집합을 개별 청소년에 대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청소년 체포 건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소년법원 출두 사건이 비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019년 소년법원에서 마약법 위반 사건은 96,400건이었는데, 이는 소년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13%를 차지한다(Puz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139). 2019년 소년법원에 출석한 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단순 폭행이

었고, 그 다음이 마약법 위반이었다. 소년법원에 접수된 마약 사건 수는 위에 보고한 마약 체포 건수의 두 배 이상이다. 〈표 6-1〉에 제시된 것처럼, 이러한 불일치는 모든 청소년 체포 건수와 소년법원 출두 건수에서도 더 낮은 정도로 나타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일치 사유는 불분명하지만 청소년 마약 체포 건수를 적게 계산한 결과이거나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성인법원으로 보낸 결과일 수 있다. 경찰은 모든 비행 사건의 82%를 소년법원에 회부하며, 마약 사건은 그보다 높은 90%를 소년법원에 회부한다(Puz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139).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 체포 및 법원 절차 관련 변화는, 일부의 주장과 같이 청소년을 공식 사법제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광범위한 기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National Juvenile Justice Network, 2023).

〈표 6-1〉 미국 청소년 체포 건수 및 소년법원 청소년 수

(단위: 건, 명)

구분	전체 범죄	마약범죄
2020년 청소년 체포 건수	424,300	42,280
2019년 소년법원 청소년 수	722,600	96,400

출처: Puz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3. 청소년 마약범죄 정책 및 전략

청소년 범죄자를 다루는 연방법이 거의 없는 가운데 1974년 미국 의회는 청소년 사법 및 범죄 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JDPA, n.d.)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이 법은) … 소년 및 형사 법원과 관련된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보호감독에 관한 연방정부의 표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피해 예방의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n.d.).*

청소년범죄예방국(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JJDPA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구조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다. OJJDP는 지방

정부에 대해 청소년 범죄자에 관한 연방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보조금을 제공하고 연방정책을 지원하는 연구 자금을 지원하여 연방정부 정책의 채택을 장려한다. JJDPA는 다음 네 영역에서 지방정부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1. 우범 소년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of Status Offenders): 우범소년은 성인이 아니라 비합법인 행위를 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결석, 통금 시간 위반, 가출, 구제 불능 행태, 술 또는 담배 구입, 성인에게 대마초가 합법인 주에서 대마초 구입 등이 포함된다. JJDPA는 우범소년의 수용시설 수감을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성인구금시설에서 청소년 분리(Removal from Adult Jail and Lockups): 청소년을 성인이 사용하는 시설과 동일한 시설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

3. 성인과 청소년의 접촉 분리(Separation by Sight and Sound): 청소년을 성인 수감자와 시각 및 청각 접촉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

4. 청소년 사법체계에서 인종적 차이 해소(Disparities by Race and Ethnicity):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소년사법제도에서 인종적 차이를 줄이도록 권장된다.

주정부에서 OJJDP의 4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채택하더라도 지역의 소년사법제도가 정책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지역은 정책을 집행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권장 정책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본 연구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현지 판사는 주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결석하는 청소년을 구금하였다. 판사는 계속 무단결석을 계속하는 학생에게 학교 출석을 명령하고, 결석이 지속될 경우 그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게 했다. 서류상 해당 학생은 학교 결석이 아니라 판사의 명령 위반에 의해 구금된 것이었다.

제2절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사례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분권적 특성은 연구자에게 문제를 야기하지만, 이는 지방정부에 충분한 실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청소년 마약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소년법정(teen courts 또는 youth courts라고 함) 두 가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위 두 가지는 가장 통상적인 전문적 대응방법이며,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연방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연방보조금에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자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1. 청소년 마약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청소년 마약범죄자를 대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는 청소년 마약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JDTC)이다. 1995년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 법원은 성인 마약법원을 기반으로 하였다(DeVall, Lanier, & Baker, 2022). 최초의 성인 마약법원은 1989년에 생겨났으며 이후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가족 치료, 가정 폭력, 부족(tribal) 치유, 정신건강, 참전용사 치료 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전문치료법원이 만들어졌다.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및 청소년 이중진단장애법원도 만들어졌다.

2019년 기준으로 42개 주에 356개 청소년 마약치료법원이 있으며 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DeVall, Lanier, and Baker, 2022). 위와 같은 법원들은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있다. 2019년 청소년·가족치료법원은 2,04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2014년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이다. 기존 소년사법체계에서 물질남용치료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JDTC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먼저 JDTC의 조건을 준수하고 그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후, 소년법원 판사는 그들을 JDTC로 회부한다. JDTC 참여를 승인받은 청소년은 마약남용의 문제로 회부되지만, 체포 혐의가 반드시 마약 혐의일 필요는 없다. JDTC는 해당 법원에 배정되어 중독과 치료에 대해 훈련받

은 판사, 검사, 변호인, 보호관찰관으로 구성된다. JDTC는 처벌보다 치료에 중점을 둔다. JDTC 참여 청소년은 자주 마약 검사를 받고 판사와 자주 만남을 가져야 한다.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는 판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할 수도 있다. 치료팀 또한 매주 회의를 한다. 매주 회의에서 판사는 마약검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JDTC는 일반적으로 외래치료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가족과 학교 직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치료는 JDTC 참여 청소년의 개별화된 욕구에 맞춰 조정하며, 분노조절이나 정신건강문제와 같은 기타 치료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치료를 실시한다. 마약검사에서 꾸준히 음성판정을 받고 치료계획을 원활히 이행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마약검사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지속적 치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치료팀과의 만남 횟수도 줄여 나간다. 마약검사에 실패할 경우,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제재를 즉시 취하지만, 마약사용이 계속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제재와 인센티브 체계는 청소년이 마약 남용에서 회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DTC에 오는 청소년 중 평균 60%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며(DeVall, Lanier, and Baker, 2022)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약 1년이 소요된다.

청소년 및 성인 마약치료법원은 초기부터 폭넓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종종 법원 운영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법원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JTDC 참여자와 청소년 외래마약치료프로그램(Adolescent Outpatient drug treatment Programs,: AOP) 참여자를 비교하는 것이 있지만, JTDC는 이러한 평가를 거의 하지 않았다. JTDC와 AOP의 청소년을 비교한 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JTDC 참가자는 AOP 참가자보다 훨씬 더 많은 마약남용치료, 가족기반 서비스, 보호관찰 감독 및 마약테스트를 받았으며 치료에 훨씬 더 만족감을 나타냈다. 후속조사 결과를 보면 JTDC 효과의 크기가 작거나 중간 정도 수준이기는 했지만, JTDC 참가자는 마약남용 문제 및 정서적 문제가 있는 날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TDC 청소년 치료를 유지하고 보다 개선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Ives, Chan, Modisette, & Dennis, 2010: 10).*

일반적으로는 청소년 마약법원과 전통적 소년법원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평가연구는 빈번하기 때문에 여러 메타 분석이 있는데 그중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tchell, Wilson, Eggers, & MacKenzie(2012)의 메타 분석은 성인 마약법원, DWI법원, 청소년 마약치료법원의 재범 감소 효과를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 마약법원 참가자는 일반 재범률이 50%에서 38%로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재범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법원 프로그램 이행 3년 후에 나타났다. DWI법원 평가 결과도 유사했다. JDTC 평가는 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청소년 마약법원 평가, 특히 더 엄격한 평가 결과를 보면 이러한 법원의 재범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Mitchell et al., 2012)"고 언급하였다.

Mitchell 등(2012)의 연구는 Tanner-Smith, Lipsey와 Wilson(2016)이 수행한 메타 연구로 확장되었다. 연구자들은 기존 평가 연구들의 방법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자들은 "… 무작위 할당 연구가 거의 없으며, 마약법원과 비교집단 사이의 기준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도 "청소년 마약법원이 재범 및 마약사용 감소 효과가 전통적인 법원보다 확실하게 더 크거나 작다고 밝혀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Mitchell 등(2012)과 마찬가지로 Tanner-Smith, Lipsey와 Wilson(2016)은 엄격한 평가일수록 확인된 프로그램 효과는 더 작아진다고 평가하였다.

2. 소년법정(Youth Courts)[33]

전국소년법정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Youth Courts)에 따르면 미국에 1,000개 이상의 소년법정이 있다. 소년법정은 알코올 및 마약 소지를 포함한 다양한 경범죄(미성년 범죄)를 다룬다. 법정을 이끄는 기본 원칙은 저위험 청소년 범죄자가 다른 청소년에 의해 재판받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보통 소년법원(Juvenile Courts)이나 지역 보호관찰 부서에서 소년법정을 관리하지만 민간기관, 현지 법집행기관 또는 현지 검사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Butts, Buck, & Coggeshall, 2002).

청소년 범죄자의 참여는 자발적이다. 소년법정에 참여하려면 청소년은 자신의 죄를

33) 소년법원(Juvenile Courts)과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 소년법정(Youth Courts)으로 번역함.

인정해야 한다. 소년법정은 공식적인 절차를 벗어나는 형태를 취한다. 청소년이 절차를 철회하거나 형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은 유죄를 인정한 채 전통적인 소년법원으로 돌려 보내져 선고를 받게 된다.

소년법정의 정확한 구조는 지역마다 다르다. 일부 소년법정에서는 세 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패널이 공판심리를 하지만, 또 다른 법정에서는 청소년이 판사 및 배심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 판사가 절차를 감독하는 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이 판사 입회없이 권장 지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기도 한다. 소년법정이 다른 공식 법원과 차별화되는 점은 법정에서 청소년의 역할에 있다.

… 청소년이 사건 접수부터 혐의 검토 및 사실 적시, 적절한 형량을 내리는 일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주도한다. 청소년은 법원 서기, 집행관, 변호사, 배심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제기된 각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소년법정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원봉사자이지만, 다수는 형량 선고 조건으로 소년법정에 참여하게 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다(Butts et al., 2002: 1).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에세이 작성부터 사회봉사, 피해자 배상, 피해자 대한 사과문 쓰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형 선고가 가능하다. 청소년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수업 참여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 범죄자가 형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경우 범죄 기록은 삭제된다.

소년법정은 메타분석과 체계적 검토가 가능할 정도로 많은 평가연구가 수행되었다. 22개 평가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Gase, Schooley, DeFosset, Stoll과 Kuo(2016)는 전통적인 소년사법제도와 비교했을 때 소년법정의 재범감소 효과가 없다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결론지었음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러한 결과는 취약한 연구설계, 개입구성요소의 설명 및 평가 부족,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 측정, 그리고 개입경로 또는 차등적 개입효과에 대한 검사 부족 등 증거기반의 여러 한계가 있다(Gase et al., 2016: 65).*

Bouchard와 Wong(2017)도 소년법정에 대한 14개 평가연구에 따라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 역시 소년법정 참여자의 재범률이 공식 법원 또는 기타 전환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재범률과 다르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Gase 등(2016)과 마찬가지로 Bouchard와 Wong(2017)도 "… 방법론적으로 더 엄격한 평가와 프로그램 설명에 관한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소년법정에 대한 하나의 비판은 공식적인 개입 없이도 재범가능성이 거의 없는 초범 경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법정의 가장 큰 이익은 아마도 청소년 범죄자보다도 제도로 향하고 있다. 소년법정은 미성년 초범자를 공식절차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사, 변호사, 소년법원 판사의 업무량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는 재범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초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법원 참가자, 소년법정 참가자, 보호관찰 대상자, 세 집단의 청소년 재범률을 비교하였다(Hartsell & Novak, 2022). 연구자들은 "소년법정이나 마약법원에 참여했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은 사건이 기각된 청소년에 비해 1년 이내에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제도에 노출되고 모니터링되는 경우, 후속 체포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에 의한 순확대(net widening by the system)를 암시하며, Norris, Twill과 Kim(2011) 또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감자, 성범죄자, 중범죄자 등 재범위험이 높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한 Pappas와 Dent(2023)의 메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3. 그 외 여러 대응 노력

이외에도 많은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다. 정책의 인기는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 Laws)과 야생프로그램(Wilderness Program) 두 가지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가. 부모책임법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알코올 및 마약 사용을 포함하는 청소년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많은 주에서 부모책임법이 통과되었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부모에게 양육수업 참석, 사회봉사, 벌금, 법원 비용 및 보호관찰 비용 지불, 자녀 사건처리에 적극적 역할 수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가 징역을 살 수도 있었다(Samborn, 1996). 어떤 주에서는 법원이 위헌의 모호성을 사유로 해당 법률을 폐지하기도 했다.

부모책임법이 주기적으로 성행했지만 그 효과는 엄격하게 평가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부모책임법에 대한 논의가 거의 사라졌으며, 학술연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1994년~1996년까지 부모책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결론이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 *이러한 법률이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고 있다. 부모책임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국한되어 있으며 통계분석의 정확성이 부족하다(OJJDP, n.d.a).*

나. 야생프로그램

야생프로그램은 야생치유(wilderness therapy)라고도 한다. 야생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이 가족, 친구, 거주지역에서 떨어져 상대적으로 고립된 시골 캠프에서 생활하며, 행동 변화를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백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야생프로그램은 다루고자 하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정신건강문제에 중점을 두거나 청소년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행동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에 중점을 두는데, 가장 흔한 문제는 마약남용 문제이다. 야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은 "주로 비행, 마약 남용 및 반항적인 성향(Bettmann, Lundahl, Wright, & Jasperson, 2011: 192)"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남용 청소년의 경우, 전통적인 외래치료에 실패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야생프로그램 캠프에 대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처벌적 감금의 대안(67.6%), 그 외 다른 시설화 유형의

대안(52.9%)(Fuentes & Burns, 2002: 47)"이라고 답하였다. 부모에게 야생 프로그램은 대부분 최후의 수단이다. 야생프로그램의 비용은 대체로 가족이 부담한다.

야생프로그램 기간은 짧게는 며칠에서 최대 2년까지 다양하다. 프로그램의 질 또한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의 치료적 역할을 강조하는 자격증 소지 전문가(예: 사회복지사, 상담사, 심리학자)를 고용한 프로그램이 재범률 감소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Beck & Wong, 2022; Russell, Gillis, & Lewis, 2008). 안타깝게도 모든 프로그램이 이러한 표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 대다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시설로 돌아간다(Bolt, 2016).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약 절반의 참가자가 비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어떤 경우는 사전 통지 없이 강제로 끌려가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강압적 대우의 윤리적 측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Harper, Magnuson, & Dobud, 2021).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 심지어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이러한 사건발생은 연방정부가 회계감사원(GAO)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행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 *GAO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의 거주치료 프로그램과 미국인이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해외 시설에서 발생한 수천 건의 학대 혐의를 발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사망과 관련이 있다. 주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기록된 학대 및 사망 보고서, 원고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에서 자세하게 기술된 혐의, 인터넷에 올라온 학대 및 사망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만 33개 주에서 1,619명의 직원이 주거프로그램 학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GAO는 전국적으로 포괄적인 자료를 집계하는 웹사이트나, 연방기관 및 기타 기관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Kutz & O'Connell, 2007).*

야생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너무 다양하여 그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부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인도적이고, 치료적으로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따른다고 할 수도 있다.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단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평가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제3절 | 성인모색기에 대한 고려

1. 성인모색기 이론

소년법원, 더 나아가 소년마약법원은 청소년이 단순히 작은 어른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청소년을 성인과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뇌과학 연구는 청소년이 약물사용을 포함한 위험행동에 대해 어른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18세에서 25세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대부분 위험행동을 점차 피하게 된다.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the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의 2020년 보고서(Paat, Hope, & Dominguez, 2023 재인용)에 따르면 청년이 물질남용장애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인식은 성인모색기 이론(Emerging Adults Theory)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성인모색기 이론은 Jefferey Arnett 박사가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후 그의 저서와 학술 논문(Arnett, 2007; 2012; 2014; 2015)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Arnett은 현대 산업사회는 청소년기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결혼과 출산의 평균연령이 높아졌고, 18세에서 25세 사이 젊은이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보다 고등교육을 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여 완전한 성인기에 진입하는 기간과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 사회에서 십 대 후반과 이십 대 초반 청년들의 발달 성향을 바꿨다. … 십 대 후반과 이십 대 초반을 장기적인 성인 역할로 진입하여 자리 잡는 시기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규범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빈번한 변화와 탐구의 기간이다. …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성인 도래기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생애주기 중 하나이다.*

실제로 현대 산업사회로 인해 많은 청년은 청소년기를 연장했다. Arnett은 18~25세의 기간에는 그들보다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18세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은 집에

서 생활하며 25세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들은 대부분 직업과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간에 있는 18~25세는 더 섞여 있으며 주거 변화율이 높다. Arnett은 "성인모색기는 자신을 청소년으로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대부분 자신을 성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Arnett, 2000: 471)"라고 설명하였다. Arnett은 약물남용과 음주운전을 포함한 위험행동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시기는 청소년기가 아니라 성인모색기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성인모색기연구학회, 『Emerging Adulthood』 저널이 있으며, 여러 학자들이 Arnett의 이론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e.g., Monahan, Steinberg, Cauffman, & Mulvey, 2009). Steinberg (2004; 2007)는 16세가 되면 논리적 추론이 성인 수준에 도달하지만, 11세부터 25세까지는 매년 성장하면서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뒤로 밀려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16세가 되면 논리적 추론 능력은 성인 수준에 도달하지만, 충동 조절, 미래 지향 또는 또래 영향에 대한 저항과 같은 심리사회적 능력은 청년기까지 계속해서 발달한다 (Steinberg, 2007: 56).*

이러한 경쟁적 힘의 결과로 위험행동(예: 약물남용, 난폭운전, 범죄)을 하려는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지만, 사회적 압력에 압도되어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Steinberg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위험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 성인모색기 사법(Emerging Adult Justice)

심리학과 인간 발달 분야는 일반적으로 성인모색기 이론을 수용해 왔다.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오랜 관습에 따라, 18세 이상은 법에 따라 성인으로 간주된다. 청소년 사법체계는 관대함과 엄격함 중에서 주로 엄격함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Scott & Steinberg, 2003). 사법체계에서 성인모색기 개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8~25세 인구층에 대한 사법체계의 접근방식과 형사사법체계가 그들을 처우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소년사법체계 내에서의 법적보호를 젊은 청년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법체계가 천천히 이동하는 징후가 있다. 국립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는 2015년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형사사법체계에서 성인모색기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보고서는 실제적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Schiraldi, Western, & Bradner, 2015). 전미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의 2023년 보고서에서도 청소년기의 뇌는 성인의 뇌와 다르게 기능하며, 그러한 차이로 청소년 범죄자 처우에 있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구자들도 사법체계에서 성인모색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Monahan, Steinberg, & Piquero, 2015; Perker & Chester, 2021).

현재로서는 연방정부가 청년법원 설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완전히 분리된 개별형 성인모색기 청년법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법원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례에서 제공되는 것 이상의 지원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법원(hybrid courts)의 수가 약간 더 많다.

가. 독립형 성인모색기 청년법원

독립형 성인모색기 청년법원의 수는 소년마약법원이나 소년법원의 수에 비해 매우 적다. 성인모색기사법연구회(Emerging Adult Justice Learning Community)의 2021년 보고서는 3개의 특별성인법원을 확인하여 법원의 핵심 요소의 예로 활용하였다. 이 법원들의 접근방법은 다양했다. 한 법원은 경범죄만 취급하고, 다른 법원은 경범죄와 제한된 수의 중범죄를 다루었으며, 세 번째 법원은 비폭력 중범죄와 경범죄를 모두 다루었다. 세 법원 모두를 연결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전담판사 및 법원직원들은 성인모색기의 뇌기능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범죄자와 자주 만나 범죄자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2. 법원은 범죄자와 협력하여 마약 치료, 트라우마 치료, 재정관리, 또는 구직기술 등 추가 범죄행동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 범죄자는 자신의 필요를 파악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법원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마약법원과 마찬가지로, 치료계획에서 사소한 실수

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이 법원에서 자동으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가족과 지역사회 내 관련 구성원(예: 피해자)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법원의 목표는 사회통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제도 내에서 슈퍼비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젊은 남녀가 친사회적 성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3. 범죄자와 함께 협력할 때 범죄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자의 부정적 정보나 유죄 정보는 추후 형사사건에서 범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4. 마약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원, 사회서비스 제공자, 범죄자가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5.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혐의 기각, 체포기록 말소, 수감 대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나. 혼합형 성인모색기 청년법원

독립형 성인모색기 청년법원보다 성인모색기 청년을 위한 혼합형 사법체계가 조금 더 일반적이다. Perker와 Chester(2023)는 전국 조사를 통해 각 주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반하여 혼합형 성인모색기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7개의 주를 확인했다. 해당 법률은 18~26세 청년에게 청소년 사법체계의 선별된 보호를 적용하므로 혼합형 제도로 간주된다. Perker와 Chester는 각 법률 체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혼합형 체계를 채택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혼합형 모델의 핵심요소(p.4)"를 제안하였다. Perker와 Chester는 7개 주의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법령을 검토하고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광범위한 면담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1. 나이: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은 혼합형 체계의 처우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범죄: 모든 범죄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적용: 소년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혼합형 체제에 적합한지 결정해야 한다.

4. 절차조항: 청소년에게 먼저 유죄를 인정하거나 배심원재판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5. 선고 조항: 의무최소형량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구금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벌금 및 수수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6. 선고 후 조항: 청소년은 판사의 세심한 감독하에 발달에 적합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법률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징계처분보다는 긍정적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7. 기록 보호: 공식기록으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은 자동적으로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 대해 가혹한 처벌과 관대한 처우지향적 정책 사이를 오가는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성인모색기 청년법원은 치료에 중점을 둔다. 성인모색기 청년법원이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전역으로 확장될지 여부는 지배적 정치 정서에 달려 있다. 과학은 성인모색기 청년법원 설립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성인모색기 청년법원의 존재와 형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에 달려 있다.

제4절 | 소결

1. 향후 동향

향후 청소년 마약범죄자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무엇이 될 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예상은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에서 발표한 2023년 보고서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물질사용(Youth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요인이 청소년 마약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ACE),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겪는 청소년은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 또는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불법행동에 가담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은 성인범죄자를 처우하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정신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사회에 일반대중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 형사사법체계가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모든 청소년이 마약 사용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건강문제로 인해 마약사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청소년 마약범죄자에 대한 JDTC 및 기타 체계의 대응은 마약범죄에 수반되는 정신건강 이슈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결론

미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체포되어 법원에 회부되는 청소년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감소했다. 전체 청소년 범죄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긍정적인 경향이기는 하지만 범죄자 감소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청소년 마약범죄에 중점을 둔 특정 프로그램이 범죄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공식사법체계에서 청소년을 벗어나게 하려는 범국가적 추세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마약법원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청소년 마약치료법원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문이 있으며, 청소년 마약치료법원 및 소년법정이 원래 사법제도에 포함되지 않을 청소년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성인모색기 청년법원은 너무 새롭고 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외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들은 엄격한 평가가 어려워 모든 절차적 측면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 론

김 낭 희

제7장

결 론

제1절 |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공식통계자료 및 보도자료 빅데이터 분석, 조례현황 분석, 현장실무 전문가 및 청년 마약류사범 의견수렴, 국외(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마약류사범은 매년 1~2만 명이 단속되고 있으며, 이 중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3%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의 변화양상을 보면 2013~2018년까지 증가폭이 크지 않았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단속되는 마약류사범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속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환각물질의 사용, 그리고 의사처방으로 합법적으로 투약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다. 생활용품에 포함되어 있는 환각물질과 의료용 마약류 모두 합법적으로, 그리고 저가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사이에서 흡입·투약, 상호공유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다. 흡연이나 음주는 냄새를 통해 주변인이 곧바로 인지가 가능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는 투약을 해도 외현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부모, 교사가 인지하기 어렵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불법은 아니지만 10대 이하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이 2019년 대비 2022년에 48.6% 증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체 처방환자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5.9%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사가

된 펜타닐 패치의 1인당 처방량 차이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전체 처방환자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4.2% 증가한 반면, 20세 미만 처방환자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84.2%까지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식 데이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사이에 의료용 마약류의 문제가 상당히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서구에서 HEDs(Human Enhancement Drugs) 및 PIEDs(Performance and Image Enhancing Drugs) 등 기능강화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McVeigh Evans-Brown & Bellis, 2012, McVeigh, 2020).[34]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청소년의 발달기적 특성과 시너지를 일으킨다. 또래, 호기심, 무모함, 그리고 내재된 자아상과 가치관은 청소년이 마약류범죄에 가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류범죄는 성인보다 더 위험하다. 성인은 마약을 하더라도 용량, 용법을 지키며, 배우면서 투약을 시작하지만 청소년은 다르다. 폭탄주를 마시듯 '폭탄마약'을 한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또래문화의 영향으로 마약을 공유하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도 또래관계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동조한다. 동시에 여러명이 범죄에 가담하면서 위험이 분산되어 위험인식도 낮아진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한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경각심을 느끼기보다 여기저기서 마약, 마약 하니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냥' 시도해 본다. 주사기를 사용하는 필로폰 등 강성마약과 달리 알약, 패치, 전자담배 형태로 약물사용이 간편한 것도 청소년의 마약류범죄의 장벽을 낮추었다. 청소년기의 건강한 신체조건은 마약류 폐해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건강한 청년이 술을 마셔도 다음 날 금방 회복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마약을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마약의 중독성이나 장기적 폐해를 인지하지 못한다. 마약류범죄에 진입하면 '자가발전'을 하며 마약을 찾아다니고,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마약을 찾으며 멀티유저로 변모하기도 한다. 청소년 마약류 문제는 청소년이 마약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

34) PIEDs는 근육강화, 체중감량, 피부헤어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을 포함함. 스테로이드제를 활용한 근육강화가 대표적 예임. HEDs는 PIEDs의 상위개념으로 PIEDs 외에 성기능강화, 인지기능강화, 기분/행동개선약물을 포함함. 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를 포함함. 약물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약물의 불법 제조·유통·사용, 심리적·신체적 중독성 등의 이슈 등이 논의되고 있음.

마약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개, 판매 등 진화된 마약류범죄에 가담하고 여성은 성착취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마약류범죄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 설령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육의 실효성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부재는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편협한 지식을 구성한다. 마약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만 습득하여 위험인식 수준이나 법의식 수준이 낮다. 한편, 부모나 학교 감독의 부재 속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학교보다는 또래 밀착력이 더 강력한 경계 밖으로 끌려간다. 온라인기반 의사소통 방식이 활성화된 사회환경의 변화는 디지털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마약류범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었다. 그에 발맞추어 마약류범죄 역시 진화하며 판매자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청소년을 범죄로 이끌고 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청소년들은 손쉽게 마약산업구조를 파악하고 마약딜러가 되기도 한다.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공식통계와 전문가 인터뷰로 파악한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실태를 재차 확인시켜 주었고, 상세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청소년 또래문화의 특성은 '알음', '동갑내기' 등으로 설명되고, 마약류범죄의 용이함은 '콜라마약', '상품권' 등으로 설명되며, '랜덤채팅', '가상계좌', '텔레그램' 등은 디지털 기반 범죄환경 변화를 설명해 주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청소년들이 마약류범죄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낮고, 생활마약이 확산되어 있으며, 마약류 유통범죄에 가담할 위험성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약류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은 2022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라 할 수 있다.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매년 국무총리실 산하 마약류관리대책협의회에서 차기년도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해 왔다. 하지만 2022년은 마약류관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관심은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을 통해 촉발되었다. 청소년이 마약류범죄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마약류범죄의 피해대상이 되면서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은 크게 예방과 처우 및 치료재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이전까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은 거의 전무하였으며, 처우 및 치료재활도 성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적 처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청소년 마약류 차단을 위해 부처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상 마약류범죄 및 청소년 마약공급범죄 처벌 강화, 청소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개발 및 시행, 청소년 마약실태조사,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재활 특화 약물재활센터 설치, 마약표현 규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모니터링, 캠페인 등이 추진되었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류 차단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각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검토하였다. 2023년 9월 15일 기준, 제정된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총 21개의 '마약'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이중 시도교육청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2개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생애주기적 맞춤형 예방교육의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을 고려한 지방 조례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학교밖청소년을 고려한 지방 조례는 1개에 불과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로 확장하여 분석해 보면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41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41개 기초자치단체 조례 중 청소년을 고려한 조례는 26개로 집계되었으며, 학교밖청소년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와 청년 마약류사범 면담을 통해 도출된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 중심의 예방교육 역량 강화와 예방교육 내실화, 부모(보호자), 교사, 의사·약사, 지역사회 등 주변인 교육, 법집행단계에서 강력한 초기 개입과 처분 전 치료강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근거기반 구축, 언론지침 마련, 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다 큰 맥락의 구조적 틀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수렴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원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미시적으로는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마약류범죄를 포함하여 전체 마약류범죄 대책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중앙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집권한 70년대 전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도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1세기 '新아편전쟁'에 돌입하였으나, 지금 미국의 상황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약류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이어온 선행국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에서 시행한 성인마약법원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마약법원, 소년법원, 소년법정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성인마약법원의 평가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마약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며, 인간발달이론을 수용한 성인모색기 법원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해 전통적인 사법체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가 읽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2절 | 논의 및 제언

그간 한국 사회는 마약류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최근 마약류차단이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이 되면서 숨겨져 있던 마약문제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어찌 보면 이제 더 이상 가려지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 동향을 보면 연령하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마약류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 마약류 차단에 대한 정부대응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경종과도 같다. 실무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20대 젊은 청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류를 사용했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20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단속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그간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지 거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다. 여전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 마약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에서 마약류범죄 차단정책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다 보니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이 한꺼번에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저예산으로 성과 내기에 급급하여 실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대안들이 쏟아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례로 청소년 예방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교육을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정책 현황을 보면 체계적 정책실현을 위한 근거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위와 같은 우려 속에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 마약류차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교육전문가 중심의 예방교육 역량 밀집

교육전문가 중심의 예방교육 역량 밀집이 요구된다. 2023년 10월, 관계부처합동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며,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그간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불법유통차단, 사전예방, 실태조사, 인식제고, 치유 지원의 내용을 종합한 것에 가깝다. 유의미한 개선은 초중고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을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과 분리했다는 점이다.[35] 본 연구에서도 약물중독 예방교육의 시수 보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교육현장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장실무 전문가들은 약물중독예방 조기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이미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교에서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을 학기당 2회 이상, 10차시 교육을 규정한 바 있다. 이미 약물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교육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교육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다. 제5장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제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마약류차단 예방교육은 교육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교육방법과 내용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은 지식 전달에 불과하다.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주제로 교육했을 때 청소년의

35) 교육부는 2023년 10월 16일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고시 [별표1])'를 개정하였음.

마약류 저항력을 강화할 것인지 세밀한 교육적 설계가 필요하다.

청소년 마약류차단을 위해서는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주변인(부모, 교사, 약사·의사 등)에 대한 교육과 대안적 행동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제5장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에서 예방교육시 부모(돌봄자), 교사, 의사·약사 지역사회 등 주변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물론 현재도 부모, 교사 등 주변인에 대한 교육이 있지만, 주변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라'는 정도의 지침으로는 부족하다.

일례로, 미국 DEA는 교육부와 함께 물질사용예방을 위한 부모 가이드 'Growing Up Drug Free: a Parent's Guide to Substance Use prevention'을 발간하였다(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위 지침은 부모가 알아야 하는 주요한 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만약에 아이가 약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do)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don't), 예를 제시하며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여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 지침에서 보여주듯이 청소년의 주변인으로써 마약류차단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사례중심의 명료한 안내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조건 외국의 매뉴얼을 번역해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타당화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당사자 및 주변인에 대한 예방교육 설계, 교재개발을 위해 교육전문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023년 추진된 예방교육은 주로 식약처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경찰청, 법무부가 주도하였다. 물론 각각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다만 교육전문가 주도의 과학적 교육설계가 뒷받침된다면 위와 같은 개별화된 노력이 효율성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청소년 정신건강 기반의 통합적 접근

청소년의 정신건강관리 측면에서 생애주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한 약물이 마약류인지 모르고 마약류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어트약이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이다. 마약류범죄로 분류되는 약물종류가 과거에는 아편, 필로폰, 대마 등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이 도드라지고, 특히 청소년은 마약류라는 정보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함께 외모,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물질에 의존할 수도 있다.

미국 사례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향후에는 청소년의 발달기적 특성과 정신건강, 그리고 물질사용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의 내용을 보면 마약류 등 유해약물 및 중독의 범주를 정신건강영역과 구분하여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신건강관리 영역으로의 통합은 청소년의 치료서비스 이용장벽을 낮추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사법체계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미국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성인모색기 사법(Emerging Adult Justice)은 청소년 마약류범죄 처우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시사점이 있다. 성인모색기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경향은 성인모색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위험행동의 경향은 점차 감소한다. 따라서 20대 중반까지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대응은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사법체계보다 정신건강체계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법체계 내에서 정신건강체계가 이들의 마약중독 및 위험행동에 대해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약류범죄 처우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단속 초기, 법적 처분 전 치료 연계 체계 구축

청소년 마약류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단속 초기단계 및 법적 처분 전에 마약중독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공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무 전문가들

은 마약류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처음 경찰과 대면했을 때 개입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 시기에 선처를 하면 재범방지를 위한 최적의 치료적 개입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말한다. 경찰 단속 후 검찰송치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수사경찰의 개인적 재량과 관심으로 치료기관을 소개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러한 노력이 경찰조직에서 성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치료로 연계될 수 있는 공적체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치료연계가 경찰 성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치료재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유예 등 법적 처분을 하기 전 단계에서도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참여를 독려하고 치료성과가 긍정적일 때 관용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36] 법원 재판단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집행공무원 개인의 선의와 재량으로 치료연계를 하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치료연계를 '권장'하는 방식으로는 마약류 치료체계와의 연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법집행공무원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집행 각 단계에서 처분 전 치료로 연계하여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가능한 치료체계에 노출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연구기관 및 상시 중앙기구 설립

앞서 논의한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마약류정책 추진의 근거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근거기반 구축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과정이다. 공중보건차원에서 예방전략은 5단계 예방전략모델을 근거기반으로 하여 마약류 차단 정책을 추진한다면 유아 시기에 마약예방교육을 실시(Primordial prevention)하는 것에서부터 과도한 의료용 마약류 남용을 모니터링(Quarternary prevention)하는 정책까지 하나의 체계화된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Kisling & Das, 2023). 이처럼 이론적, 실천적 근거는 정책수립의 안정감을 부여하고 정책실패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

36) 2023년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연합뉴스(2023.9.13.). "인천지검-인천참사랑병원, 청소년 마약사범 치료 맞손".).

제5장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각 사안별로 근거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가 당연히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사안에 접근하다 보니 분절적이고, 중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들이 나타나 연구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2022년 청소년 예방교육 관련 연구용역을 보면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및 실효성 평가 분석', '마약류 예방교육 실감콘텐츠 개발',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교육자료 제작', '마약 예방 법교육 콘텐츠 개발' 등 유사한 형태의 연구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실태조사 역시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등 유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마약류 중독 정신건강 총괄기구 설치 및 중장기 로드맵 개발(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관리 법제화 연구(식약처)', '마약류 중독 치료기술 개발 사업 예비기획 연구(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수행하였다.[37] 연구 내용을 보면 각각 다른 주제의 연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주제별로 체계화하고 종합하면 보다 효율적인 연구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약류관리 대책 수립의 근거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연구기관의 설립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국 NIDA(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의 사례와 같이 국가 주도의 연구기관이 꾸준히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여 발간하고 이를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기관에서 정책수립의 근거기반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는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여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시 중앙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협의회'이므로 이를 상시 체계로 전환하여 국가 마약류관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중 청소년 마약류사범 법집행단계에 대한 대응 의견에서 법집행자의 중독치료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37)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홈페이지 연구용역 참조 (http://g2b.go.kr).

다른 측면으로 해석해 보면 법집행공무원이 치료효과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하지 못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운영가능한 치료보호기관은 제한적이어서 치료연계 기관이 부족하며, 마약치료 전문가도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상시 중앙기구에서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 전문성 양성체계도 마련하여 치료의 인적 인프라를 확장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협의체 형태로는 마약류 공급차단, 수요억제, 국제공조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대책 정책추진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그리고, 상시로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의 실행을 감독하며,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정한 부처에서 적정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는 중앙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듯 청소년 마약의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의 조합으로 발현된 하나의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는 가정, 학교, 또래 더 거시적으로는 사회불안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물이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마약'에만 초점을 맞추는 단선적 접근은 지양하고 생애주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마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불안정한 사회구조를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마약류문제는 사회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마약과 범죄조직 간 유착이 사회문제화되지 않고 있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약산업이 소위 'MZ조폭'과 결탁하면 현재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마약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 불법도박, 성착취(조건만남)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은 자원낭비이며 비효율적인 접근이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활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학제간 전문가들이 포괄적인 관점으로 문제해결에 함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를 다양한

시각으로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상황의 큰 맥락을 살펴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장실무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고 고려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펼쳐놓은 것과 같다.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책은 범죄 발생 전 예방과 홍보, 범죄 발생 후 치료처우, 사회복귀 후 재범방지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단계별 접근의 체계화 연구는 물론, 정책적 제언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주제별로 초점화한 정책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공태명, 최응렬. (2012).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4), 9-40.

권중록. (2009). 공익광고 요인과 청소년 개인 성향요인이 마약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20(3), 145-177.

김태우, 유수동, 한형서. (2020).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2(2), 317-338.

김학신. (2012). 마약류 관리법상 청소년의 마약범죄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법학논총, 36(1), 469-505.

김혜진. (2020). 뉴스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토픽 분석(LDA)을 통한 성범죄 치안 이슈의 효율적 탐색. 한국범죄학, 14(1), 5-20.

대검찰청. (2013). 2012 미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3). 2022 미약류 범죄백서.

박선영, 박현나. (2023).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교정담론, 17(1), 29-63.

박성수. (2017). 청소년의 물질중독 예방전략-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4), 43-62.

배정이, 김영훈, 황원주. (2009). 청소년 물질남용 (음주, 흡연, 마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웹기반 전문가시스템 개발. 정신간호학회지, 18(2), 116-128.

양혜정, 김채윤. (2022). 미국의 청소년 마약류 사용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한 국내 정책의 시사점.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4), 127-145.

오세현, 강현아 (2021). 아동학대 정책 변화 시점 별 뉴스 분석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70(3), 1-31.

우 룡. (2004). 청소년 약물남용과 마약류사범 동향. 청소년보호지도연구, 5, 21-36.

이무송. (2022). 청소년의 신종마약류중독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2), 35-53.

이상열. (2008). 최근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7(1), 145-174.

이성애, 조호대. (2018).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303-330.

이은영, 전연규. (2022). 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3), 85-102.

이정혁, 강동욱. (2018).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남용에 대한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소년보호연구, 31(4), 199-236.

전영실, 김유근. (2022). 10대·20대 마약류사범 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허경미. (2023). 스웨덴의 청소년 약물 관련 통제정책 연구. 소년보호연구, 36(1), 146-167.

2. 국외문헌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Arnett, J. J. (2012).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5th Edition. London: Pearson.

Arnett, J. J. (201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2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rnett, J. J. (2015). The oxford handbook of emerging adult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eck, N. & Wong, J. S. (2022).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wilderness therapy on delinquent behaviors among youth.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9(5), 700-729. https://doi.org/10.1177/00938548221078002

Bettmann, J. E., Lundahl, B. W., Wright, R., & Jasperson, R. A. (2011). Who are they? A descriptive study of adolescents in wilderness and residential

programs. Residential Treatment for Children & Youth, 28, 192-210. https://doi.org/10.1080/0886571X.2011.596735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Bolt, K. L. (2016). Descending from the summit: Aftercare planning for adolescents in wilderness therap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8, 62–74. https://doi.org/10.1007/s10591-016-9375-9

Bouchard, J. & Wong, J. S. (2017). A jury of their peers: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teen court on criminal recidiv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 1472-1487. https://doi.org/10.1007/s10964-017-0667-7

Butts, J. A., Buck, J., & Coggeshall, M. B. (2002). The Impact of Teen Court on Young Offenders: Research Report. Urban Institute Justice Policy Center.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gvb_T3Nf_AhWdnokEHV9UAoIQFnoECA0QAQ&url=https%3A%2F%2Fwww.ojp.gov%2Fpdffiles1%2Fojjdp%2F237391.pdf&usg=AOvVaw1Eq9qNsuMmquIboDt9mhP2&opi=89978449

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n.d.).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History of the JJDPA. http://www.juvjustice.org/federal-policy/juvenile-justice-and-delinquency-prevention-act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DEA)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Growing Up Drug Free: a Parent's Guide to Substance Use prevention. https://oese.ed.gov/files/2022/01/Final-508-Compliant-Online-small.pdf

DeVall, K., Lanier, C., & Baker, L. J. (2022). Painting the current picture: A national report on treatment court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Drug Court Resource Center.

https://issuu.com/ndcrc/docs/pcp_nationalreport_combined_content_2022_5_22_23_d

Emerging Adult Justice Learning Community, (2021). A Roadmap to Reform: Key Elements of Specialized Courts for Emerging Adults.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F4fKZ0Nf_AhXDGjQIHSA-AQoQFnoECA0QAQ&url=https%3A%2F%2Fjusticelab.columbia.edu%2Fsites%2Fdefault%2Ffiles%2Fcontent%2FKey%2520Elements%2520of%2520Specialized%2520Courts%2520for%2520Emerging%2520Adults.pdf&usg=AOvVaw2j6pW94gfSMNf0ojQ_6rqI&opi=89978449

Fuentes, A. I., & Burns, R. (2002). Activities and staffing patterns in therapeutic wilderness camps: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35, 41-62.

Gase, L. N., Schooley, T., DeFosset, A., Stoll, M. A., & Kuo, T. (2016). The impact of teen courts on youth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Adolescent Research Review, 1, 51-67.

Goldberg, Y. & Levy, O. (2014). word2vec explained: deriving Mikolov et al.'s negative-sampling word-embedding method. arXiv:1402.3722.

Harper, N. J., Magnuson, D., & Dobud, W. W. (2021). A closer look at involuntary treatment and the use of transport service in outdoor behavioral healthcare (wilderness therapy). Child & Youth Services, 42, 200-219. https://doi.org/10.1080/0145935X.2021.1938526

Hartsell, E. N. & Novak, A. (2022). A comparison of rearrest outcomes between youth in juvenile drug court, teen court, probation, and dismissed cases. Crime & Delinquency, 68(10): 1819-1846. https://doi.org/10.1177/00111287211073704

Ives, M. L., Chan, Y., Modisette, K. C., & Dennis, M. L. (2010). Characteristics, needs, services, and outcomes of youths in juvenile treatment drug courts as compared to adolescent outpatient treatment. Drug Court Review, 7, 10-56.

Jurafsky, D., & Martin, J. H. (2000). Speech and Language Processing: An Introduction to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Speech Recogn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Kisling, L. A., & Das, J. M. (2023). Prevention Strategies. In: StatPearls.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537222/

Kutz, J. D. & O'Connell, A. (2007). Concerns regarding abuse and death in certain programs for troubled youth. U.S. Government Accounting Office, # GAO-08-146T. Report and Testimony to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House of Representatives, October 10, 2007.

McVeigh, J. (2020). Health and social responses to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use of performance- and image-enhancing drugs.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EMCDDA).

McVeigh, J., Evans-Brown, M., & Bellis, M. A. (2012). Human enhancement drugs and the pursuit of perfection. Adicciones, 24(3), 185-190.

Miller v. Alabama (2012). U.S. Reports: Miller v. Alabama, 567 U.S. 460 https://www.loc.gov/item/usrep567460/

Mitchell, O., Wilson, D. B., Eggers, A., & MacKenzie, D. L. (2012).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drug courts on recidivism: A meta-analytic review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drug cour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0, 60-71. https://doi.org/10.1016/j.jcrimjus.2011.11.009

Monahan, K. C., Steinberg, L., Cauffman, E., & Mulvey, E. P. (2009). Trajectories of antisocial behavior and psychosocial maturity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654-1668. https://doi.org/10.1037/a0015862

Monahan, K., Steinberg, L., & Piquero, A. R. (2015). Juvenile justice policy and practi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rime and Justice, 44(1), 577-619. https://doi.org/10.1086/681553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21). Age Boundaries in Juvenile Justice Systems. https://www.nga.org/publications/age-boundaries-in-juvenile-justice-systems/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23). Youth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ttps://www.nga.org/publications/youth-mental-health-and-substance-use/

National Juvenile Justice Network (2023). 2022 Youth Policy Advances. https://www.njjn.org/our-work/2022-youth-policy-advances

National Juvenile Justice Network (n.d.). Raising the Minimum Age for Prosecuting Children. https://www.njjn.org/our-work/raising-the-minimum-age-for-prosecuting-children

Norris, M., Twill, S., & Kim, C. (2011). Smells like teen spirit: Evaluating a midwestern teen court. Crime & Delinquency, 57(2), 199-221. https://doi.org/10.1177/0011128709354037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2022a, July 08). Statistical Briefing Book: Juvenile Arrests. https://www.ojjdp.gov/ojstatbb/crime/qa05101.asp?qaDate=2020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2022b, July 08). Statistical Briefing Book: Juvenile Arrest Rate Trends. https://www.ojjdp.gov/ojstatbb/crime/JAR_Display.asp?ID=qa05272&selOffenses=19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n.d.). Historic Cases in Youth Justice. https://ojjdp.ojp.gov/events/historic-cases-in-youth-justice#sa14ru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n.d.a). Juvenile Justice Reform Initiatives in the States, 1994-1996: Parental Responsibility Laws. https://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pubs/reform2/ch2_d.html

Paat, Y., Hope, T. L. & Dominguez, S. (2023). Substance use behavior among Hispanic emerging adults in Los Angeles, California. Journal of Ethnicity and Substance Abuse, 22(2), 453-476. https://doi.org/10.1080/15332640.2021.1952131

Pappas, L. N. and Dent, A. L. (2023). The 40-year debate: A meta-review on

what works for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9, 1-30. https://doi.org/10.1007/s11292-021-09472-z

Perker, S. S. & Chester, L. E. H. (2021). The justice system and young adult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Pediatrics, 147: e2020023523H.

Pussanchrea, C., Hockenberry, S., & Sickmund, M. (2022). Youth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2022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https://ojjdp.ojp.gov/library/publications/youth-and-juvenile-justice-system-2022-national-report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https://www.loc.gov/item/usrep543551/

Russell, K,. Gillis, H. L., & Lewis, T. G. (2008). A five-year follow-up of a survey of North American outdoor behavioral healthcare program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31, 55-77.

Samborn, H. V. (1996). Kids' crime can send parents to jail. ABA Journal, 82(3), 28-29.

Schiraldi, V., Western, B., & Bradner, K. (2015). Community-based responses to justice-involved young adult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the Harvard Kennedy School Report.
https://www.ojp.gov/pdffiles1/nij/248900.pdf

Scott, E. S. & Steinberg, L. (2003). Blaming youth. Texas Law Review, 81: 799-840.

Steinberg, L. (2004). Risk-taking in adolescence: What changes and wh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21(1), 51-58.

Steinberg, L. (2007). Risk taking in adolesc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2), 55-59.

Tanner-Smith, E. E., Lipsey, M. W., and Wilson, D. B. (2016). Juvenile drug court effects on recidivism and drug u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2, 477-513. https://doi.org/10.1007/s11292-016-9274-y

3. 인터넷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g2b.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korea.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cppb.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moleg.go.kr.

4. 보도자료 (최종검색일: 2023.11.30.)

KBS(2021.10.8.). “승합차로 환자 태우고 병원 돌며 마약성분 진통제 쇼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6738&ref=DA
YTN(2022.10.2.). “[뉴스큐] 베이글에 ‘대마 버터’를 바른다? … 군부대 담 넘은 ‘마약’”.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071701065508
YTN(2022.10.26.). “[더뉴스] 일상 파고든 마약… 유통 고리 끊을 방법은?”.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61436021614
교육부 보도자료(2023.5.17.).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5060
머니투데이(2022.12.2.). “재벌가 손자들 ‘마약스캔들’ … 美국적 가수·금융지주사 사위도 함께 기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0214265876139&outlink=1&ref=%3A%2F%2F
서울경제(2022.10.23.). “마약 성분 들어간 ‘환각 버섯’ 보관하던 고등학생 ‘덜미’”. 2022.10.23.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GOMFVSG
세계일보(2023.4.11.). “[단독] 캔커피 마약 나온 울산… 이제 하다하다 콜라마약도”.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1514575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3.7.19.). “지난해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7471
약사공론(2023.2.1.).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법 추진”.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39728

연합뉴스(2021.5.20.). "마약성 진통제 유통·판매한 10대 42명 검거... 학교서도 투약".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59700052?input=1195m

연합뉴스(2023.9.13.). "인천지검-인천참사랑병원, 청소년 마약사범 치료 맞손".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3126700065?input=1195m

연합뉴스TV(2022.10.21.). "[현장연결] 윤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해 달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021006000038?input=1825m

중앙일보(2021.5.26.). "랜덤채팅 '아이스방' 은밀한 만남…필로폰 거래 소굴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7137

중앙일보(2023.4.13.). "고3 마약상, 성인 6명 수하로 부렸다…그의 손엔 7억대 마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759

파이낸셜뉴스(2023.6.6.).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게… 다크웹·텔레그램 뒤 숨은 판매책". https://www.fnnews.com/news/202306061810148748

한국일보(2023.3.22.). "'나비약 팝니다'... '다이어트 의약품' 불법거래 왜 판치나 봤더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114180002001

한국일보(2023.9.14.). "먼지제거제, 냉각 스프레이... 마약 대용품 '신종 환각물질' 찾는 청년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1430002312?did=NA

헤럴드경제(2022.10.20.). "트위터 OO샵에 '나비약' 버젓이...10대 부추기는 '댈'의 유혹".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20000432

Abstract

Adolescent Drug Crime: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Kim, Nang-hee · Lee, Sun-hyoung · Weisheit, R. 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atus quo of drug crimes and to explore countermeasures by focusing on adolescents, who are the priority policy target in responding to drug crimes. For the study, official statistics and media reports were analyzed, and eight field practitioners and three young drug offenders were interviewed in depth. In addition, the study reviewed and derived implications from the cases of drug crimes among adolescents,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Drug crimes among adolescents have increased by more than four times in the past five years. In 2022, it accounted for 2.6% (481 people) of the total number of drug offenders, but it is attracting social attention because of its large increas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of the abuse of legal drugs, as the amount of prescription drugs for adolesc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summary of the opinions of field practitioners and young drug offenders, adolescents are prone to drug crimes due to a combination of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adolescence, social neglect, a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When analyzing the contents reported in the media about drug crimes among adolescents, the topics of “adolescent drug investigation/arrest” and “adolescent drug prevention/rehabilitation” accounted for a high percentage, but prevention/rehabilitation articles tended to disappear faster than investigation/arrest articles. In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media reports,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peer culture are explained by terms

such as “word of mouth” and “friends of the same age”, the ease of drug crimes is explained by terms such as “cola drugs” and “gift certificates”, and “random chat”, “virtual account”, and “telegram” explain the change in the digital-based crime environment. Big data analysis also confirmed that adolescents have a low level of risk awareness of drug crimes, that daily-drugs are spreading, and that the risk of participating in drug trafficking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Drug Control through the Drug Control Council, and each government department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respond to drug control. Among them,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prevent drug crimes among adolescents are as follows: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drug crimes against adolescents and drug supply crimes by adolescent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education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Survey of drug use among adolescents, Establishment of a drug rehabilitation center specializing in drug rehabilitation for adolescents, Regulation of drug expressions, Monitoring of the prescription of drug medicines, Campaigns.

Although various opinions were derived from interviews with experts and young drug offenders, experts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set a big context and a big framework from a more macroscopic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have a central organization for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to prevent duplication of resources or blind spots in the response to drug crimes among adolescents, and to emphasize the participation of education experts, especially in prevention education.

The United States does not seem to have succeeded in the war on drugs at present, but it is a country that has pioneered various policies to prevent drug crimes. The adult drug courts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is evaluated as having achieved some success, but a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juvenile courts, and youth courts for adolescents yielded different results from the evaluation of the adult drug court. Recently, the relevance of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drugs has been emphasized more, and new attempts are underway, such as the Emerging Adult Justice that based on

the human development.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re are attempts to move adolescents away from the traditional judicial system.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derived. 1) It is required to concentrate the capacity of prevention education centered on education experts. 2) Integrated approach based on adolescent mental health should be made. 3) A treatment linkag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early stages of detection and before legal disposition. 4)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rug research institute and a permanent central management agency should be promoted.

연구총서 23-AB-08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발　　행 | 2023년 11월
발 행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하 태 훈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9-11-91565-96-6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